기쁨의 언덕으로 edSant

사랑하는 _____ 님께 드립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HOSONNA

우리는 기토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때 기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일을 하기전에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 ^{오스왈트 캠}리스

We pray when there's nothing else we can do;

Jesus wants us to pray before we do anything at all.





Dear Lord 주님,

From December 2021, 12월에는

Time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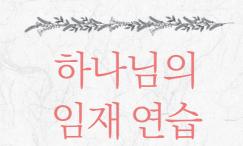
Place 장소

에서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 <mark>로렌스 형제</mark> -Brother Lawrence

로렌스 형제는 1611년 프랑스 동부 로렌(Lorraine) 지방, 에리메닐(Herimenil)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열여덟 살되던 겨울 어느 날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던 그는, 자연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 파리에 있는 소수도원, 맨발의 카르멜회(Discalced Carmelite Prior in Paris)에 들어갔다. 그러나 충분한 고등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 형제의 자격으로 1691년 2월 12일,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기까지, 그는 반평생 넘도록 수도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샌들을 수선하는 등 허드렛일을 하며 보냈다. 하지만 일의 크고 작음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였으며, 기도 중이건 일하는 중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연습하여 일종의 생활 습관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로렌스의하나님은 그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심부름을 하고, 걸레질을 하고, 항아리를 닦았던 것이다.

로렌스의 이런 삶에 감명을 받은 보포르 신부가 로렌스 형제 사후, 그와 나눈 대화 및 자신을 포함 여러 지인들과 주고받은 열다섯 통의 편지들을 엮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발간하였다.

크리스천의 삶에 영향을 끼치며 신앙의 고전이요, 신앙생활 필독서로 손꼽혀온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매 순간마다 느끼며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영적 기 쁨이 샘솟기를 바란다.

면지들 LETTERS

나는 단순하게(simply), 믿음 안에서(in faith), 겸손과 사랑으로(with humility and with love)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은 아예 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으려 하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쳤을 때, 그분이 원하시는 걸 나와 더불어 해주시리라 희망합니다.

열다섯 번째 편지

FIFTEENTH LETTER

죽음에 임박하여: 하나님을 알기 힘쓰고,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동일하게 그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가장 잘 아시며,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 안다면, 그가 하시는 일이 달던 쓰던 간에 가리지 않고 항상 동일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모두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볼 때 고통은 절대 견딜 수 없을 만큼 쓰라리게 다가온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면 그분은 고통을 덜어 주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아프게 하시는 그분이 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FATHER)'임을 인식할 때, 우리의 괴로움은 그 쓰라림(bitterness)을 잃게 되고, 심지어 위안(consolation)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임무(employment)는 하나님을 아는 것(to know GOD)이어 야 합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지요. 보통 상대방을 얼마나 아

는지를 가지고 사랑을 측정(the measure of love)한다고 볼 때,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더욱 깊고 풍부해질수록, 우리의 사랑 역시 더 커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위대하다면,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in pains and pleasures) 똑같이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이 주신, 혹은 앞으로 베푸실 어떤 상당한 은혜(sensible favours)에 겨워(그것이 얼마나 높던지 간에), 하나님을 찾거나(seek) 사랑하지 마세요. 그러한 은혜는 아무리 크다 한들 단순한 믿음의 행동보다 우리를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자주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 가서 그분을 찾지 맙시다.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쩌면 불쾌해하실 하찮은 일들(trifles)에 빠진 채 그분을 홀로 내버려둔다면, 우리는 버릇없는 사람들이며, 비난 받아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런 시시한 것들이 언젠가 우리에게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겠기에우리는 두려워해야합니다.

성실함으로 그분께 헌신하기를 시작합시다. 그 외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몰아냅시다. 그래야 그분 홀로 우리 마음을 차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 이 은총을 간구하세요.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곧 우리가 열망하던 변화(change)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고통을 완화(relaxation)시켜 주셨다니 참으로 감사 드립니다. 나는 그분의 자비로 며칠 후면 그분을 뵙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틀후, 그(로렌스 형제)는 자리에 누웠고, 그주에 세상을 떠났다. 로렌스(로랭) 형제의 본명은 '니꼴라 에르망(Nicholas Herman)'으로, 1611년 프랑스 동부 로렌(Lorraine) 지방, 에리메닐(Herimenil)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열여 덟살 되던 겨울 어느날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던 그는, 자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는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된다. 그러나 수도원에 입문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렸는데, 그 사이 참전했던 30년 전쟁(1618~1648년)에서 독일군의 포로로 잡히기도 하고,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는 등 고초를 겪었다. 퇴역 후에는 절름거리는 다리로 인해심부름꾼으로나일할수 있을 뿐이었다.

이후 파리에 있는 소수도원, 맨발의 카르멜회(Discalced Carmelite Prior in Paris)에 들어간 그는, 새로 '부활의 로렌스(Lawrence of the Resurrection, 부활의 로랭)'라는 수사명을 얻었다. 충분한 고등 교육을 받지 못 했기에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 형제의 자격이었다. 1691년 2월 12일,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기까지, 그는 반평생 넘도록 수도원 부엌에서음식을 만들고 샌들을 수선하는 등 허드렛일을 하며 보냈다. 하지만 일의 크고 작음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였으며, 기도 중이건 일하는 중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매순간마다 연습하여 일종의 생활습관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로렌스의 하나님은 그와 함께음식을 만들고, 심부름을 하고, 걸레질을 하고, 항아리를 닦았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로렌스의 이런 삶에 감명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나중에 파리 대주교 (Archbishop of Paris) 소속, 주교 대리 법무관(vicar general)이 된 보포르 신부(Father Joseph de Beaufort)도 있었다.

이 책은 로렌스 형제 사후, 보포르 신부가 그와 나는 대화 및, 자신을 포함 여러 지인들과 주고받은 열다섯 통의 편지들을 엮어 책으로 낸 것이다. 가톨릭과 개신교를 막론하고 크리스 천의 삶에 영향을 끼치며 신앙의 고전이요, 신앙생활 필독서로 손꼽혀온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매 순간마다 느끼며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영적 기쁨이 샘솟기를 바란다.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① 통독본문

3년 1독을을 위한 오늘 통독 범위

2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③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January 금 Fri

지혜를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How do we increase our wisdom?

1 동독본문 Reading Plan 잠연 Proverbs 1-2장

 3
 새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4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5

2

1장은 잠언의 서언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자 시작이며 특히 젊은이들이 지혜와 훈계를 깨달아 삶의 원리 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다. 2장은 1장에 이어 지혜가 주는 유익이 나오는데 그 지혜를 얻으려면 찾 고 구혜야 하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지혜를 주심을 약속 하다

잠언 2:1-1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체명을 네게 간직하며

2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3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 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6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 에서 내심이며

7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 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8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9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10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11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12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 리라

내지샘플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Reading insight

Chapter 1 is the prelude of Proverbs: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asis and beginning of knowledge; young people especially should learn the principles of life by understanding wisdom and instruction: and we are admonished to live life in accordance with God's will. Chapter 2 continues to elaborate on the benefits of wisdom. If we want to gain wisdom, we must seek it. And if we seek it, we will receive it as a gift from God.

Proverbs 2:1-12

- ¹ My son, if you receive my words and treasure up my commandments with you,
- ² making your ear attentive to wisdom and inclining your heart to understanding;
- ³ yes, if you call out for insight and raise your voice for understanding,
- ⁴ if you seek it like silver and search for it as for hidden treasures,
- 5 then you will understand the fear of the LORD and find the knowledge of God.6 For the LORD gives wisdom; from his mouth come
- knowledge and understanding;

 7 he stores up sound wisdom for the upright; he is a shield to
- those who walk in integrity,

 8 guarding the paths of justice and watching over the way of
- his saints.

 Then you will understand righteousness and justice and
- equity, every good path;

 10 for wisdom will come into your heart, and knowledge
- 11 discretion will watch over you, understanding will guard

will be pleasant to your soul;

12 delivering you from the way of evil, from men of perverted speech,

말씀 속으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4절)
What should we do to gain wisdom? (2:2-4)

지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6절)
From whom does wisdom come? (2:6)

4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⑤ 맥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독습니다.

- (a)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 ❷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3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히 묵상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①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 ②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구해야 할 대상입니다 Wisdom is a gift from God and must be sought

장인의 히브리어 단어 '마살'은 '-와 같다', '비유'로 번역이 되어 삶에서 관찰된 양정한 패턴들의 교훈을 건강하게 담은 휴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바 늘 '장'에 말씀 '안'을 사용하여 마치 바늘로 찌르듯이 가르치는 말이란 뜻이지 요. 슬로모음 비롯한 지해자들은 살을 깊이 관찰하면서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발 견하였습니다. 2정에서 슬로몬은 "이이들이" 하면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권고하듯이 말씀합니다. 권고의 핵심은 "구하고 찾으라"는 겁니다 (3~4절).

선물을 구하고 조르는 자녀에게 주지 않을 부모는 가의 없습니다. 하나님도 구하는 자세계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입니다 (마가:11), 지혜물 얻으려면 우리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소리를 녹여야 하고 보 화를 찾듯이 찾으면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산을 돌아보면 외일로 지혜를 구하가나 찾지 않는 자산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지혜를 보회처럼 여기되는 않기 때문입니다.

공안 4:7에서는 지혜가 으뜸(supreme)이기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비쳐서 리도 명칭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보화이며, 그것을 만든 자근 구하고 찾 고 결국 안계 됩니다. 그러나 용시에 지혜는 하나인이 전히 주시는 성종[자시증 절), 그분이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알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지혜가 없었다면, 새해에는 으뜸이며 보화인 지혜를 구하고 찾 으십시다

The Hebrew word for proverbs is "mashal" and means "__ is the same as." It is translated as "parable" and is an instruction succondry containing certain patterns of precepts observed in life. In Chinese, it is RE_Ametun. It consists of the word "Jam" which means "a needle" and "Eun" which means "spoken word. "Combined it means to teach as if poking with a needle. People with wisdom, including Solomon, deeply observed life and discovered certain patterns existed. Solomon begins Chapter 2 with "My son", like when a father admonishes his children. The essence of the admonition is to "seek and search." (2:3-4)

There is no parent who would refuse to give a gift to a child who earnestly asks for one. Our Father in Heaven will give good gifts to those who ask tim, (Matt 7:11) if we want to gain wisdom, then we must ask for it and seek God who is the source of wisdom. We must raise our voice and we must seek it as if seeking treasures. Then we will be given wisdom and understanding. But if we look at ourselves, we might be surprised that we are not seeking or searching for wisdom. It is because we do not treat wisdom as a precious treasure though we know that we need wisdom.

Proverbs 4:7 says that wisdom is supreme; therefore, we should gain understanding even though it may cost all you have. Wisdom is treasure and those who believe that will seek, search, and ultimately gain it. But at the same time, wisdom is given by God and God is wisdom. (2:6) In other words, we cannot gain wisdom if we are separated from God, If we had no wisdom until now, let us seek and find the supreme being and treasure of wisdom as we welcome the New Year.

간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년 Prayer for Churches & Pas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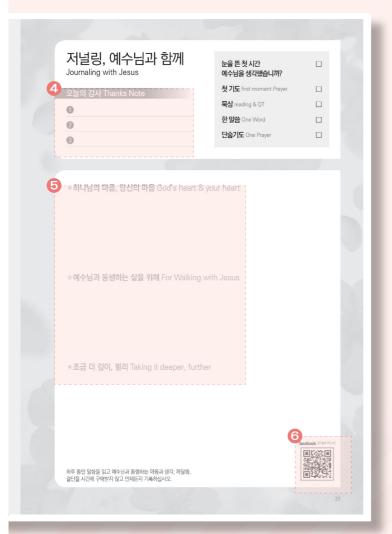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 금원재(AK) 기쁨의 교회, 장준식(AL)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22

내지샘플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4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⑤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바로가기

OR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성경일독/말씀묵상

혼자서도문제없다

▲ 시간을 정해 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찬송, 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워드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십시오. 각 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구절에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나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여정을 기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마무리는 이렇게!

지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amily Pleasant Hill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자녀를 제자화해야합니다!

◀ 언제가좋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 녁시간 이후, 혹은 아침 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2 모임 장소 Tip!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 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 지 않도록 합니다.

3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인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 서를 정하니다. 아빠\ 얼마\ 첫째 \ 두째 후은 지에서 키가 크스 서를 따라. 느래

선도는 안사님인 하는 것이 아니다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들 따라 문서를 정합니다. 아빠〉엄마〉첫째〉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묵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2021 December

12

기쁨의 <mark>언덕으로</mark>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달의주요일정

SUNDAY	MONDAY		TUESDAY	
5	6	누가복음 Luke 6장 □	7	누가복음 Luke 7장 □
12	13	누가복음 Luke 12장 □	14	누가복음 Luke 13장 □
19	20	누가복음 Luke 18장 □	21	누가복음 Luke 19장 □
26	27	누가복음 Luke 20장 □	28	누가복음 Luke 21장 □

WED	NESDAY	THU	RSDAY	F	RIDAY	SAT	URDAY
1	누가복음 Luke 3장 □	2	누가복음 Luke 4:1-13 □	3	누가복음 Luke 4:14-44 □	6	누가복음 Luke 5장 □
8	누가복음 Luke 8장 □	9	누가복음 Luke 9장 □	10	누가복음 Luke 10장 □	13	누가복음 Luke 11장 □
15	누가복음 Luke 14장 □	16	누가복음 Luke 15장 □	17	누가복음 Luke 16장 □	20	누가복음 Luke 17장 □
22	누가복음 Luke 1:1-38 □	23	누가복음 Luke 1:39-80 🏻	24	누가복음 Luke 2:1-21 □	27	누기복음 Luke 2:22-52 🗆
29	누가복음 Luke 22장 □	30	누가복음 Luke 23장 □	31	누가복음 Luke 24장 □		
				S M T 1 2 7 8 9 14 15 16	W T F S 3 4 5 6 10 11 12 13 17 18 19 20 24 25 26 27	S M T 2 3 4 9 10 11 16 17 18	anuary W T F S 1 5 6 7 8 12 13 14 15 19 20 21 22 26 27 28 29

이야기로 알아보는 성경

누가복음

당신을위한좋은소식은?

누가복음은 신약에 기록된 4개 복음서들 중 가난한 자, 이방인, 세리, 여성 등 종교, 사회적으로 소외 당했던 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으로 불립니다. 또한 예수의 행적을 연대기적으로 기술해 역사적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다양하고 수려한 헬라어로 기록돼 문학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누가복음이 예수의 역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나 저자의 문학적 재능을 보여주기 위해쓰인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2세기 후반부터 전통적으로 바울의 동료였던 의원누가 가 사도행전을 쓰기 직전인 A.D. 60-62년경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오빌로로 대표되는 이방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됐다고 밝히고 있는 누가복음의 어느 곳에도 저자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익명의 이방인 저자가 예루살렘 멸망 이후인 80년대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한권의 책인가?

누가복음은 원래사도행전과같이 쓰인, 2부작으로 된 연작집의 첫 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증거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두에 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데오빌로에 대한 헌정사"입니다(눅 1:1-4, 행 1:1-5).

비록 두 권의 책이 함께 이어진 사본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두 책이 본래 한 권으로 쓰였다는 사실은 초대 교부들도 인정했던 사실입니다.

누가-행전으로 존재했던 한 권의 책이 두 권으로 분리된 이유는 내용상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 어울리는 반면 사도행전은 바울의 서신서들이 다루는 내용의 입문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출생-사역-최후로 이어지는 예수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반면 사도행전은 예수의 부활 이후 초대교회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선교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서보다로마서로 시작되는 바울의 서신들과 관련이 있는 사도행전이 별도의 책으로 분리된 것입니다. 24장으로 이뤄진 누가복음과 28장으로 이뤄진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으로 묶였을 경우 총 52장으로 신약성경의 1/4을 차지할 만큼 방대한 양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전진하는 복음의 운동성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속해서 읽다 보면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전향적 운동성"을 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부단히 움직이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부활 이후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운동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를 향하여 부단히 전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는 이 두 권의책안에서 복음의 운동, 복음의 진행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는 누가복음의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적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었습니다 (4:43). 그 내용은 구약 성서에서 예언된 그 구원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은혜의 다스림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증언 내용이었습니다. 이 증언의 대상은 이사야의 예언에 나와 있듯이 가난한 자, 포로 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입니다.

누가가관심을 가진 사람은?

죄인에게 복음을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보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 중에 세리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여인들도 자주 등장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아무런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과부에 대한 관심도 역시 두드러집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있던 사마리아인들도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관심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됩니다. 물론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들이 전혀 예수의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선적으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 죄책감에 짓눌린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왜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는가?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지만, 스스로 의인이라는 허위의식 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한에서만 복음이 될수 있고 은혜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의 증언의 목적은 죄인을 찾아 구원과 은혜와 용서를 선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한삶의비밀?

성령과기도

누가복음이 관심 갖고 있는 예수님의 온전한 삶의 비밀은 "성령"과 "기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었고(1:35), 성령의 세례(3:22)를 기점으로 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의 광야 시험을 인도하였고(4:1), 예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증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4:14). 권세 있는 사역의 원천도, 지혜 있는 가르침의 원천도 모두 성령이었음을 누가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성공적인 증언활동을 할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21; 5:16; 6:12; 9:18, 28-29, 10:21; 11:1; 22:32, 41-45; 23:34, 46). 모두 중요한 수가들 입니다.

그렇기에 누가복음에서 교회, 즉 예수님의 공동체는 당연히 "증인공동체" 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때, 예수의 증인 공동체는 땅끝까지 찾아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문헌

해설성경(대한기독교서회)

Luke Johnson, The Writings of the New Testament(Fortress Press)

신양공동체를 위한 신약성서 이해(성서연구사)

뉴 인터프리터 스터디 바이블(Abingdon Press)

December 수 Wed

주의 길을 예비하라

Prepare the way of the LORD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3장



새516장(통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누가복음 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 의 출현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실 새로운 시대를 알 리고 있는데, 본문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1) 세례 요한의 출현(1-6절); (2) 세례 요한의 사역(7-20절); (3) 예 수 그리스도의 세례(21-22절); (4)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23-38절).

누가복음 3:1-6

- 1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 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 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 2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 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 하지라
- 3 요한이 요단 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 4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 5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 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 이요
- 6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 으니라

Reading insight

Luke 3 introduces John the Baptist as the prophet ahead of Jesus Christ and the new era led by Jesus Christ. This chapter consists of four sections: (1) the appearance of John the Baptist (3:1–6); (2) the ministry of John the Baptist (3:7–20); (3) the baptism of Jesus Christ (3:21–22); and (4) the lineage of Jesus Christ (3:23–38).

Luke 3:1-6

- In the fifteenth year of the reign of Tiberius Caesar, Pontius Pilate being governor of Judea, and Herod being tetrarch of Galilee, and his brother Philip tetrarch of the region of Ituraea and Trachonitis, and Lysanias tetrarch of Abilene,
- ² during the high priesthood of Annas and Caiaphas, the word of God came to John the son of Zechariah in the wilderness.
- 3 And he went into all the region around the Jordan, proclaiming a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
- 4 As it is written in the book of the words of Isaiah the prophet,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the way of the Lord, make his paths straight.
- ⁵ Every valley shall be filled, and every mountain and hill shall be made low, and the crooked shall become straight, and the rough places shall become level ways,
- 6 and all flesh shall see the salvation of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로마의 디베료 황제가 통치할 때, 유대의 총독과 갈릴리의 분봉왕 으로 재직했던 자들은 각각 누구 입니까? (1절)

During the reign of Roman emperor Tiberius, who was the governor of Judah and the tetrarch of Galilee? (3:1)

누가복음서 기자는 요한이 전파한 세례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

How did the author of the Book of Luke describe the baptism that John had ministered? (3: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 최기환(IL)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정일(IL)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mark>새시대, 새 마음</mark> New Era. New Heart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의 출현과 사역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 길이 예비되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을 보았습니다(사 40:3-5). 이것은 정말 천지가 개벽할 사건으로써, 세례 요한은 유대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사건과 맞닥뜨릴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 가실 새로운 시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 사건의 주역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새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새 시대에 합당한 새 마음을 갖는 일인데, 그 것은 다름 아닌, 새로운 삶을 위한 결단으로써, 우선 자신이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설파한 대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환대를 베풀며, 거짓을 멈추는 것입니다(숙 3:11-14).

Prophet Isaiah prophesied a long time ago about the appearance and the ministry of John the Baptist and called it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Isaiah saw such a way prepared for the LORD as each valley was filled in, every mountain and hill made low, the crooked roads became straight, and the rough ways smooth (Isa 40:3-5). This event was as if the sky opened and the ground was torn apart. John the Baptist proclaimed to the people of Judah to be prepared thoroughly to experience this enormous event which was directly related to the new era being opened by Jesus Christ. In order to receive a new era, more than anything, we need to have a new mind. Of course, the protagonist of the event was not John the Baptist but Jesus Christ. In other words, only Jesus Christ could open a new era. Then what we need to do is to have a new mind fit for a new era, that is, to have resolve for a new life. As a first step, we not only need to thoroughly repent our sins but also we need to produce good fruits of our repentance. As proclaimed by John the Baptist, we need to actively do good works, exercise hospitality, and stop lying (Luke 3:11-14).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도 first moment Pray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December 목 Thu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

Jesus tempted by the devil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4:1-13



새400장(통463장) 험한 시험 물 속에서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됨(Jesus' sonship) 에 대한 시험이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물 질적인 필요를 공급할 수 있었고, 왕 중의 왕으로서 모든 나라들 에 대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모든 위험을 충분히 물리치 고 방호할 힘이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능력은 오직 아 버지 하나님 한 분께 있음을 선언하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

누가복음 4:1-12

- 1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 오사 광야에서 사십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 2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 것 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하매 주리신지라
- 3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 4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 5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 6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 7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 8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 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 9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 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 어내리라
- 10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 11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 딪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 1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 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Reading insigh

Three temptations by the devil were to test Jesus' Sonship of God. As the Son of God, Jesus was able to supply all the material needs of the people, and as the king of the kings he could have exercised his power over all nations. He had enough power to protect himself by fending off all dangers. By proclaiming that those powers belong to only God, Jesus fended off the temptations of the devil.

Luke 4:1-12

- ¹ And Jesus, full of the Holy Spirit, returned from the Jordan and was led by the Spirit in the wilderness
- ² for forty days, being tempted by the devil. And he ate nothing during those days. And when they were ended, he was hungry.
- 3 The devil said to him, "If you are the Son of God, command this stone to become bread."
- ⁴ And Jesus answered him, "It is written,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 ⁵ And the devil took him up and showed him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in a moment of time,
- 6 and said to him, "To you I will give all this authority and their glory, for it has been delivered to me, and I give it to whom I will.
- 7 If you, then, will worship me, it will all be yours."
- 8 And Jesus answered him, "It is written, "'You shall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him only shall you serve.'"
- ⁹ And he took him to Jerusalem and set him on the pinnacle of the temple and said to him, "If you are the Son of God, throw yourself down from here,
- ¹⁰ for it is written, "'He will command his angels concerning you, to guard you,'
- 11 and "'On their hands they will bear you up, lest you strike your foot against a stone.'"
- 12 And Jesus answered him, "It is said, 'You shall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마귀가 40일간 금식한 예수님을 향해 첫 번째로 시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

What was the devil's first temptation of Jesus who had fasted for forty days in the desert? (4:3)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9-11절)

What was the devil's temptation of Jesus at the top of the temple in Jerusalem? (4:9-11)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비젼교회, 박관우(IL)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 김태준(IL)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차가 마귀 The Devil called "Cha Cha"

마귀의 시험(유혹, temptation)은 끈질긴 것이 그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도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시험했습니다. 그런 후, 완전히 물러간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13절). 이 구절은 마귀가 언제라도 다시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 사부자(四父子)가 신자들을 미혹할 방법을 토의했습니다. 큰아들 마귀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아버지 마귀는 "그것은 안 된다. 하나님이 계신데 없다고 하면 어떡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 마귀가 말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 마귀가 "그 것도 안 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데 어찌 아니라고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셋째 아들 마귀가 제안했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것을 천천히 믿겠다고 하도록 미혹합시다." 그랬더니 아버지 마귀와 나머지 두 형제 마귀가 다 찬성하며 그렇게 하기로 하고 세상에 공포했습니다. 마귀는 예수 믿는 일을 천천히 하라고 유혹하는 '차차 마귀'로 명명할 수 있습니다.

Perseverance is a characteristic of the devil's temptations. The devil who tested Jesus did not stop after the first temptation but tried a second and third time. Even then, the devil did not retreat completely. "When the devil had finished all this tempting, he left him until an opportune time" (4:13). This phrase reveals that the devil could reappear any time to test Jesus again.

One day, the father and three sons of the devil family discussed ways to tempt believers. The oldest devil son first suggested, "Let us claim that there is no God in the world." But the father devil challenged him by saying, "That will not work. How can we say that there is no God when there is God?" Then the second oldest devil son said, "Let us claim that Jesus is not the son of God." Then the father devil challenged again, "That will not work either. Jesus is clearly the son of God, how can we deny that?" At last, the third devil son suggested, "Let us claim that there is God and Jesus is the Son of God but let us tempt them to believe those truths slowly." Then the father devil and the other two devil sons agreed and declared it to the world. The devils can now be named "Slow-Slow-devil" because they tempt believers to believe Jesus slowl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E CONTROL OF THE CONT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December 금 Fri

예수님의 첫 설교

The first sermon of Jesus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4:14-44



새96장(통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본문은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행한 첫 번째 설교 와 그 설교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14-30절), 갈릴리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귀신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31-37절). 그리고 베드로 시몬의 장모의 열병과 더불어 온갖 병 자들을 고치신 이야기(38-41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 하나 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이 예수 님의 주요 사역이었다.

누가복음 4:16-24

- 16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 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 17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 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 19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 20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 21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 22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은 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 23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 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 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 24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 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Reading insight

Today's scripture consists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is about the first sermon of Jesus at the synagogue in Nazareth and the reaction of the people(4:30). The second part is about the story of a man possessed by a demon being healed when Jesus was preaching at the synagogue in Capernaum(4:31–37). The third part is about healing Simon Peter's mother-in-law's high fever and the sickness of many other people(4:38–41). Proclaiming the Word of God, teaching, and healing sick people were the primary ministries of Jesus.

Luke 4:16-24

- 16 And he came to Nazareth, where he had been brought up. And as was his custom, he went to the synagogue on the Sabbath day, and he stood up to read.
- 17 And the scroll of the prophet Isaiah was given to him. He unrolled the scroll and found the place where it was written,
- 18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oclaim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and recovering of sight to the blind, to set at liberty those who are oppressed,
- 19 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 20 And he rolled up the scroll and gave it back to the attendant and sat down. And the eyes of all in the synagogue were fixed on him.
- 21 And he began to say to them, "Today this Scripture has been fulfilled in your hearing."
- 22 And all spoke well of him and marveled at the gracious words that were coming from his mouth. And they said, "Is not this Joseph's son?"
- 23 And he said to them, "Doubtless you will quote to me this proverb, 'Physician, heal yourself.' What we have heard you did at Capernaum, do here in your hometown as well."
- 24 And he said, "Truly, I say to you, no prophet is acceptable in his hometow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 누구의 글이 기록된 성경을 찾아 읽으셨습니까? (17절)

When Jesus went to the synagogue in Nazareth, what part of the Bible did Jesus read? (4:17)

나사렛 회당에서 행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 니까? (23-24절)

What did Jesus say after he heard the reaction of the people who had heard his sermon at the synagogue in Nazareth? (4:23-24)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샘물연합감리교회, 박미숙(IL)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 조선형(IL)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예수님을 보는 눈

People's insight to recognize Jesus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난 후, 청중들은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기면 서도 다른 한편,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빈정거렸습니 다.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요셉의 아들로서 그저 자기들과 같이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들의 평소 생각을 드 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편견, 혹은 고정관념에 의해서 어떤 인 물이나 사건을 좀 더 깊이 있고 폭넓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요 셉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마을 사람들 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단지 유대민족만을 위해 오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구원은 어느한 지역이나 특정 인종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구원입니다.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잘못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쫓아내어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 밀쳐 떨어뜨리려고까지 했습니다.

Upon hearing Jesus' sermon, the audience was amazed at the gracious words but at the same time sarcastically commented. "Isn't this Joseph's son?" In other words, this comment reveals their prevailing thoughts refusing to treat Jesus as the Son of God but as Joseph's son, just a common man like themselves. People often fail to look at certain people or events with a deeper and wider sense of understanding because of their prejudices or stereotypes. Jesus was the Son of God before he was the son of Joseph. Jesus did not come just for the people of Nazareth. Jesus did not come just for the people of Judah either. Jesus came for all the people of the world. The salvation brought by Jesus was not limited to just a certain region or a certain race. The salvation was universal and ordinary. The people of Nazareth misunderstood Jesus and, as a result, they did not rightly believe Jesus. They ended up driving him out of town and took him to the brow of the hill to throw him down the cliff.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영기품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December 토 Sat

죄인의 구워자. 예수 그리스도

The Redeemer of sinners. Jesus Christ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5장



새274장(통332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이야기(1-11 절),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12-26절), 그리고 세리 레위(마태로 알려진)를 부르신 이야기와 더불어 혼인 집 손 님들과 새 포도주에 관한 비유의 말씀(33-39절)이 나오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새로운 세계를 열어 놓으시고, 그 세계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고 세우 셨다.

누가복음 5:27-32

- 27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 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 28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 29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 30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 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 고마시느냐
- 3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 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 32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 개시키러 왔노라

Reading insight

Luke 5 recorded the stories of Jesus first calling the disciples(5:1–11), Jesus healing the leper and paralytic(5:12–26), Jesus calling the tax collector Levi(aka Matthew), and the wedding guests and the parable of new wine(5:33–39). As Jesus opened the new world leading to the Kingdom of God, he called and made disciples to invite them to the new world.

Luke 5:27-32

- 27 After this he went out and saw a tax collector named Levi, sitting at the tax booth. And he said to him, "Follow me."
- 28 And leaving everything, he rose and followed him.
- 29 And Levi made him a great feast in his house, and there was a large company of tax collectors and others reclining at table with them.
- 30 And the Pharisees and their scribes grumbled at his disciples, saying, "Why do you eat and drink with tax collectors and sinners?"
- 31 And Jesus answered them, "Those who are well have no need of a physician, but those who are sick.
- 32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o repentanc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8절)

When Jesus said "Follow me" to Levi who was sitting at the tax booth, what was Levi's reaction? (5:28)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의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어찌 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 시느냐"고 비방하자 예수님이 그 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1–32절)

When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complained to the disciples, "Why do you eat and drink with tax collectors and sinners?" what was Jesus' response? (5:31–32)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김광태(L) 올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이동근(L)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교회, 의인들의 집합소?

Church, is it the assembly of the righteous?

예수님 당시에 이른 바, 자기-의에 몰입되어 '경건병'에 걸린 바리새인들은 세리들과 창기들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그들 모두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죄인(병자)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에게는 구원자(의사)가 절실하다 판단하고 자신이 바로 죄인의 구원자로 세상에 왔다고 천명하셨습니다: "내가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32절).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는 과연 의인들만 모인 곳일까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속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불신자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자기-의'에 함몰될 위험성입니다. 대표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계 3:17). 그리스도인들 모두 여전히 죄인입니다. 전혀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At the time of Jesus, the Pharisees of "bogus godliness" labeled the tax collectors and the prostitutes as "sinners" and treated them as if they had nothing to do with salvation. But Jesus believed that because they were sinners (the sick), they badly needed the redeemer (the doctor) and proclaimed that he himself came to this world as the redeemer of the sinners.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o repentance." (5:32) But then, is the present day church a place of an assembly of the righteous only? Of course, the followers of Jesus are forgiven of their sins and are the people of righteousness by the grace of God.

From that point of view, a church may be called an assembly of the righteous. However there is a trap to this statement. That is, there is a hidden danger to fall into "self-claimed righteousness" where—as treating outsiders (non-believers) as sinners. For example, the church in Laodicea had fallen into this type of trap. "You say, 'I am rich; I have acquired wealth and do not need a thing.' But you do not realize that you are wretched, pitiful, poor, blind, and naked." (Rev 3:17) All Christians are still sinners. Christians are not righteous without the need for repentance but are sinners who are forgiven of sins by the grace of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mark>Outline</mark>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ark>My Prayers</mark>
교회의 기도제목 <mark>Prayers of My Church</mark>
한주간의 일정 This Week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하늘

송종남목사(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

매년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교회력에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달력인데, 교회력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부터 시작됩니다.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등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대강절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은 참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소풍가는 날을 기다리고, 운동회 날을 기다리고 명절날을 기다리던 생각이 납니다.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가슴이 뛰고 기뻤던지요. 하나의 기다림이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림의 연속에서 우리는 자랐고, 어른이 되었고, 나이를 먹어갑니다.

기다림은 곧 기쁨이고 소망인데 기다림이 없는 삶이란 얼마나 슬프고 삭막한지요.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꾸고, 조금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면 크리스마스라는 말조차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조차 안 하면서 온통 분주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주인은 쏙 빼놓고 선물을 주고받고, 파티를 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12월은 그렇게 하는 시간이라고 온통 야단들입니다. 말 안 해도 다 아는, 가까운 곳에 있는 유명한 Garden에는 추수감사절 주간부터 거의 한 달 반 동안 온갖 호화찬란한 전등으로 장식을 해 놓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그것을 보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분명히 그것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만든 장식들인데 어디에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조차 없고, 그냥 전등으로 불꽃놀이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즐기게 하는 것이 늘 안타 깝기만 합니다.

어디 그 Garden뿐이겠나 싶습니다. 요즘 사회 풍조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해서 5개의 대강절 초를 밝히면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5개의 초는 희망, 평화, 기쁨, 사랑,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모두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둘러보면 지난 한 해, 참 어수선하고 복잡했고 어두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일들도 많습니다.

대강절초를 밝히며 우리를 위해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 우리의 슬픔과 아픔,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담아서 불을 밝힙니다. 우리의 소원이 꼭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불을 밝힙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언제나 동행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을 다시 확인하는, 기쁘고 복된 대강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December 월 Mon

열 두 제자를 택하심

The Twelve Disciples were chosen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6장



(복음성가) 나는 비록 약하나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 해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라고 천명하셨고(1-5 절), 또 다른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다(6-11절). 그 후,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밤새 기도하신 후, 열두 제자를 택하셨고(12-19절), 평지에서 여러 교훈들을 들 려주셨다(20-49절)

누가복음 6:12-19

- 12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 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 13 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둘을 택 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 14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 15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는시몬과
- 16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 다라
- 17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 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 18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 19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 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Reading insigh

On the Sabbath, to the Pharisees who were judging the disciples of Jesus picking the heads of grain and eating, Jesus declared, "The Son of Man is Lord of the Sabbath." (6:1–5). On another Sabbath, to the Pharisees who judged Jesus healing a man with shriveled right hand, Jesus declared, "It is lawful to do good on the Sabbath." (6:6–11) After that, Jesus went to the mountain and prayed all night, picked twelve disciples (6:12–19) and continued his many teachings in the towns (6:20–49).

Luke 6:12-19

- 12 In these days he went out to the mountain to pray, and all night he continued in prayer to God.
- 13 And when day came, he called his disciples and chose from them twelve, whom he named apostles:
- 14 Simon, whom he named Peter, and Andrew his brother, and James and John, and Philip, and Bartholomew,
- 15 and Matthew, and Thomas, and James the son of Alphaeus, and Simon who was called the Zealot.
- 16 and Judas the son of James, and Judas Iscariot, who became a traitor.
- 17 And he came down with them and stood on a level place, with a great crowd of his disciples and a great multitude of people from all Judea and Jerusalem and the seacoast of Tyre and Sidon,
- 18 who came to hear him and to be healed of their diseases. And those who were troubled with unclean spirits were cured.
- 19 And all the crowd sought to touch him, for power came out from him and healed them all.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은 열 두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12절) What did Jesus do before he picked twelve disciples? (6:12)

예수님의 열 두 제자 중, 예수를 파는 자가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16절)

Among the twelve disciples of Jesus, who would later sell Jesus? (6:16)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중앙연합감리교회, 홍진호(IL) 하이드팍한인교회, 이우민(IL)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인간의 평범함, 하나님의 비범함

Ordinary Man, Extraordinary God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모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 보, 요한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레위(마태)는 주변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인 세리였으며 빌립, 바돌로매, 도마,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에 대해서는 특출나게 알려진 사실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가룟 유다는 탐욕에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 대신 맛디아가 사도의 반열에 세워집니다. 행 1:26). 이들 중 어느 누구도 당시 지도자들이라 불린 그룹(서기관, 제사장, 장로 등)에 속한 자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unschooled, ordinary men)으로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비범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범함'(ordinariness)은 하나님의 '비범함'(extraordinariness)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의 부르심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능력과 영광과 축복의 부르 심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아무것도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 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내어 맡기고 그 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All twelve disciples of Jesus were ordinary people. Peter, Andrew, James, and John were all fishermen in Galilee. Levi (Matthew) was a tax collector and the target of people's hatred. But nothing in particular is known about Philip, Bartholomew, Thomas, James the son of Alphaeus, Simon the zealot, and Judas the son of James. Unfortunately Judas Iscariot became blind out of greed and betrayed Jesus (Later Judas Iscariot committed suicide and was replaced by Matthias as the twelfth disciple. Acts 1:26) None among the twelve was a so-called leader (teachers, priests, elders, etc.). Acts 4:13 states, "When they saw the courage of Peter and John and realized that they were unschooled, ordinary men, they were astonished and they took note."

But God accomplished astonishing things through these disciples. God always calls ordinary people and accomplishes extraordinary things. That is because our "ordinariness" is good enough as a tunnel to reveal the "extraordinariness" of God. Therefore God's calling is never empty. Rather it is a calling of power, glory, and blessing. In receipt of that calling, there is no excuse. Those called by God should release all their weaknesses to the able hands of God and only obe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December 화 Tue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God of Life. Jesus Christ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7장



새380장(통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로마 군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고 (1-10절), 그 후 나인 성에서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다. (11-17절). 이 소문을 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 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셨고 (18-23절)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설명하며 장터 의 아이들 비유를 말씀하셨다(24-35절). 그 후 예수님이 한 바 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 를 부었는데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함께 식사하던 바리새인에게 빚을 탕감 받은 두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다(36-50절).

누가복음 7:11-17

- 11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 12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 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 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 13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 14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 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 15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 16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 17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 지니라

Reading insight

Jesus healed the servant of a Centurion of the Roman army in Capernaum (7:1–10), then He raised the dead son of a widow in Nain (7:11–17). Upon hearing this message, when John the Baptist sent a message asking if Jesus was the Messiah they were waiting for, Jesus declared that He was the Messiah (7:18–23). As Jesus explained about the ministry of John the Baptist, he told the parable of children in the marketplace (7:24–35). Then as one of the Pharisees invited Jesus to have dinner with him, a woman came to Jesus and poured perfume on his feet. Jesus praised her faith, and told the Pharisee who had dinner with him the parable of the cancellation of debts for two people (7:36–50).

Luke 7:11-17

- 11 Soon afterward he went to a town called Nain, and his disciples and a great crowd went with him.
- 12 As he drew near to the gate of the town, behold, a man who had died was being carried out, the only son of his mother, and she was a widow, and a considerable crowd from the town was with her.
- 13 And when the Lord saw her, he had compassion on her and said to her, "Do not weep."
- 14 Then he came up and touched the bier, and the bearers stood still. And he said, "Young man, I say to you, arise."
- 15 And the dead man sat up and began to speak, and Jesusgave him to his mother.
- 16 Fear seized them all, and they glorified God, saying, "A great prophet has arisen among us!" and "God has visited his people!"
- 17 And this report about him spread through the whole of Judea and all the surrounding country.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이 나인 성의 아들을 장사 지내는 과부를 보시고 처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3절) What did Jesus first say when he saw the widow who was going to bury her dead son in Nain? (7:13)

나인 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을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하 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엇이라 외쳤습니까? (16절)

When the dead son of the widow in Nain was raised by Jesus, what did the people who witnessed the event exclaim upon proclaiming glory be to God? (7:16)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블루밍톤한인교회, 안성용(IN) 인디아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 이기채(IN)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두 가지 행렬, 그리고

Two processions, and then

예수님은 나인 성으로 들어가는 성문 가까이에서 장례식 행렬과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한 과부의 외아들의 장례식 행렬이 었습니다. 유일한 의지인 독자를 먼저 떠나보낸 홀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울지 말라"라고 하시며 주검이 있는 관에 손을 대시자 장례식 행렬은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행렬이 마주친 것을 봅니다. 하나는 죽음과 절망의 행렬이며, 다른 하나는 생명과 소망의 행렬입니다.

관 속에 있는 자는 죽음에 의해 망한 자이나, 그 관에 손을 댄 자는 죽음을 멸망시킨 자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행렬이 또 하나의 새로운 행렬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그들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선지자가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환호하는 승리의 축하 행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새 역사로써 죽음과 절망은 성 밖으로 나가버렸고, 생명과 소망이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죄의 삯인 사망은 더 이상 그 효력을 잃어버렸고, 죄의 구속으로 인한 영생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Near the gate of the town Nain, Jesus encountered a funeral procession. Sadly it was the funeral procession for the widow's son. We can imagine how sad she was as her only son left her. Knowing her sorrow, Jesus said, "Don't cry," and touched the coffin, the whole procession stopped. As Jesus said, "Young man, I say to you, get up!" the dead man sat up and began to talk. Here we see two crowds facing each other. One was death and despair and the other was life and hope.

The one in the coffin was dead one but the one who touched the coffin defeated death. Those two processions created a bigger crowd and became a crowd celebrating the victory and exclaiming, "A big Prophet arose among us! Our LORD took care of His people!" As a new history of the life of Jesus Christ began, death and despair were kicked out of the town, and life and hope were invited into the town. Death as the price of sin no longer had any power, but eternal life as capitulation of sins was given as a gift to all believer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December 수 Wed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궈위

The Son of God. the Authority of Jesus Christ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8장



새474장 의원되신 예수님의 통529장 큰 무리 주를 에워싼 중에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 그리고 치유의 이적 이 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히 이적 이야기들은 도래하는 하나 님의 나라의 선포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 신 그 권위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분의 권위는 자연에 대해서 (22-25절), 악한 영들의 세력들에 대해서 (26-39절), 질병에 대 해서(40-48절),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49-56) 강력하게 행사되 었다.

누가복음 8:40-48

- 40 예수께서 돌아오시매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 다렸음이러라
- 41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가구하니
- 42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 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 43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 44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 이 즉시 그쳤더라
- 45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 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 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앎이로다 하신대
- 47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 대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 에서 말하니
- 48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 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Reading insigh

Luke 8 consists of the teachings and sermons of Jesus Christ and the stories of healings and miracles. The stories of the miracles are especially focused on the coming proclaimer of the kingdom of God and the authority of the Son of God, Jesus Christ. His authority was exercised strongly on nature (8:22–25), on the powers of evil spirit (8:26–39), on diseases (8:40–48), and on death (8:49–56).

Luke 8:40-48

- ⁴⁰ Now when Jesus returned, the crowd welcomed him, for they were all waiting for him.
- 41 And there came a man named Jairus, who was a ruler of the synagogue. And falling at Jesus' feet, he implored him to come to his house,
- 42 for he had an only daughter, about twelve years of age, and she was dying. As Jesus went, the people pressed around him.
- 43 And there was a woman who had had a discharge of blood for twelve years, and though she had spent all her living on physicians, she could not be healed by anyone.
- 44 She came up behind him and touched the fringe of his garment, and immediately her discharge of blood ceased.
- 45 And Jesus said, "Who was it that touched me?" When all denied it, Peter said, "Master, the crowds surround you and are pressing in on you!"
- 46 But Jesus said, "Someone touched me, for I perceive that power has gone out from me."
- 47 And when the woman saw that she was not hidden, she came trembling, and falling down before him declared in the presence of all the people why she had touched him, and how she had been immediately healed.
- 48 And he said to her, "Daughter,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go in peac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무엇을 행함으로써 병고침을 받았습 니까? (44절)

What had the woman subject to bleeding for twelve years done to be healed? (8:44)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48절) When the woman subject to bleeding for twelve years told the people that she was healed, what did Jesus tell her? (8:48)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퍼듀제자교회, 이종민(IN)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 임일호(KS)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하나님의 터치다운

The Touchdown of God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허사였습니다. 예수님이 각색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이 여인은 무리들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옷 가에 손을 대었는데, 그 즉시 혈루증이 멈추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옷 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의 병이 고침 받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미식축구인 풋볼(football) 경기의 묘미는 뭐니 뭐니해도 '터치다운'(touchdown)에 있습니다. 누군가 철벽같은 수비수들을 뚫고 질주해서 '엔드 존'(end zone)에 터치다운하는 그 순간의 짜릿함에 관중들은 열광합니다.

12년 혈루증을 고침 받은 여인도 온갖 장애물들을 뚫고 들어가 기어코 예수님께 터치다운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어루 만지기(touch) 위해 오셨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성육신'(incarnation)은 하나님의 터치다운(God's touchdown)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을 터치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The woman subject to bleeding for twelve years mobilized all ways and means to treat the illness but to no avail. Having heard that Jesus had healed various illnesses, this woman walked through the crowd, came up behind Jesus, touched the edge of his cloak and immediately her bleeding stopped. She was sure that her illness would be healed if she could just touch the edge of his cloak. In American football, the most exciting moment is the "touchdown." The crowds ecstatically erupt at the moment when the player runs through powerful defenses and reaches the end zone with the football scoring a touchdown.

The woman subject to twelve years of bleeding ran through all kinds of obstacles and touched down in the end zone where Jesus was. In fact Jesus came to this world from heaven to 'touch" us. Strictly speaking, the "incarnation" was "God's touchdown." God wanted to be like us and he came to this world like us in flesh. We must therefore come nearer to Jesus and touch Jesus. As we reach out to Jesus and touch Him with faith, amazing things will happen to 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December 목 Thu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The way to follow Jesus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9장



새324장(통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누가복음 9장은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냄 받은 열 두 제자와 헤롯의 질문(1-9절); 오천 명을 먹이신 급식 이적(10-17절); 예수님은 누구 인가에 대한 질문(18-27절); 변화산 사건 (28-36절);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심(37-45절); 제자들 사이에 벌어진 언쟁(46-50절); 예루살렘에로의 여정의 시작(51-56절);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세 사람(57-62절).

누가복음 9:57-62

- 57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 지 나는 따르리이다
- 58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 59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 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 소서
- 60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 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 61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 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 62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 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 니라

Reading insigh

Luke 9 consists of the following content: the twelve disciples being sent and Herod's questions (9:1–9); the miracle of feeding the crowd of five thousand (9:10–17); the question of who Jesus is (9:18–27);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9:28–36); healing a boy with demons (9:37–45); the argument among the disciples (9:46–50); the beginning of the journey to Jerusalem (9:51–56), and three men who want to follow Jesus (9:57–62).

Luke 9:57-62

- 57 As they were going along the road, someone said to him,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 58 And Jesus said to him, "Foxes have holes, and birds of the air have nests, but the Son of Man has nowhere to lay his head."
- 59 To another he said, "Follow me." But he said, "Lord, let me first go and bury my father."
- 60 And Jesus said to him, "Leave the dead to bury their own dead. But as for you, go and proclaim the kingdom of God."
- 61 Yet another said, "I will follow you, Lord, but let me first say farewell to those at my home."
- 62 Jesus said to him, "No one who puts his hand to the plow and looks back is fit for the kingdom of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말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58절)

What did Jesus tell the man on the road who said,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9:58)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62절)

What did Jesus tell the man who said, "I will follow you, Lord; but first let me go back and say good-bye to my family"? (9:6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mbes & Pastors

정션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 문주현(KS)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 김다위(KS)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예수 믿으미와 예수 따르미

Those believing Jesus and those following Jesus

본문에는 세 번 연속으로(57절, 59절, 61절) '예수 따름'의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서 본문의 요점은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이한 마디 명령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즉, "나를 따르라"는 명령 속에서, '나를'에 강조점을 두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행위, 곧 믿으미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이 명령 속에서, '나를'에가 아니라 '따르라'에 강조점을 둔다면,예수님을 따르는 행위, 곧 따르미가 되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따르라"라는 이한마디 명령 속에 '인격'(person)이 있고, 동시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필연적으로 가야할 '행로'(path)가 있습니다. 달콤한 평안이 있고, 동시에 쓰라린 고통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고, 동시에 수치가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진리를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동시에 그 영원한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완벽하게 결정된 현장,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한완상 교수님이 쓴 "예수 없는 예수 교회"에서, 저자는 오늘의 한국 교회에는 "믿습니다"를 외치는 예수 신자, 곧 '예수 믿으미'는 많아졌지만, 예수님을 올곧게 따르는 예수 제자, 곧 '예수 따르미'는 적어졌다고 지적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은 예수 믿으미인 우리 모두 예수 따르미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복된 기회입니다.

In today's scripture, Jesus repeats the phrase "follow me" three times in verses 57, 59 and 61. Therefore, the essence of today's scripture is the command of the Lord, "Follow me." But this one command tells us the difference between believing Jesus and following Jesus. In other words, from the command of "follow me," if we place an emphasis on "me," it means to believe Jesus as our Savior, that is, "the believer." But if we place an emphasis on "follow," it means to become "the follower." Within the command of "follow me," there are the traits of the follower and at the same time there is the path that all disciples of Jesus must follow. There is sweet comfort and at the same time there is bitter pain. There is glory and at the same time there is shame.

There is Jesus Christ who revealed the truth of eternal salvation. At the same time, there is Jerusalem, the very place where the suffering and death on the cross of Jesus who himself was the truth of eternal salvation was completely realized. In the book Jesus Church without Jesus by Prof. WanSang Han, the author points out that there are so many Korean churches where we hear the cries of "we believe" but the number of "Jesus followers," the true disciples of Jesus, is diminishing. This Advent season waiting for the birth of Jesus is a good opportunity to renew our faith to convert from believers to followers of Jes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처기도 first mamont Dray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December 금 Fri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The master of my life, Jesus Christ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10장



새95장(통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예수님은 70명을 전도자로 세워 파송하셨다(1-16절). 그 후 그 들이 돌아와 기쁨으로 예수님께 보고했을 때(17-20절), 예수님 도 기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이 받은 복을 말씀하셨다(21-24절). 그런 후,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교 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주셨고(25-37절), 계속 예 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던 중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다 (38-42절).

누가복음 10:38-42

- 38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 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 하더라
- 39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 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 40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 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 41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 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 42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 리라 하시니라

Reading insight

Jesus picked 70 and sent them out as evangelists (10:1–16). When they came back and reported with joy to Jesus (10:17–20), Jesus was also joyful and prayed to God and talked about the blessings the disciples received (10:21–24). Then He told the parable of the Samaritan man to the teacher of the law who tried to test Jesus, and as he continued to walk toward Jerusalem, he visited the house of Martha (10:38–42).

Luke 10:38-42

- 38 Now as they went on their way, Jesus entered a village. And a woman named Martha welcomed him into her house.
- ³⁹ And she had a sister called Mary, who sat at the Lord's feet and listened to his teaching.
- 40 But Martha was distracted with much serving. And she went up to him and said, "Lord, do you not care that my sister has left me to serve alone? Tell her then to help me."
- 41 But the Lord answered her, "Martha, Martha, you are anxious and troubled about many things,
- 42 but one thing is necessary. Mary has chosen the good portion, which will not be taken away from he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 있을 때, 동생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39절) As Martha was busy preparing to treat Jesus, what was Martha's younger sister Mary doing? (10:39)

예수님께 불평을 늘어 놓는 마르 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 하셨습니까? (41-42절)

As Martha complained to Jesus about Mary, what did Jesus tell Martha? (10:41-42)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 정룡재(KS)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김상순(KY)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오직 예수! Only Jesus!

예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천 갈래, 만 갈래로 갈라지는 것보다 오직 한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모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집중한다면, 예수님께로부터 "너희가 참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칭찬받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술가들에게 예수님은 전적으로 사랑스러운 대상이요, 건축가들에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며, 의사들에게 예수님은 위대한 치료자이며, 설교가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철학가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지질학자들에게 예수님은 만세반석이며, 농부들에게 예수님은 추수의 주님이며, 탕자들에게 예수님은 용서하는 아버지이며, 잃은 양들에게 예수님은 선한목자이며, 주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며, 목마른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며,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 한 분만을 택하여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이것저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만입니다. 우리가집중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님뿐입니다!

Jesus does not appreciate us busying ourselves with many different things. Jesus likes a simple life. Rather than distracting our minds with thousands or tens of thousands different things, Jesus likes our living focused on only one thing, that is, longing only for Jesus. If we focused our minds only on Jesus like Mary, Jesus would praise us, "You have chosen to be on the good side."

Somebody described Jesus in this way. "To artists, Jesus is totally an object to love, to the architects, Jesus is a cornerstone, to the medical doctors, Jesus is the greatest healer, to the preachers, Jesus is the Word of God, to the philosophers, Jesus is the wisdom of God, to the geologists, Jesus is the solid rock, to the farmers, Jesus is the master of the harvest, to the prodigal people, Jesus is the father of forgiveness, to the lost lambs, Jesus is the good shepherd, to the hungry souls, Jesus is the cake of life, to the thirsty souls, Jesus is the spring water of life, to the people dying, Jesus is the resurrection and life." Jesus alone is the master of our lives.

Therefore people who have chosen one and only one Jesus are as good as those who own everything. Faith is not for this or that, but for only one thing. The object of our focus must be only one thing, that is, only Jes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도 first moment Pra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December 토 Sat

기도와 영적인 변혁

The Prayer and the Spiritual **Transformation**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11장



새364장(통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1-13절), 기도를 통해 얻는 좋은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이다(13절).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하신 후(13-28절). '인자'(人子. The Son of Man)가 보일 표 적은 요나의 표적임을 알리시며(29-32절), 몸의 등불인 눈에 대 해 가르치신 후(33-36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를 호되게 질책 하셨다(37-54절).

누가복음 11:5-13

- 5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 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꾸어 달라
- 6내 벗이 여행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 라하면
- 7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 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 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 8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 됨으로 인하여서 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 9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 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 10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 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 11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 12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 13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 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 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Reading insight

Jesus taught about prayer (11:1–13) and the good we gain through the prayer is the "Holy Spirit" (11:13). Luke 11 includes Jesus speaking about the history of the coming of the kingdom of God and how the devil will be thrown out by the hand of God (11:13–28), announcing that the son of man would be a sign as Jonah was a sign to his generation (11:29–32), teaching about eyes that are the lamplights of our body (11:33–36), and berating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11:37–54).

Luke 11:5-13

- ⁵ And he said to them, "Which of you who has a friend will go to him at midnight and say to him, 'Friend, lend me three loaves,
- 6 for a friend of mine has arrived on a journey, and I have nothing to set before him';
- 7 and he will answer from within, 'Do not bother me; the door is now shut, and my children are with me in bed. I cannot get up and give you anything'?
- 8 I tell you, though he will not get up and give him anything because he is his friend, yet because of his impudence he will rise and give him whatever he needs.
- ⁹ And I tell you,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it will be opened to you.
- 10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and the one who seeks finds, and to the one who knocks it will be opened.
- 11 What father among you, if his son asks for a fish, will instead of a fish give him a serpent;
- 12 or if he asks for an egg, will give him a scorpion?
- 13 If you then, who are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the heavenly Father give the Holy Spirit to those who ask hi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기도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밤중에 친구에게 가서 무슨 청을 했습니까? (5-6절).

In the parable for prayer, what did the person ask his friend in the middle of the night? (11:5–6)

다음 구절에서 ()에 들어갈 말을 적어 넣으십시오: "... 하물머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을 주시지 않겠느냐?" (13절)

Fill in the missing words. Wouldn't your heavenly Father give you () to those who seek it? (11:13)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 이동섭(LA) 리스빌연합감리교회, 조성우(L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당신의 체면 때문에

Because of saving face

본문 8절에 나오는 '간청함, 졸라대는 것'으로 번역된 희랍어 단어는 '아나이데이이'(anaideia)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무례함', '뻔뻔함', '몰염치'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개연성이 적은 '간청함'으로 풀이함으로써, 빵을 구하려간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졸라 대어 마침내 빵을 얻어낸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강청기도'로 얻는 응답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몰염치'라는 본래의 뜻으로 풀이한다면, 이 비유의 주인공은 친구의 간청을 받아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즉,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간청을 들어준 사람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단지 친구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만일 밤중에 찾아와 간청하는 친구를 매몰차게 빈손으로 돌려보낸다면, 동네 사람들에 의해 자신의 체면이 손상될 것이 우려되어 친구의 소원을 들어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강청함 때문이라기 보다는 본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아버지로서 당신의 '체면'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세상의 친구도 자신의 체면 때문에 친구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살아 계신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어찌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간절한 소원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체면 때문에라도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가 주는 진정한 기쁨은 반드시 기도 응답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좋아서 기도할 뿐입니다. 따라서 기도 응답보다 기도하는 일 그 자체가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In Luke 11:8, the word "boldness, importunity" is translated from the Greek word "anaideia". This word originally means "rudeness, effrontery, or impudence." Most people translate this word as "boldness" and interpret the story as having been able to finally secure the bread from his neighbor by not giving up and by asking persistently. Therefore, focus is placed on the answer to "persistent prayer." But if this word was translated as "effrontery" as originally meant, the protagonist of this parable would be the friend who accommodated this man's persistent request. In other words, the friend who accommodated the request of the man who visited the friend in the middle of the night should be given a heavier share of attention, even though he accommodated the request out of fear of shame or blame from neighbors. The accommodation was made not just because the man was his friend but because the friend was afraid of losing face to his neighbors if the persistent request of his friend in the middle of the night was heartlessly denied.

By the same token, our Lord listens to and answers our prayers out of "saving face" because our Father always faithfully keeps his promises to us and not necessarily because of our persistence. If the worldly friend had answered the wishes of his friend out of desire to save face, how would the living and good God who loves His children turn His face away from the desperate imploration of His children? For the sake of His saving face alone, God would give us something good. What's important is that the real joy of our prayers is not just in the answer to our prayers. We pray because we just love the intimate fellowship with God when we pray. Therefore, rather than the answer to our prayers, the prayer itself is the grace and the blessing.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무산 reading & O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12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 <mark>Title</mark>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주간의 일정 This Week

빈터, 그 가득한 공간

김정호 목사(후러싱제일교회)

곽노순 목사님이 쓰신 '그대 삶의 먼동이 트는 날'을 보면 편집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빈 공간들이 순서없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처음에는 종이를 낭비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빈 공간은 그냥 비어있지만 또 어떤 공간에는 한마디씩 적혀있습니다. "백지는 빈 칸이지"로 시작되면서 "백지는 비어 있는 것만은 아니지", "빈 칸은 그득하네"에서 "비어 있는 것은 넘쳐 흐르네"로 끝납니다. 저는 곽목사님이 사람의 실수로 만들어진 빈 칸에 그리 쓰시고는 그냥 하라고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빈 공간'이 많습니다. 마음과 생각도 비어지게 되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배 당도 사람들 먹고 사는 삶의 자리도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병실은 가 득차고 근심과 걱정은 차고 넘칩니다. 삶의 자원이 넉넉한 사람들은 비어있는 시공을 잘 활용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배고픔과 좌절로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란 비어있는 것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창조의 시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허무가 의미로, 혼돈이 조화로,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강절 아기 예수 오시는 이 계절, 만삭이 된 여인이 머리 둘곳 없을 정도로 여관이 꽉 채워져있으니 마굿간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 모두 자기 것으로 가득 차 하나님 들어 올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 방에 오래전 김지하 선생님이 주고 간 '빈터의 바람' 이란 글과 함께 난초가 그려

져 있는 액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면서 "목사님 계신 곳이 장일순 선생님이 계셨던 강원도 원주가 되기를 빕니다" 하셨습니다. 빈터의 바람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사태로 비어있는 우리네 삶의 시공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교회도 비어있는 것은 비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심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것으로 채워졌던 것비어져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곽목사님이 개척하신 샤론교회는 미국교회를 빌려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어컨이 없었는데 아무리 더운 날도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어디서인지 시원한 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목사님의 목회는 다른 것 안하시고 일주일 내내 하루 10시간씩 책만 읽으셨습니다. 심방 이야기하면 "이놈아, 내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교인들 다 살피고 있다. 사람의 몸이 분주하다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아니다"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생 목회한다고 여기저기 여러 캠퍼스 다니면 "너는 배운 것이 별로 없으면서 뭘 그리 많이 가르치러 하느냐?"하셨고, 제 열쇠 꾸러미를 보시고는 "깨달음을 얻을수록 열쇠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너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구나"하셨습니다. 어느날 교인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부르시더니 신문사에 광고를 내라 하십니다. 여쭈었더니 "더 이상 손님 받지 않는다고 광고를 내라"하셨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70명이 넘어가니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그런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큰 마음 먹고 질문 몇 가지 드렸는데 바로 다음 주일 하산 명령을 받았습니다. 쫒겨난 것입니다. 쫒겨난지 30년이 훨씬 넘었지만 그 어른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시절 지금도 가끔 돌이켜보면 내 인생 참으로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비어있는 현실을 뭔가로 채워보려고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강절을 지내면서 지금은 인간의 발버둥으로 애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들어오실수 있도록 빈 공간을 잘 정돈할 때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이 계절 빈 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가난한 심령에 예수님 오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December 월 Mon

주님의 경고의 말씀들

The Lord's Words of Warning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12장



새428장(통48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누가복음 12장은 주님의 여섯 가지 경고의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 다. (1) 바리새인들의 위선(1-3절); (2)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진정한 두려움(4-12절); (3) 물질적 탐욕 (13-21절); (4) 생활의 염려(22-34절); (5)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 하지 않는 부주의(35-53절); (6) 종말의 때를 미처 헤아리지 못 하는 영적인 둔감성(54-59절).

누가복음 12:13-21

- 13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 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 14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 15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 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 시고
- 16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 17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 18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 19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 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 20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 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 21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Reading insigh

Luke chapter 12 contains six different words of warning from the Lord. 1) Warning against the hypocrisy of the Pharisees (12: 1–3); 2) Warning against being afraid of earthly authorities rather than of God (12: 4–12); 3) Warning against the greed of wealth (12: 13–21); 4) Warning against the worries of life (12:22–34); 5) Warning against not being prepared for the Second Coming of the Lord (12: 35–53); 6) Warning against lacking spiritual discernment to interpret the times (12: 54–59)

Luke 12:13-21

- 13 Someone in the crowd said to him, "Teacher, tell my brother to divide the inheritance with me."
- 14 But he said to him, "Man, who made me a judge or arbitrator over you?"
- 15 And he said to them, "Take care, and be on your guard against all covetousness, for one's life does not consist in the abundance of his possessions."
- 16 And he told them a parable, saying, "The land of a rich man produced plentifully,
- 17 and he thought to himself, 'What shall I do, for I have nowhere to store my crops?'
- 18 And he said, 'I will do this: I will tear down my barns and build larger ones, and there I will store all my grain and my goods.
- 19 And I will say to my soul, Soul, you have ample goods laid up for many years; relax, eat, drink, be merry.'
- 20 But God said to him, 'Fool! This night your soul is required of you, and the things you have prepared, whose will they be?'
- 21 So is the one who lays up treasure for himself and is not rich toward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께 와서 형과 유산을 나누 게 해 달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14-15절).

What did Jesus say to the person who pleaded Jesus to tell his brother to divide the inheritance with him? (12:14–15)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를 가리켜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질책하셨 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절)

In the Parable of the Rich Fool, God rebuked the wealthy person. Why? (12: 20)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보스톤연합감리교회, 안신형(MA)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 최진용(MA)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내 영혼의 참 만족

The True Satisfaction of the Soul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 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19절). 영혼은 세상의 쾌락, 일락, 향락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 존재합니다. 물리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공간은 다름아닌, 영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혼의 만족은 결코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부요를 누리고 살면서도 도리어 영혼은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궁핍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영혼의 공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허무함과 외로움과 죄책감에 평생 시달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술과 마약과 도박과 섹스등 온갖 세속적인 향락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하지만, 이와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 일락, 향락은 영혼을 위하기는커녕 도리어 영혼을 파멸의 죽음으로 이끕니다(참고. 담전 5:6,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우리의 영혼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으며 살 때에참 만족을 누립니다.

The rich fool had a huge misunderstanding about his soul. "And I'll say to myself, "You have plenty of grain laid up for many years. Take life easy; eat, drink and be merry" (12:19).

God created our soul not for it to be merry in the pleasures of the world but to be in relationship with God and to glorify God who is the creator and master of our soul. The world renown physicist and mathematician Pascal said in his book Pensees, "There is a Godshaped vacuum in the heart of each man which cannot be satisfied by any created thing but only by God the Creator, made known through Jesus Christ." In other words, true satisfaction of the human soul does not come from the enjoyment of food and other pleasures of this world.

Despite enjoying great material abundance in the world today, many people still continue to live their lives without experiencing true satisfaction of the soul. Feeling unfulfilled in their souls, many people live their lives struggling with a sense of emptiness, loneliness and even guilt. Their attempts to fill the void inside with things and pleasures of the world only exacerbate their sense of nothingness and death (C.f. 1 Tim 5:6, "But the widow who lives for pleasure is dead even while she lives."). Our souls were made to find satisfaction only when we have a relationship with the Lord and live in the grace of the Lor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December 화 Tue

길이 참으시는 주님

The Long-Suffering Lord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13장



새279장(통337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예수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해 말씀 하시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다(1-5절). 이 회개의 주제가 무화 과나무 비유(6-9절)와 연결되어, 유대나라를 상징하는 무화과나 무의 결실을 소망하셨다. 그 후, 예수님은 안식일에 열여덟 해 동 안 귀신들려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치유하셨고(10-17절), 겨자 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 말씀하셨 다(11-21절). 예수님의 예루살렘에로의 여정은 계속되었다(22-35절).

누가복음 13:6-9

- 6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 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 나 얻지 못하지라
- 7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 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 8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 9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Reading insight

Jesus refers to the people who suffered and died in Galilee and Jerusalem and urges people to repent (13:1–5). This theme of repentance is echoed once again in the parable of a fig tree, in which Jesus warns the people of Israel of God's impending judgment as a fig tree that does not bear fruit will be cut off. After this, on Sabbath day, Jesus heals a woman who had been crippled by a spirit for 18 years (13:10–17), and teaches about the kingdom of God using the metaphor of a mustard seed and yeast (13: 11–21). Jesus continues his journey to Jerusalem (13:22–35).

Luke 13:6-9

- 6 And he told this parable: "A man had a fig tree planted in his vineyard, and he came seeking fruit on it and found none.
- ⁷ And he said to the vinedresser, 'Look, for three years now I have come seeking fruit on this fig tree, and I find none. Cut it down. Why should it use up the ground?'
- 8 And he answered him, 'Sir, let it alone this year also, until I dig around it and put on manure.
- 9 Then if it should bear fruit next year, well and good; but if not, you can cut it dow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본문에서 주인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지 못하자 포도원지 기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7절)

What did the man who owns a vineyard say to the man who takes care of the vineyard when he saw that the trees did not bear any fruit? (13:7)

주인의 말을 듣고 포도원지기는 그에게 무엇이라 응답했습니까? (8-9절)

What did the man who works at the vineyard say to the owner in response? (13:8-9)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비젼교회, 이충호(MA)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 조상연(M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아페스의 주님 Jesus of "A-pes"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서 유대인 무리들은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것은 "저 사람을 찍어버리라"는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찍어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파텔, 아페스 아우토이스) 하시면서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용서하다'는 뜻의 '아페스'라는 희랍어 단어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지기가 한 말, 곧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용절, 큐리에, 아페스 아우텐)라고 한 간청에서 '내버려두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닥친 그 무자비한 폭력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아페스 기도에 반격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화과나무에 도끼를 휘둘러 찍어버려야 할 폭력이 포도원지기의 "그대로 두소서"라는 아페스 간청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로 거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거름이 되셨습니다. 당신이 죽어 완전히 썩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In Luke chapter 23:34, Jesus offers a prayer of forgiveness by saying,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At the foot of the torturous cross, people shouted, "Crucify him!" Put differently, they were shouting "Cut him down!" However, Jesus prayed a prayer of forgiveness for the people who shouted Jesus to be cut down by saying, "Father, forgive them" (Pater, a-pes autois). The Greek word 'a-pes' which means "to forgive" in this prayer is also used in verse 8 of our text today when the worker in the vineyard says to the owner, "Sir, leave it alone for one more year" (Kurios, a-pes auten), to mean "leave it alone."

Jesus retaliated the violence of people with a prayer of 'a-pes' as he prayed, "Father, forgive them." Similarly, the violent act of cutting down of the fig tree with an ax was spared by worker's request of 'a-pes' when he pleaded, "Sir, leave it alone." It is important for us to note that, in order for us to bear fruit in our lives, Jesus sacrificed himself on the cross and died for us. By doing so, Jesus became the fertilizer by which we live a fruit-bearing life. Through his sacrifice, he made it possible for us to have the life of resurrection.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December 수 Wed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청

An Invitation to God's Salvation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14장



새518장(통252장) 기쁜 소리 들리니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서두(1-6절)의 안식일 논쟁에서 인간 구원(치유)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는 예수님의 한 마디 반문 앞에 적대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혼인 잔치의 비유(7-14절)에서 예수님은 겸손의 원 리를 가르치셨고. 또한 큰 잔치의 비유(15-24절)에서 당시 복음 의 초청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의 복을 대조 시키셨다. 결론 부 분(25-3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조건으로 자기부인 과 철저한 준비성이 강조되고 있다.

누가복음 14:15-24

- 15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 16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 을 청하였더니
- 17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 18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매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 19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 20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 21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 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 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 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 22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도 자리가 있나이다
- 23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 24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Reading insight

In the debate regarding the Sabbath, the opponents of Jesus could not stand against Jesus' teaching that salvation(healing) of human beings must take priority over everything. In the Parable of the Wedding Feast (14:7–14) that follows, Jesus teaches about humility. Then in the Parable of the Great Banquet (14:15–24), Jesus contrasts the lack of faith in Jews who rejected the invitation to the Gospel to those who are poor and despised but have accepted the invitation and enjoyed the wonderful blessings of the great banquet. In the concluding part (14:25–35), Jesu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denying one's self and careful planning and preparation.

Luke 14:15-24

- 15 When one of those who reclined at table with him heard these things, he said to him, "Blessed is everyone who will eat bread in the kingdom of God!"
- ¹⁶ But he said to him, "A man once gave a great banquet and invited many.
- 17 And at the time for the banquet he sent his servant to say to those who had been invited, 'Come, for everything is now ready.'
- 18 But they all alike began to make excuses. The first said to him, 'I have bought a field, and I must go out and see it. Please have me excused.'
- 19 And another said, 'I have bought five yoke of oxen, and I go to examine them. Please have me excused.'
- 20 And another said, 'I have married a wife, and therefore I cannot come.'
- 21 So the servant came and reported these things to his master. Then the master of the house became angry and said to his servant, 'Go out quickly to the streets and lanes of the city, and bring in the poor and crippled and blind and lame.'
- 22 And the servant said, 'Sir, what you commanded has been done, and still there is room.'
- 23 And the master said to the servant, 'Go out to the high-ways and hedges and compel people to come in, that my house may be filled.
- 24 For I tell you,none of those men who were invited shall taste my banque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큰 잔치 비유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참석 초청을 거부(사 양)했습니까? (18-20절) In the Parable of the Great Banquet, what kind of people rejected the invitation to the banquet? (14: 18-20)

종이 주인에게 "아직도 자리가 비어있다"고 말했을 때 주인은 무슨 명령을 내렸습니까? (23절) What did the master commanded the servant to do when he told the master that "There is still room"? (14:23)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 강명석(MA)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김현태(M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울상 짓는 그리스도인? A Joyless Christian?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잔치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그 노래 가락에 맞춰 추는 춤이 있습니다. 너무나 즐겁고 기쁘기에 도저히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습에는 언제나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장차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된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교회사를 보면, 중세시대에 금욕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은 고난과 절제의 영성을 최고로 생각하여 산이나 광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수도원 안에 은밀한 개인 기도실을 만들어 혼자 살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예배당 벽속에 가두어 자그마한 구멍을 통해 먹을 것을 받아먹으며 살았습니다. 얼핏 보기에 그들의 영성이 탁월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고난과 희생, 절제와 순종 이런 덕목들을 추구해야 하겠지만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이 비신앙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잔치의 영 성은 곧 기쁨의 영성입니다. 기쁨이 성탄절과 부활절의 주제인 것이 분명하 다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바로 기쁨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울상 짓는 그 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God is always into throwing a banquet for those who are saved. And in this banquet, there is no shortage of singing and dancing for God. If you are at this banquet, you, too, will not be able to just sit there doing nothing. Christians are those people who have attended this banquet. For this reason, Christians should always be full of joy. How can we not rejoice when our sins have been washed away and we have become God's children by the grace Jesus Christ who died on the cross for us? In church history, there were ascetics and mystics in the Middle Ages who regarded the discipline of suffering and self-denial as the highest form of virtue that they intentionally sought out life in the mountains or wilderness. Some of them made and live their whole life in a tiny prayer room in a monastery or locked themselves up in the church wall, feeding themselves through a small hole in the wall. In a way, this kind of spirituality may seem very deep and holy to some people. But on the other hand, we need to guestion if this is a spirituality that we need to imitate or practice in our own lives.

Spiritual virtues or disciplines like suffering and sacrifice, self-denial and obedience are certainly virtues that all of us need to pursue. But at the same time,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seeking joy and pleasure is not wrong as Christians. Spirituality of the banquet is the spirituality of joy. If joy is clearly at the heart of Christmas and Easter celebration, then joy is the essence of our Christian faith. For this reason, there is no such thing as a "joyless Christian."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December 목 Thu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God who seeks after the Lost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15장



새294장(통416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을 때. 그 광 경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비난했다(1-2절). 그러자 예수님은 세 가지 잃은 것에 대한 비유들, 곧 잃은 양의 비유(3-7절), 잃은 드라크마(은전)의 비 유(8-10절), 잃은 아들(탕자)의 비유(11-32절)를 말씀하셨다. 하 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잃은 자들을 찾으러 세상에 오셨다.

누가복음 15:11-24

- 11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 12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 13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 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 비하더니
- 14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 15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 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 16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 는 자가 없는지라
- 17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 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 18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 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 19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 20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독아가니라 아직도 거리 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 21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 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 22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 24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Reading insight

When the tax collectors and sinners gathered to hear Jesus,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criticized Jesus for welcoming them (15:1–2). Then Jesus tells them three parables that deal with lost things; the Parable of the Lost Sheep (15:3–8), the Parable of the Lost Coin (15:8–10) and the Parable of the Lost Son (15:11–32). Jesus the Son of God came to this world to find the lost.

Luke 15:11-24

- 11 And he said, "There was a man who had two sons.
- 12 And the younger of them said to his father, 'Father, give me the share of property that is coming to me.' And he divided his property between them.
- 13 Not many days later, the younger son gathered all he had and took a journey into a far country, and there he squandered his property in reckless living.
- 14 And when he had spent everything, a severe famine arose in that country, and he began to be in need.
- 15 So he went and hired himself out to one of the citizens of that country, who sent him into his fields to feed pigs.
- **16** And he was longing to be fed with the pods that the pigs ate, and no one gave him anything.
- 17"But when he came to himself, he said, 'How many of my father's hired servants have more than enough bread, but I perish here with hunger!
- 18 I will arise and go to my father, and I will say 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before you.
- 19 I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Treat me as one of your hired servants."
- ²⁰ And he arose and came to his father. But while he was still a long way off, his father saw him and felt compassion, and ran and embraced him and kissed him.
- 21 And the son said 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before you. I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 22 But the father said to his servants, 'Bring quickly the best robe, and put it on him, and put a ring on his hand, and shoes on his feet.
- 23 And bring the fattened calf and kill it, and let us eat and celebrate.
- 24 For this my son was dead, and is alive again; he was lost, and is found. And they began to celebrat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당자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마저 주는 자가 없자 스스로 돌이켜 한 말은 무엇입니까? (17-19절) What did the prodigal son say to himself when no one would give him anything to eat, even the pods that the pigs were eating? (15:17-19)

큰 아들이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여 준 아버지에게 불평을 늘어 놓자 아버지가 그에게 한 말은 무 엇입니까? (31-32절)

When the older son complained against the father for throwing his brother a banquet, what did the father say to the older son? (15:31–32)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늘사랑연합감리교회, 박종희(MD) 베다니한인교회, 박대성(MD)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아버지가 되어야 When You Become a Father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러시아의 어느 박물관에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려고 가톨릭 교회 성직자이자 하바드 대학교 교수였던 헨리 나우웬(Henry Nouwen)이 그 곳에 가서 실물보다 크게 그린 거대한 그 그림 앞에서 몇 시간이고 앉아 세세한 부분까지 음미하며 묵상했습니다. 그런 후, 그는 아들을 품는 아버지의 자비로운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아 교수직을 버리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Day Break공동체에서 정신박약 장애우들을 섬기다가 그곳에서 1996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템브란트의 그림에 감명을 받고 1992년에 저술한 '탕자의 귀향' 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모습을 탕자에서 큰아들의 모습으로 빗대는 순서를 거 쳐, 끝내 슬픔과 용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징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소 명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지만, 헨리 나우웬은 이보다 더 큰 부르심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 아들 모두를 용서하고, 화해하며, 치유하고, 마침내 잔칫상에 초대한 아버지의 그 두 손(엄밀히, 한 손은 아버지의 강인한 손, 다른 한 손은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이 바로 우리의 손이어야 한다는 소명입니다. 그는 "우리가 만일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할 때, 우리의 영적 여정은 종착점에 도착하지 못한 것이며, 진정한 안식처 또한 찾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In a museum in Russia, there hangs a painting by the famous Dutch artist named Rembrandt entitled,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One day, a Catholic priest and professor at Harvard University named Henry Nouwen visited the museum to look at the painting. There, he stood in front of the painting for hours, carefully observing every aspect of the painting. He was mesmerized and so moved by the merciful portrayal of the father embracing the prodigal son that he gave up his teaching job and moved into a small community for mentally retarded people in Canada called "Day Break" and spent the rest of his life serving the people there until his death in 1996 by heart attack.

Inspired by Rembrandt's painting, Henry Nouwen wrote a booked entitled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in 1992. In this book, he described himself first identifying with the prodigal son in the story, then with the older son, and finally ending up with hearing the call to be the father who represent grief, forgiveness and the heart of generosity.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Prodigal Son, most people think that returning to the father's house is the ultimate point of the story. But Henry Nouwen argues that there is a bigger point that this story is making. It is the call to be the hands of the father (strictly speaking, one is the strong hand of the father and the other is the gentle hand of the mother) who forgave, healed, accepted and welcomed two sons to the banquet. He concludes that unless we arrive at a place of forgiveness and welcome, we haven't arrived at our final destination in our spiritual journey and that we will not find true sabbath in our lives.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처기도 first moment Pray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December 금 Fri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

The life of a wise steward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16장



새95장(통95장)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나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1-13절)에서 제자들은 의로운 청지기들 로서 세상의 불의한 청지기 들보다 재물을 훨씬 더 지혜롭게 사용할 것 을 가르치셨다. 아울러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은 마치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과 같이 한 쪽으로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누구보다 하 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자신들의 종교적 권세로 재물을 축적함으로써 돈을 섬기고 있다고 비판한다(14-18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19-31절)에서 가난한 자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부자의 자기만족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셨다.

누가복음 16:19-31

- 19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 20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 21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 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 22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 23그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 24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 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 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 25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 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 26 그쁜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 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 27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 지의 집에 보내소서
- 28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 로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 29아브라핚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 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 30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 리이다
- 31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 은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Reading insight

In the parable of the unjust steward (16:1–13), Jesus taught the disciples to use their wealth wiser than the unrighteous stewards of the world. In addition, Jesus said that the Pharisees who appear to serve God with more religious zeal than others are like those who serve two masters because they serve money by accumulating wealth with their religious authority. (16:14–18) In the Parable of the Rich Man and Lazarus (16:19–31), Jesus warns of the complacency of the rich who completely ignore the suffering of the poor.

Luke 16:19-31

- 19"There was a rich man who was clothed in purple and fine linen and who feasted sumptuously every day.
- 20 And at his gate was laid a poor man named Lazarus, covered with sores.
- 21 who desired to be fed with what fell from the rich man's table. Moreover, even the dogs came and licked his sores.
- 22 The poor man died and was carried by the angels to Abraham's side. The rich man also died and was buried.
- 23 and in Hades, being in torment, he lifted up his eyes and saw Abraham far off and Lazarus at his side.
- 24 And he called out, 'Father Abraham, have mercy on me, and send Lazarus to dip the end of his finger in water and cool my tongue, for I am in anguish in this flame.'
- 25 But Abraham said, 'Child, remember that you in your lifetime received your good things, and Lazarus in like manner bad things; but now he is comforted here, and you are in anguish.
- 26 And besides all this, between us and you a great chasm has been fixed, in order that those who would pass from here to you may not be able, and none may cross from there to us.'
- 27 And he said, 'Then I beg you, father, to send him to my father's house--
- 28 for I have five brothers--so that he may warn them, lest they also come into this place of torment.'
- 29 But Abraham said, 'They have Moses and the Prophets; let them hear them.'
- **30** And he said, 'No, father Abraham, but if someone goes to them from the dead, they will repent.'
- 31 He said to him, 'If they do not hear Moses and the Prophets, neither will they be convinced if someone should rise from the dead '"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는 죽어 각각 어디로 갔습니까? (22-23절) Where did the beggar Lazarus and the rich man go when they died? (16:22-23)

부자는 고통 중에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24절)

What did the rich man say to Abraham when he saw Abraham with Lazarus by his side? (16:24)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mbes & Pastors

성령의 불꽃 교회, 유재유(MD) 에덴연합감리교회, 신요섭(MD)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진정한 회개로 이끄는 것

Leading to true repentance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그를 살아 있는 형제 다섯에게 보내어 증언하게 함으로써 그들 모두 자기처럼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31절). 따라서 이 비유의 초점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소생) 자체가 사람을회개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조차도 전국적인 회개나, 전세계적인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사람을진정 회개로 이끄는 것은 어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기적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의 간증도 아닙니다. 비록 나사로가 살아나서 부자가 지옥의 불속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을 그의 다섯 형제에게 가서 아무리 열정적으로 외친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을 것이고 끝내 회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진정 회개로 이끌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예언자의 말이 가리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사람을 진정 회개로 이끄십니다.

When the rich man who fell into Hades saw Lazarus entering the kingdom of heaven, he begged Abraham to "send him to the five living brothers to testify, so that they all may not come to such a place of suffering." Then Abraham spoke. "If they do not listen to Moses and the Prophets, they will not be convinced even if someone rises from the dead" (16:31). Therefore, the focus of this parable is that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does not in itself make a person repent.

Even the resurrection of Jesus did not lead to national or worldwide repentance. It is not miracles, like the resurrection of a dead person, that definitively drives people to repentance.

Nor is it testimony of heaven and hell. Even if Lazarus comes back to life, goes to his five brothers, and shouts fervently about the torment of the rich man in the fires of hell, they still will not believe and will never repent. So, what can lead a person to repentance? It is the Word of the living God. The words of Moses and the prophets are clearly referring to the Word of God. The Word became flesh and came into the world. He is Jesus Christ. In the end, only Jesus Christ can really lead people to repentanc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December 토 Sat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

A person of faith, a person of gratitude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17장



새305장(통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예수님은 실족케 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것에 대한 교훈(1-4 절)과 더불어 믿음과 종으로 서의 겸손함에 대한 교훈(5-10절)을 주셨다. 그런 후,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을 지나시다가 어떤 한 마을에서 열 명의 나병환자들과 마주쳤을 때. 그들을 고쳐 주셨 고(11-19절),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셨다(20-37절).

누가복음 17:11-19

- 11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 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 12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 나 멀리 서서
- 13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 히 여기소서 하거늘
- 14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 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 15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 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 16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 아 사람이라
- 17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 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 18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 19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Reading insigh

Jesus gave lessons on temptation and forgiveness of sins (17:1–4) as well as lessons on faith and humility as a servant (17:5–10). Then, as he was passing through the borders of Samaria and Galilee, he encountered ten lepers in a village, where he healed them (17:11–19) and told of what would happen in the end times (17:20–37).

Luke 17:11-19

- 11 On the way to Jerusalem he was passing along between Samaria and Galilee.
- 12 And as he entered a village, he was met by ten lepers, who stood at a distance
- 13 and lifted up their voices, saying, "Jesus, Master, have mercy on us."
- 14 When he saw them he said to them, "Go and show yourselves to the priests." And as they went they were cleansed.
- 15 Then one of them, when he saw that he was healed, turned back, praising God with a loud voice;
- 16 and he fell on his face at Jesus' feet, giving him thanks. Now he was a Samaritan.
- 17 Then Jesus answered, "Were not ten cleansed? Where are the nine?
- **18** Was no one found to return and give praise to God except this foreigner?"
- 19 And he said to him, "Rise and go your way;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열 명의 나병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무엇이라 소리 높 여 외쳤습니까? (13절)

When the ten lepers saw Jesus, they stood far off and cried out to him. What did they shout? (17:13)

그들의 외침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4절)

Hearing their shouts, what did Jesus say to them? (17:14)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워싱톤감리교회, 이승우(MD) 하늘비전교회, 장재웅(MD)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감사의 자리

The attitude of gratitude

예수님으로 인해 나병을 고침 받은 열 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특별히 그는 유대인들의 혐오 대상인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아홉 명은 하나님의 선물(은혜)만 받았지, 실상 그 선물(은혜)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부류의 차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차이도, 정결한 백성과 부정한 백성의 차이도, 택함 받은 백성과 멸망 받을 백성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자리에 있었는가, 아니면 없었는가에 차이입니다. 그 사마리아출신의 나병환자는 "자기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고"(15절),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16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지난 세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지난 세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통스러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은혜를 아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감사의 자리에 나와서 입술로, 재능으로, 물질로, 헌신과 봉사로 감사를 표현해야만 합니다. 감사의 자리는 은혜를 아는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리입니다. 찬양과 예배로 기쁨을 충만이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마음 깊은 사랑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Of the ten people who had been cured of leprosy by Jesus, only one person (especially a Samaritan who was hated by the Jews) returned to Jesus and gave thanks. The remaining nine received God's gift (grace), and, in fact, they did not know what the gift (grace) was. Therefore,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groups was not the difference between the Jews and the Samaritans, not the difference between the clean and the unclean, nor the chosen people and the pagan. The difference is whether you have an attitude of gratitude for the grace you received or not. The Samaritan leper, "when he saw that he was healed, praising God in a loud voice" (17:15), returned to Jesus and fell at his feet, giving thanks (17:16).

If you have received God's grace, you must give thanks for the grace given. In the past, we too have received countless graces. Even in the midst of a painful pandemic, if we are looking back, we have no choice but to confess that everything is God's grace. But we must examine how grateful we are for the grace we have been given. It is not a true faith if we are just mentally aware of grace. We must come out to give thanks and express our gratitude with our lips, our talents, our material things, our dedication and service. The attitude of gratitude should be in the heart that experienced grace. It is the privilege of salvation through faith. It is a heart full of joy through praise and worship. And it is a devotion that gives deep love to the Lord.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19 주일말씀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 Title
서거비다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Bummer Lamb

이승우 목사 (워싱톤연합감리교회)

혹시 Bummer Lamb(의역: 실패한 양)이란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어미 양이 새끼를 낳은 후에 자기가 낳은 새끼를 중에서 자기 곁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양을 일 컫는 말입니다. 어미 양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잘 알려진 바는 없고 아무튼 어미 양은 그 새끼 양이 젖을 먹고 싶어서 자기에게 로 오면 사정없이 발로 차버려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오지 못하게 한 새끼는 그 후 절대로 자기 곁에 오지 못하게 하는데 그렇게 어미 양에게 버림받은 새끼 양은 마치 목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자기 목을 아래로 축 늘어트리고는 기가 죽은 모습으로 지내는데 바로 그렇게 어미 양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새끼 양을 "Bummer Lamb" 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Bummer Lamb는 어미의 돌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내버려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Bummer Lamb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자가 돌봐주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어미 곁에 가지 못한 채 목을 늘어트리고 있는 불쌍한 Bummer Lamb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먹을 것을 손으로 떠서 먹여주고 집안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해 주고 담요로 덮어 자기 가슴에 안아 주므로 그 양이 자기 심장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돌봐줘서 양이 잘 자라면 목자는 그 양을 다른 양들이 있는 양우리로 돌려보내서 다른 양들과 같이 지내게 하는데 그러다가 목자가 양들을 불러 모으려고 하면 그때 가장 먼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달려오는 양이 바로 그 Bummer Lamb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기를 돌봐주던 목자의 음성이 아주 익숙하기 때문이랍니다. 목자가 그 양을 다른 양보다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양은 자기를 돌봐준 목자의음성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바로 이 Bummer Lamb과 같지 않나 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고 그래서 상처를 입곤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런 때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돌봐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날이기에 기쁘고 감사 한 날입니다.

December 월 Mon

기도에 관한 교훈들

Precepts on Prayer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18장



새361장(통480장) 기도하는 이 시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우선 예수님은 두 개의 비유 - 끈질긴 과부의 비유(1-8절)와 올 바른 기도의 비유(9-14절)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신 후, 어린이들을 축복하셨다(15-17절). 이어서 젊은 부자 관원의 영생에 관한 질문. 그리고 그의 반응(18-30절)과 아울러 장차 인 자 예수께서 받으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고하셨다(31-34절). 그런 후, 걸인 시각장애인을 고쳐 주셨다(35-43절).

누가복음 18:1-8

- 1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 2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 3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 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 4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 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 5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 였느니라
- 6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 으라
- 7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 8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 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 냐 하시니라

Reading insigh

First, Jesus taught about prayer through two parables – the parable of the persistent widow (18:1–8) and the parable of the pharisee and the tax collector (18:9–14) – and then blessed the children (18:15–17). There was the question about eternal life from the rich young ruler and his response to Jesus (18:18–30). Jesus foretold of the suffering, death, and resurrection that the Son of Man Jesus would endure in the future (18:31–34). Then he healed a blind man who was a beggar (18:35–43).

Luke 18:1-8

- And he told them a parable to the effect that they ought always to pray and not lose heart.
- ² He said, "In a certain city there was a judge who neither feared God nor respected man.
- 3 And there was a widow in that city who kept coming to him and saying, 'Give me justice against my adversary.'
- ⁴ For a while he refused, but afterward he said to himself, 'Though I neither fear God nor respect man,
- ⁵ yet because this widow keeps bothering me, I will give her justice, so that she will not beat me down by her continual coming.'"
- ⁶And the Lord said, "Hear what the unrighteous judge says.
- ⁷ And will not God give justice to his elect, who cry to him day and night? Will he delay long over them?
- 8 I tell you, he will give justice to them speedily. Nevertheless,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earth?"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

Why did Jesus tell the parable of the unjust judge? (18:1)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 신 후, 예수님이 탄식하며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8절) After telling the parable of the unjust judge, what did Jesus say with groaning? (18:8)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무지개연합감리교회, 조태섭(ME)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 김대기(MI)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한 판 승부 About

불의한 재판장이 자신을 집요하게 찾아와 하소연하는 한 과부에 대해 스스로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5절). 여기에서 '괴롭게 한다'는 말은 '휘포피아조'라는 희랍어 단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권투 시합에서 쓰는 말로써, '자꾸만 얼굴을 때려 눈이 멍들게 하다'는 뜻입니다. 치열하게 권투 시합을 하다 보면 양 선수 모두 눈두덩이 시퍼렇게 멍이 들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불의하기로 악명 높은 재판장이 과부가 계속해서 졸라 대는 것이 성가시고 귀찮아 아무런 힘도 없는 과부에게 백기를 들고 만 것입니다.

재판장은 과부의 펀치를 계속 맞아 나가떨어지고 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권투시합으로 치면 기권패를 한 셈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압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기도의 한 판 승부를 벌여야 합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선 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An unjust judge tells himself about a widow who persistently visits him and complains: "this widow keeps bothering me, I will see that she gets justice, so that she won't eventually come and attack me!" (18:5). The word "bothering" here is a translation of the Greek word "Hupopiazo." This word was originally used in a boxing match and means "to bruise the eyes by hitting the face over and over again." In a fierce boxing match, both fighters are bound to get bruises around their eyes. Therefore, the judge, who was notorious for injustice, became so annoyed and bothered by the widow's constant harassing that he raised the white flag in surrender to the helpless widow.

It is as if the judge is knocked down by the widow's punch. In boxing terms, he would have withdrawn and lost. Sometimes you may feel helpless in the face of difficult and challenging tasks. No matter where you look in the world, you have nowhere to turn. You are put in a tight spot. What you can and must do in such a situation is pray.

Just like Jacob who wrestled with God at the Jabbok River ferry, you must fight a battle of prayer with God. If you pray persistently without giving up, your good Heavenly Father will surely answer you.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lei Yel

December 화 Tue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Jesus enters Jerusalem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19장



새586장(통521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경험하였고(1-10 절),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거의 당도해가자 사람들이 곧 하 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을 때, 예수님은 열 므나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 가르치셨다 (11-27절). 마침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 하셨는데(28-40절), 장차 멸망할 성읍을 보며 눈물을 흘리시며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41-46절). 그 후, 성 전에서 날마다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47-48절).

누가복음 19:41-48

- 41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 42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 43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듀을 쌓고 너를 둘 러 사면으로 가두고
- 44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 45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 46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 다 하시니라
- 47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 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 48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 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Reading insight

The tax collector Zacchaeus experienced salvation through meeting Jesus (19:1–10). When Jesus and his companions were near Jerusalem and people expected that the kingdom of God would soon appear, Jesus taught the parable of ten minas to teach them how to prepare for the kingdom of God (19:11–27). Finally, Jesus entered Jerusalem on a colt (19:28–40), and he wept over the city that will be destroyed. He entered the temple and drove out the merchants (19:41–46). After that, he taught daily in the temple (19:47–48).

Luke 19:41-48

- 41 And when he drew near and saw the city, he wept over it,
- ⁴² saying, "Would that you, even you, had known on this day the things that make for peace! But now they are hidden from your eyes.
- 43 For the days will come upon you, when your enemies will set up a barricade around you and surround you and hem you in on every side
- 44 and tear you down to the ground, you and your children within you. And they will not leave one stone upon another in you, because you did not know the time of your visitation."
- 45 And he entered the temple and began to drive out those who sold.
- 46 saying to them, "It is written, 'My house shall be a house of prayer,' but you have made it a den of robbers."
- ⁴⁷ And he was teaching daily in the temple.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and the principal men of the people were seeking to destroy him,
- 48 but they did not find anything they could do, for all the people were hanging on his word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 셨을 때 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43-44절)

Why did Jesus weep when he approached the city of Jerusalem? (19:43–44)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 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 며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46절)

What did Jesus say when he entered the temple to drive out the merchants? (19:46)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 김응용(MI)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 유준식(MI)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mark>호느낌의 눈물</mark> Weeping tears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셨을 때, 성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41절). 예수님은 머지않아 로마 군대가 침입하여 그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읍,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화려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됨은 물론이요, 그 성읍 안에 거하는 수많은 인명이 살상을 당할 것을 예고하면서 우셨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희랍어 단어는 '클라이오'입니다. 한자로 말하면, '읍(泣)'으로써 소리 없이 아주 작은 소리로 흐느껴울 때 쓰입니다. 예수님은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근심과 분노로 흐느껴우셨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맹렬한 불과 같이 임함으로 멸망 당할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근심의 눈물이며, 동시에 그러한 심판을 자초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불순종과 교만에 대한 분노의 눈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인종차별과 온갖 부정의를 보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조국의 분단된 현실을 보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일, 곧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혹한 지에 대해 근심하며 흐느껴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모든 민족의 죄에 대해 분노하며 흐느껴 울어야 합니다.

When Jesus approached the city of Jerusalem, he saw the city and wept (19:41). Jesus wept as he predicted that the Roman army would soon invade and destroy the city and its splendid temple, as well as the slaughtering of thousands of people living in the city. The Greek word used here is "klaio" that is in Chinese character "Eup(立)" which means that a person weeps silently in a very low voice. Jesus wept with sorrow and anger with a burning heart.

Those tears are tears of sorrow for fellow Jews who will be destroyed as God's judgment descends like a raging fire. They were also tears of anger against the hypocrisy, disobedience, and pride of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at the time who caused such judgment. We need these tears today too. We should weep at the racism and all kinds of injustice that are rampant in the land we live in. We must shed tears as we see the divided reality of our beloved Korea peninsula. We should weep with sorrow over God's return anticipating how harsh God's judgment will be. We should weep and cry in godly anger over the sins of all nations that will bring God's judgment upon ourselves.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처기도 first moment Prov

~ | - | | | |

묵상 reading & QT 한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7.2

December 수 Wed

수태고지 (受胎告知)

Annunciation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1:1-38



새104장(통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누가복음서 기자는 서문(1-4절)에서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데오빌로 각하로 하여금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 기 위함"인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런 후, 세례요한의 부모인 사가랴 와 엘리사벳의 이야기(5-25절)와 더불어 '수태고지'(受胎告知. Annunciation)로 알려진 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예고한 사건(26-38절)을 기록하고 있다.

누가복음 1:26-38

- 26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 27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 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 28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 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 29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 30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 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 31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 수라 하라
- 32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 를 그에게 주시리니
- 33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 라가 무궁하리라
- 34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 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 35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 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 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 36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 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 37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 니라
- 38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청사가 떠나가니라

Reading insigh

In the preface (1:1–4), the writer of the Gospel of Luke reveals that the purpose of his writing is to make Theophilus, the most honorable, "know the certainty of the things he has been taught." Then there is the story of John the Baptist's parents, Zacharias and Elizabeth (1:5–25). Known as the "Annunciation", it records the incident (1:26–38) where the angel Gabriel appeared to Mary and heralded the conception of Jesus Christ.

Luke 1:26-38

- 26 In the sixth month the angel Gabriel was sent from God to a city of Galilee named Nazareth,
- ²⁷ to a virgin betrothed to a man whose name was Joseph, of the house of David. And the virgin's name was Mary.
- 28 And he came to her and said, "Greetings, O favored one, the Lord is with you!"
- 29 But she was greatly troubled at the saying, and tried to discern what sort of greeting this might be.
- 30 And the angel said to her, "Do not be afraid, Mary, for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 31 And behold, you will conceive in your womb and bear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Jesus.
- 32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And the Lord God will give to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 33 and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ever, and of his kingdom there will be no end."
- 34 And Mary said to the angel, "How will this be, since I am a virgin?"
- 35 And the angel answered her,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the power of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therefore the child to be born will be called holy--the Son of God.
- **36** And behold, your relative Elizabeth in her old age has also conceived a son, and this is the sixth month with her who was called barren.
- 37 For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
- 38 And Mary said, "Behold, I am the servant of the Lord; let it b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 And the angel departed from he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 그리스 도의 잉태를 예고한 천사의 이름 은 무엇입니까? (26절) What was the name of the angel who appeared to Mary and heralded the conception of Jesus Christ? (1:26)

마리아는 천사가 한 말을 듣고 난 후에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38절)

What did Mary say after hearing the angel's words? (1:38)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 손용억(MN)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 윤국진(MN)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성탄절의 기적

Christmas miracle

중세의 성. 버나드(St. Bernard of Clarivaux, 1090-1153)는 예수님 의 탄생과 관련해서 다음 세 가지의 기적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첫 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된 기 적이요. 둘째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기적이 며, 셋째는, 마리아가 자신에게 성취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 어떤 기적이 최고의 기적일까요? 사실,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잉태시키는 것은 무에 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시시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 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은 정말 놀라운 기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선택 되었다는 것을 믿는 일이야말로 기적 중에서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기 적입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했습니다(38절). 마리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께서 자신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그 엄청 난 사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탄절의 기적은 다 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기적입니다.

St. Bernard of Clarivaux (1090–1153) stated that three miracles occurred in connection with the birth of Jesus. The first is the miracle that Jesus, the Son of God,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through the use of a virgin body, and the second is the miracle that God came into the world as a man in the flesh. It was said that the third miracle was that Mary by her faith accepted the wonderful miracle that will happen to her. But which of these three miracles is the most incredible? In fact, conceiving a baby from a virgin's body can be trivial for the Almighty God, who created something out of nothing. And the fact that God became a man could be a truly amazing miracle.

However, believing that Mary herself was chosen to be the mother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is a miracle among miracles. It is the greatest miracle to believe and accept something that is absolutely unbelievable. Hearing her angel's words, Maria said, "I am the Lord's servant. May everything you have said about me come true" (1:38). Mary believed and accepted the incredible fact that Jesus, the Savior of all mankind, will be conceived in her own body by the Holy Spirit. As such, the miracle of Christmas is the miracle of faith.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도 first moment Pra

단숨기도 One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December 목 Thu

마리아 차가

Mary's Song of Praise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1:39-80



새112장(통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복 중에 있는 아기가 메시야임을 알아보았다. 그 후, 마리아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Magnificat, 46-56절). 엘리사벳은 기한이 차서 아이를 출산하였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지었다(57-66절).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역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Benedictus, 67-80절).

누가복음 1:46-56

- 46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 47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 48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 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 49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 50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 51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들을 흩으셨고
- 52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 를높이셨고
- 53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 54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 시되
- 55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 56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Reading insigh

When Mary visited Elizabeth, Elizabeth recognized that the child in Mary's womb was the Messiah. After that, Mary praised God with joy (Magnificat, 1:46–56). Elizabeth gave birth to her own child and named him John (1:57–66). John's father, Zacharias, also praised God with joy (Benedictus, 1:67–80).

Luke 1:46-56

- 46 And Mary said, "My soul magnifies the Lord,
- 47 and my spirit rejoices in God my Savior,
- 48 for he has looked on the humble estate of his servant. For behold, from now on all generations will call me blessed;
- 49 for he who is mighty has done great things for me, and holy is his name.
- 50 And his mercy is for those who fear him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 51 He has shown strength with his arm; he has scattered the proud in the thoughts of their hearts;
- 52 he has brought down the mighty from their thrones and exalted those of humble estate:
- 53 he has filled the hungry with good things, and the rich he has sent away empty.
- 54 He has helped his servant Israel, in remembrance of his mercy,
- 55 as he spoke to our fathers, to Abraham and to his offspring forever."
- 56 And Mary remained with her about three months and returned to her hom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 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7-48절) Why does Mary rejoice in praising God? (1:47-48)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자와 비천한 자를 어떻게 하셨다 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52절) What has God done to the rulers and the humble according to Mary's confession? (1:52)

God Momen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 백성범(MN)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 이명균(MO)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Thank you, Your Highness!"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라고 했습니다(46-48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갈릴리 나사렛의 어느 촌구석에서, 그것도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되어 비천하게 하녀 노릇을 하며 살았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심으로 다윗가의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부른 찬송의 요점은 그가 받은 '영예'(honor)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아보십'에 있습니다.

만일 왕자가 거지의 손을 잡았다면, 격찬 받아야 할 대상은 당연히 왕자로 서, 그의 호의와 덕망이 칭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거지의 입장에서는 그 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는 말 밖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에서 동냥하는 걸인을 만났습니다. 적선을 하려고 주머니를 뒤져 보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동전 한 닢 없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톨스토이는 걸인에게 "내 형제여, 지금 내게 돈이 하나도 없군요. 정말 미안합니다" 하고 정중히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걸인은 고개를 몇 번씩이나 숙여가며 환히 웃는 낯으로,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제가 요구한 것 이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저를 황송하게도 '형제'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되게 하신 그 은혜 앞에 우리도 그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Mary said, "Oh, how my soul praises the Lord. How my spirit rejoices in God my Savior! For he took notice of his lowly servant girl" (1:46–48). She lived in a remote village in Nazareth, Galilee, where she had lost her parents at an early age and lived as a humble maid. But in His presence, she praised the grace of her God, who made her the mother of Jesus Christ, the Messiah of the House of David. Therefore, the point of Mary's song of praise is not about the "honor" she received, but about "God's favor."

If the prince took the hand of the beggar, it is the prince who deserves praise, and his favor and virtue should be praised. The beggar may say, "Thank you, Your Highness!" What can he say other than that?

Russian writer Tolstoy met a beggar on the street one day. He looked through his pocket to make his donation, but no coins were found. Feeling sorry, Tolstoy politely said to the beggar, "My brother, I have no money right now. I'm really sorry." Then the beggar bowed his head several times and said with a bright smile, "No. Sir, you gave me more than I asked for. You called me 'brother.'" It is the grace of God that has called us to become children of God, who have no other choice but to die because of our sins. We just say, "Thank you, Your Highness!" And we have no other choice but to bow down before the Lord.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ᅯᆌᄃᇎᆞ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December 금 Fri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The Birth of Jesus Christ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2:1-21



새125장(통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짤막한 기사(1-7절)와 더불 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밤 일군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을 때 갑자기 하늘의 수많은 천군 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광경이 펼쳐졌음을 알리고 있다(8-14절).

누가복음 2:8-14

- 8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 더니
- 9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 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 10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 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 11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 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 12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 13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 송하여 이르되
- 14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Reading insight

Today's text includes a brief account of the birth of Jesus Christ (2:1–7). On the night that Jesus was born, an angel appeared to a group of shepherds and announced the news of the birth of Jesus. At that time, a scene of a multitude of heavenly hosts praising God with the angel suddenly unfolded (2:8–14).

Luke 2:8-14

- 8 And in the same region there were shepherds out in the field,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 by night.
- ⁹ And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around them, and they were filled with fear.
- 10 And the angel said to them, "Fear not, for behol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 11 For unto you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r, who is Christ the Lord.
- 12 And this will be a sign for you: you will find a baby wrapped in swaddling cloths and lying in a manger."
- 13 And suddenly there was with the angel a multitude of the heavenly host praising God and saying,
- 14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among those with whom he is please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천사가 한 밤 중, 양 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큰 두려 움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천사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10-12절) When the angel appeared to the shepherds guarding the flock in the middle of the night, what did the angel say to them who were overcome with great fear? (2:10-12)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 말은 무엇입니까? (14절)

What did the thousands of heavenly hosts say while praising God with the angel? (2:14)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 서준석(NC)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 이우일(NC)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매일 기쁨을 선사하는 방문객

A visitor who brings joy every day

미국에 사는 어떤 할아버지가 매일 낮 12시만 되면 교회에 들어갔다가 2~3분 만에 나오곤 했습니다. 하루는 교회를 관리하는 분이 교회 문을 나서는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할아버지, 왜 매일 같이 교회에 들어갔다가 나오십니까?" "그야 물론 기도하고 나오지요." "기도라니 요? 그 짧은 시간에 대체 무슨 기도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나는 길게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 왔습니다. Jim 말입니다'." 약 한 달 후, 그 할아버지는 노환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어온 후, 병실에서는 웃음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는 병실의 모든 환자들에게 웃음을 주고 계신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응, 내가이 환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지. 그것은 모두 다 나를 찾아오는 방문객때문이야. 그분이 내게 늘 기쁨을 주고 가거든." 간호사는 평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할아버지에게 방문객이 있다는 말에 깜짝 놀라 다시물었습니다.

"방문객이라니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그 방문객이 언제 찾아오나요?" "응, 날마다 나를 찾아오지. 낮 12시만 되면 정확하게 내 침대 곁을 찾아오거든. 그가 나를 찾아와 이렇게 내 귀에 속삭여. '여보게, Jim! 잘 있었나? 나 예수야!'하고 말이야. 그러고는 내게 기쁨을 한 아름 안겨주고 가시지."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매일 우리를 찾아와 큰 기쁨을 안겨주고 가십니다.

Grandfather Jim living in the United States used to enter his church at noon every day and leave after 2–3 minutes. One day, a church manager called out to him as he left the church, "Grandpa, why do you come to church every day?" Jim responded, "Yes, of course, I come here to pray." "Are you praying? What are you praying for in that short time?" "I do not know how to pray long. I just pray like this. 'Jesus, Jim is here.'"

About a month later, the grandfather was hospitalized due to old age. But after he arrived, his smile never left him. One day, a nurse asked Jim. "Grandfather! You make all the patients in the hospital smile, is that true?" "Yeah, I'm giving these patients joy. It's all because of the visitor who comes to me. He always brings me joy." The nurse was surprised to hear that the grandfather had a visitor, and asked again, "A visitor? I've never seen anyone with you, so when does that visitor come?" "Yeah, every day he visits me. He comes to my bedside exactly at noon. He comes to me and whispers in my ear like this, 'Hey, Jim! How have you been? I am Jesus!' And then he gives me a lot of joy and goes away." That's right. Jesus, who was born on this earth 2000 years ago, still comes to us every day, giving us great joy.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December 토 Sat

시므온의 찬송

Simeon's sona of Praise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2:22-52



새122장(통122장) 참 반가운 신도여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예수님은 태어난 지 팔 일이 되어 할례를 받았는데. 그날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 는 예식을 행하였다(22-24절). 그러자 선지자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고(Nunc Dimittis, 25-35절), 이어서 여선지자 안나가 예수님에 대해 예언했다 (36-38절). 아울러 누가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성장과(39-40 절), 예수님의 유년기 (12살)에 있었던 사건(41-52절)을 기록하 고 있다.

누가복음 2:25-35

- 25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 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 26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 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 27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 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 고 오는지라
- 28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 29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 30내 뉴이 주의 구워을 보았사오니
- 31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 32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이니이다 하니
- 33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 34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 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 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 35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 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Reading insight

Eight days after Jesus was born, he was circumcised. On that day, Joseph and Mary went up to the temple in Jerusalem to offer the baby Jesus to God (2:22–24). Then, under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the prophet Simeon embraced Jesus and praised God (Nunc Dimittis, 2:25–35), and then the prophetess Anna prophesied about Jesus (2:36–38). In addition, the writer of Luke records the story of Jesus' growth (2:39–40) and the events of Jesus' childhood (12 years old) (2:41–52).

Luke 2:25-35

- 25 Now there was a man in Jerusalem, whose name was Simeon, and this man was righteous and devout, waiting for the consolation of Israel, and the Holy Spirit was upon him.
- 26 And it had been revealed to him by the Holy Spirit that he would not see death before he had seen the Lord's Christ.
- 27 And he came in the Spirit into the temple, and when the parents brought in the child Jesus, to do for him according to the custom of the Law,
- 28 he took him up in his arms and blessed God and said,
- 29 "Lord, now you are letting your servant depart in peace, according to your word;
- 30 for my eyes have seen your salvation
- 31 that you have prepared in the presence of all peoples,
- 32 a light for revelation to the Gentiles, and for glory to your people Israel."
- 33 And his father and his mother marveled at what was said about him.
- **34** And Simeon blessed them and said to Mary his mother, "Behold, this child is appointed for the fall and rising of many in Israel, and for a sign that is opposed
- 35 (and a sword will pierce through your own soul also), so that thoughts from many hearts may be reveale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누가복음서 기자는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25절)

What kind of person is Simeon according to the Gospel of Luke? (2:25)

시므온이 특별히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은 무 엇입니까? (34-35절) What did Simeon specifically prophesy about Jesus to Mary? (2:34-35)

God Momen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임종선(NH) 가득한교회, 이강(NJ)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돌직구 예언 The straight fastball prophecy

선지자 시므온의 찬송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담겨 있는데, 33절에 보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가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귀에 들린 말씀이 평소에 전혀 생각한 적이 없었던, 아니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언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예언이란 단순히 미래에 벌어질 길흉을 말하는, 즉 주로 점쟁이들이 말하는 '운세 판단'(fortunetelling)이 아닙니다. 예언은 상대방의 기분과는 상관없이 꼭 해야만 하는 말을 가감 없이 그대로 던지는 돌직구의 특성을 안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선민주의'(elitism)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말입니다. 더구나 시므온은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고,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라고 거침없이 예언했습니다. 따라서 참 예언은 어떤 개인이나 나라에 대해 돌직구를 날리듯함으로써, 때로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깊이 헤아려고 뜻에 꼼짝없이 순복하게 만듭니다.

The song of the prophet Simeon contains prophecies about Jesus Christ. In verse 33, Joseph and Mary were amazed when they heard the words of the prophecy. Why were they surprised? It must be because the words they heard were about things they had never imagined or could never expect to happen. It is here that the true value of prophecy is revealed. Prophecy is not just fortunetelling, which fortune tellers say will be realized in the future. Prophecy has the characteristic of the straight fastball, which throws the words as they are, regardless of the mood of the other party.

According to Simeon's prophecy, Jesus is not only the glory of the nation of Israel, but the light that illuminates all Gentiles. These are words that break the stereotypes of Jewish belief that was immersed in "elitism" at the time. Moreover, Simeon prophesied without hesitation especially to Mary, that Jesus was chosen for Israelites to be slandered and defeated and that "a sword will pierce your heart." Therefore, a true prophecy throws the straight fastball to a certain individual or country, sometimes causing pain and suffering like being stabbed in the heart. By doing so, they deeply understand the will of God which converts them to obediently submit to it.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26 주일말씀요약 Sunday Sermon Note

목 Title
경본문 Scripture
로요내용Outline
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주간의 일정 This Week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하늘

김기석목사(청파감리교회, Korea)

동지가 지났으니 이제 빛의 시간이 다가온다. 어둠의 터널에 갇힌 듯 암담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은 저 먼곳에서 얼핏 떠오르는 오련한 빛을 보고 안도한다. 어둠이 끝나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을 맞을 때마다 한 해를 엄범부렁하게살았다는 자책과 후회가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찾아들곤 한다. 성탄절이 연말 즈음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안인가? 성탄절은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중심에서 비껴난 자리에서 있는 사람들, 유력한 이들로부터 비존재 취급을 받던 이들을 감싸 안는 망토처럼 하늘이 땅에 내려오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은 하나가된다. 그분에게는 속된 것이 하나도 없다. 쓸모없는 것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숨을 품고 있는 신비이다. 예수,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하늘이다.

성탄절을 지나며 랍비 조나선 색스가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기 위하여〉라는 책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 매주 금요일 새벽이면 네미로프(Nemirov)의 랍비가 사라지곤 했다. 읍내에 있는 회당과 학교에도 없었고, 문이 늘 열려 있는 그의 집에도 없었다. 어느 날 리투아니아 출신 학자 한 사람이 그를 만나러 왔다. 랍비가부재중이라는 말을 전해 들은 그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계신 곳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늘이 아니면 어디겠어요?"라고 대답했다. 마

을 사람들은 평화와 음식과 건강이 필요했고, 랍비는 하늘에 올라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 탄원하고 있을 거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그런 깊은 신뢰에 감명을 받은 리투 아니아인은 그 사라짐의 비밀을 밝혀보기로 작정하고는 목요일 밤에 랍비의 집에 몰래 숨어들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랍비가 조용히 탄식하며 우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 랍비는 벽장에서 낡은 옷 꾸러미를 꺼내 몸에 걸쳤다. 거룩한 사람의 옷이 아니라 농부의 옷이었다. 랍비는 도구함에서 도끼를 꺼내들더니 밖으로 나갔다. 리투아니아인은 몰래 그의 뒤를 밟았다. 랍비는 마을을 지나 숲에 들어가더니 굵은 나무 한 그루를 찍어 넘어뜨린 후 그것을 잘게 잘랐다.

그는 장작을 어깨에 짊어지고 마을로 돌아가 어둑한 뒷길에 있는 허름한 집으로 가더니 문을 두드렸다. 가난하고 병든 늙은 여인이 문을 열었다. "누구시죠?" "저는 바실리라는 사람입니다. 나무를 좀 팔고 싶어서요. 헐값에 드리겠습니다." "사고는 싶지만 돈이 없어요." "외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갚으라고요?" "나는 아주머니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그분께서 제가 보상받을 방법을 찾으실 겁니다." "하지만 나는 병이 들어 불을 피울 기운조차 없답니다." "제가 피워 드리지요." 랍비는 아침 기도문을 읊조리며 불을 피워드린 후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리투아니아 출신의 학자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본 후 랍비의 제자가 되었다. 그날 이후 그는 마을 사람들이 방문객들에게 랍비가 하늘에 올라갔다고 말하면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오히려 "그분은 더 높은 곳에 계실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하늘은 저 높은 곳, 인간의 손길이나 발길이 미치지 않는 다른 차원의 공간이 아님을 일깨워준다. 분열된 세상, 상처 입은 사람들의 현실 때문에 깊이 아파하고, 어떻게든 곤경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려는 마음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하늘이다. 진심으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다면 낮은 곳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그 곳으로 발길을 옮겨야 한다. 전면적으로 세상의 모든 아픔을 다 부둥켜안을 수는 없다해도,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둠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이들 곁에 다가가야 한다. 바로 그곳이야말로 땅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장소이니 말이다.

December 월 Mon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논쟁

Controversy between Jesus and the religious leaders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20장



새170장(통168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예수님은 종종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사 두개인들)과 논쟁을 벌이셨다. 누가복음 20장은 다음 여섯 개의 질문 들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1)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는 가?"(1-2절); (2)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3-8 절); (3)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9-19절); (4)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 까?"(20-26절); (5)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 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27-40절); (6)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 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41-47절)

누가복음 20:27-40

- 27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어떤 이들이 와서
- 28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 울지니라 하였나이다
- 29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가 아내를 취하였다 가 자식이 없이 죽고
- 30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 31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 32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 33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 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 35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 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 36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 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 37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 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 38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 39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 이다하니
- 40 그들은 아무 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Reading insight

Jesus often argued with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of his day (Pharisees, priests, elders, and Sadducees). Luke 20 focuses on the following six questions: (1) "Who gave you this authority?" (20:1–2); (2) "Is John's baptism from heaven or from man?" (20:3–8); (3) "What will the owner of the vineyard do to the evil farmers?" (20:9–19); (4) "Is it lawful for us to pay taxes to Caesar or not?" (20:20–26); (5) "Among all the seven brothers took her to be their wives, and whose wife will she be at the time of her resurrection?" (20:27–40); and (6) "Why do people say that Christ is the Son of David?" (20:41–47)

Luke 20:27-40

- 27 There came to him some Sadducees, those who deny that there is a resurrection.
- 28 and they asked him a question, saying, "Teacher, Moses wrote for us that if a man's brother dies, having a wife but no children, the man must take the widow and raise up offspring for his brother.
- 29 Now there were seven brothers. The first took a wife, and died without children
- 30 And the second
- 31 and the third took her, and likewise all seven left no children and died.
- 32 Afterward the woman also died.
- 33 In the resurrection, therefore, whose wife will the woman be? For the seven had her as wife."
- 34 And Jesus said to them, "The sons of this age marry and are given in marriage,
- 35 but those who are considered worthy to attain to that age and to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neither marry nor are given in marriage,
- **36** for they cannot die anymore, because they are equal to angels and are sons of God, being sons of the resurrection.
- 37 But that the dead are raised, even Moses showed, in the passage about the bush, where he calls the Lord the God of Abraham and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 38 Now he is not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for all live to him."
- 39 Then some of the scribes answered, "Teacher, you have spoken well."
- 40 For they no longer dared to ask him any questio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유대교 종파는 무엇입니까? (27절) Which Jewish sect claims there is no resurrection? (20:27)

다음 구절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적어 넣으십시오: "하나님은 ()의 하나님이 아 니요 ()의 하나님이시라. 하나 님에게는 ()이 살았느니라." (38절)

Fill in the missing words:
"He is not the God of (),
but of (), for to him all are
()." (20:38)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갈보리연합감리교회, 왕태건(NJ) 그레이스-베델연합감리교회, 장학범(NJ)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현대판 사두개인들

Modern Sadducees

예수님 당시에 합리적인 현실주의자들로 알려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은 종지부를 찍는 것이기에 사람은 그저 현세에서의 삶에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부 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럴듯하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증거들을 제 시하며 모든 초자연적인 것, 영적인 것을 부정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현 대판 사두개인들이라 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 씀하신 요점은 영생은 단순히 지상 생애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는 그의 생애 마지막 강연에서 다 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앞서간 모 든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살아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오늘에도 여전히 적합한 것으로 우리들의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All live to him, from the Apostles to the forebears of yesterday and the day before yesterday. They do not have only the right, but also relevance in the present] to be heard also today)." 그의 이 주장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죽은 자가 살 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 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 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 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37-38절).

The Sadducees, known as rational realists in Jesus' day, did not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ey thought that death would put an end to everything, so one should just be content with life in this world. Some people who do not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ese days provide plausible scientific and logical evidence, denying all supernatural and spiritual things. We could call them modern-day Sadducees. The point Jesus made to the Sadducees is that eternal life is not simply a continuation of life on earth.

German theologian Karl Barth said in the final lecture during his career: "All live to him, from the Apostles to the forebears of yesterday and the day before yesterday. They do not have only the right, but also relevance in the present to be heard also today." His argument draws attention to what Jesus said in the text. "But in the account of the burning bush, even Moses showed that the dead rise, for he calls the Lord 'the God of Abraham, and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He is not the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for to him all are alive" (20:37–38).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ᅯᆌᄃᇎᆞ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December 화 Tue

종말의 징조들

Signs of the End Times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21장



새50장(통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예수님은 성전에서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동전 두 개를 바친 과부를 칭찬하셨다(1-4절). 그런 후,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고의 말씀(5-24절)과 더불어 마지 막 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25-28절)을 주셨다. 그 후,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의 잎사귀들 비유(29-33절)를 통해 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 다(34-38절).

누가복음 21:1-4

- 1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 2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 3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 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 4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 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Reading insight

When Jesus saw the rich and a poor widow give offering in the temple, he praised the widow who offered two coins (21:1–4). Then he gave warnings of the events of the end times (21:25–28) as well as warnings of the destruction of the city of Jerusalem and the temple (21:5–24). Then, through the parable of the fig tree, he gave instructions on how to live in the end times (21:29–38).

Luke 21:1-4

- ¹ Jesus looked up and saw the rich putting their gifts into the offering box,
- ² and he saw a poor widow put in two small copper coins.
- ³ And he said, "Truly, I tell you, this poor widow has put in more than all of them.
- 4 For they all contributed out of their abundance, but she out of her poverty put in all she had to live o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은 성전에서 무슨 광경을 보셨습니까? (1-2절) What did Jesus see in the temple? (21:1-2)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을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

Why did Jesus praise the poor widow's offering? (21:4)

God Momen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 박태열(NJ) 뉴그레이스교회, 전영철(NJ)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작은 것도 아름답다

Even small things are beautiful

흔히 사람들은 크고, 많고, 높고 영광스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하나님은 작고, 적고, 낮고 천한 것에 주목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40년간 광야를 지나면서 그 민족을 영도했던 모세의 손에는 마른 지팡이 하나가 쥐여져 있었습니다. 천하무적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소년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 하나가 쥐여져 있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300명 용사를 추려내어 미디안과 전쟁을 치렀는데, 그들의 손에는 나팔과 횃불이 감추어진 항아리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미화로 penny와 같은 당시에 가장 가치가 낮은 동전)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그가 다른모든 사람(부자)들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누가복음 20장 47절("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을 놓고 보면, 본문의 초점은 과부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끝갈 데 없이 물질의 탐욕에 빠져 가난한 사람들의 것마저 등쳐먹었던 서기관들에 대한 탄식에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따돌림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손에 쥐고 있는 작고 하잘것없는 것들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들도 얼마든지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Often people like things that are big, numerous, tall, and glorious. But God pays attention to what is small, little, lowly and ordinary. Moses, who rescued the people of Israel from Egypt and led the people through the wilderness for 40 years, had a run-down staff in his hand. A slingshot was held in David's hand, the boy who defeated the invincible Philistine general Goliath. Judge Gideon selected 300 warriors to fight the Midianites and in their hands were jars with trumpets and torches hidden. All of them were insignificant. However, God used them to do great and wonderful things.

In the text, Jesus sees a poor widow putting two small coins (the lowest value coin at the time, such as a penny in US currency) into the treasury and commends her for putting in more than everyone else (the rich). But looking at Luke 20:47 ("Yet they shamelessly cheat widows out of their property and then pretend to be pious by making long prayers in public. Because of this, they will be severely punished"), the focus of the text is not in the praise of the widow, but in the lamentation against the scribes who, in their endless greed for material things, devoured even the things of the poor. After all, Jesus' eyes are always on the outcasts and the little things they hold in their hands. In the sight of Jesus, they are all beautiful and precious.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처기도 first moment Pray

X / III ili st moment i raye

묵상 reading & QT 한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89 업무의

December 수 Wed

고난 당하신 예수님

Jesus in Suffering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22장



새216장(통356장) 성자의 귀한 몸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누가복음 22장은 다음의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룟 유다의 배반(1-6절); 유월절 준비와 만찬(7-23절); 제자들 사이의 언쟁 (24-30절);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31-34절); 보냄 받은 자를 위 한 새로운 가르침(35-38절); 예수님의 눈물의 간구(39-46절); 체포당한 예수님(47-53절); 베드로의 부인과 회개(54-62절); 예수님에 대한 조롱과 모욕(63-65절); 공회 앞에서 심문 받은 예 수님(66-71절).

누가복음 22:24-30

- 24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 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 26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 27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 에 있노라
- 28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 들인즉
- 29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맏겨
- 30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 려 하노라

Reading insigh

Luke 22 consists of the following accounts: the betrayal of Judas Iscariot (22:1–6); Passover preparation and supper (22:7–23); quarrels among the disciples (24–30); foretelling Peter's denial (22:31–34); new teachings for the called (35–38); Jesus' supplication in tears (22:39–46); Jesus' arrest (22:47–53); Peter's denial and repentance (22:54–62); the ridicule and insulting of Jesus (22:63–65); Jesus' trial before the council (22:66–71).

Luke 22:24-30

- 24 A dispute also arose among them, as to which of them was to be regarded as the greatest.
- 25 And he said to them, "The kings of the Gentiles exercise lordship over them, and those in authority over them are called benefactors.
- 26 But not so with you. Rather, let the greatest among you become as the youngest, and the leader as one who serves.
- 27 For who is the greater, one who reclines at table or one who serves? Is it not the one who reclines at table? But I am among you as the one who serves.
- 28 "You are those who have stayed with me in my trials,
- 29 and I assign to you, as my Father assigned to me, a kingdom,
- **30** that you may eat and drink at my table in my kingdom and sit on thrones judging the twelve tribes of Israel.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은 누가 큰지 말다툼하는 제자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셨습 니까? (26-27절)

What lesson did Jesus give the disciples who were arguing over who was the greatest? (22:26–27)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29-30절) What was the promise Jesus made to his disciples when he said, "you have stayed with me in my time of trial." (22:29-30)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뉴져지연합교회, 고한승(NJ)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 이정애(NJ)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석김의 역설

The paradox of service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을 베푸신 자리에서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서 누가 큰지 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섬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26절).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 항복하고, 지키기 위해 내어주며, 좋아지기 위해 고생하며, 살기 위해 죽는다"(We surrender to win: we give away to keep; we suffer to get well; we die to live). 이것은 역설적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섬김의 역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섬긴다"(we serve to rule over).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결코 의도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거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가장 큰 지위를 얻으려 하거나,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뿐입니다. 또한 진정한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기위해 가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에 사람들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결국,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존경의 대상이 되어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빌 2:5-11).

During the Last Supper before Jesus' suffering and death on the cross, the disciples argued with each other over who was the greatest among them. To such disciples, Jesus gave a teaching on servanthood: "In this world the kings and great men lord it over their people, yet they are called 'friends of the people.' But among you it will be different. Those who are the greatest among you should take the lowest rank, and the leader should be like a servant" (22:26). There is a saying: "We surrender to win; we give away to keep; we suffer to get well; we die to live." This is a paradoxical truth. Jesus spoke of the paradox of service in the text "we serve to rule over."

A leader in the kingdom of God never intentionally seeks to occupy a high position, to attain the highest position that people will envy, or to enjoy great wealth and honor. They simply perform their role faithfully in an attitude of silently serving others. Also, a person who shows an example of true servanthood is not easily seen by people because he does not act pretentiously to attract the attention of others. But in the end, the person unwittingly becomes the object of respect and takes a leadership position. Jesus was just that. The Son of God came into the world in the form of a servant, humbled himself, and was crucified to death. However, God exalted him and made him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C.f. Phil 2:5–11).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December 목 Thu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Jesus crucified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23장



새269장(통211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별다른 죄목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헤롯에게 로 보냈다(1-7절). 헤롯은 예수님을 심문한 후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 냈다(8-12절).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 석방하려고 했으나 십자가 처 형을 요구하는 군중들을 물리칠 수 없었다(13-25절). 결국, 예수님 은 두 명의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26-38절), 그 중 하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낙원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을 받았다(39-43절), 예수님은 운명하셨고(44-49절),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신을 취하여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넣어 두었다(50-56절).

누가복음 23:32-43

- 32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 께 끌려 가니라
- 33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 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 34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 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 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 35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 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 36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 37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워 하라 하더라
- 38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 39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 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워하라 하되
- 40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 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 41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 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 42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 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 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Reading insigh

Pilate sent Jesus to Herod because he could not find any particular charge against him. (23:1–7) Herod sent Jesus back to Pilate after interrogation. (23:8–12) Pilate tried to acquit Jesus, but he could not overrule the crowd demanding crucifixion. (23:13–25) Eventually, Jesus was crucified with two criminals (23:26–38), one of whom received a promise from Jesus to enter paradise. (23:39–43) Jesus died (23:44–49), and Joseph of Arimathea, a member of the council, took the body of Jesus, wrapped it in linen cloths, and placed it in a tomb (23:50–56).

Luke 23:32-43

- 32 Two others, who were criminals, were led away to be put to death with him.
- 33 And when they came to the place that is called The Skull, there they crucified him, and the criminals, one on his right and one on his left.
- 34 And Jesus said,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And they cast lots to divide his garments.
- 35 And the people stood by, watching, but the rulers scoffed at him, saying, "He saved others; let him save himself, if he is the Christ of God, his Chosen One!"
- 36 The soldiers also mocked him, coming up and offering him sour wine
- 37 and saying, "If you are the King of the Jews, save yourself!"
- 38 There was also an inscription over him,"This is the King of the Jews.
- ³⁹ One of the criminals who were hanged railed at him, saying, "Are you not the Christ? Save yourself and us!"
- 40 But the other rebuked him, saying, "Do you not fear God, since you are under the same sentence of condemnation?
- 41 And we indeed justly, for we are receiving the due reward of our deeds; but this man has done nothing wrong."
- 42 And he said,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 43 And he said to him, "Truly, I say to you,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하며 무슨 말을 했습니까? (39절)

How did one of the criminals on the cross slander Jesus? (23:39)

그 행악자를 꾸짖은 또 다른 행악자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대답을 하셨습니까? (43절) When another criminal who rebuked the slandering criminal asked,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how did Jesus respond? (23:43)

God Moment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린허스트 영광한인교회, 임희영(NJ)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 정호석(NJ)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세 개의 십자가

Three crosses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해골의 곳'이라 불린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 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정중앙에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가 있었고.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들이 구체 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십자가에 처형될 만 큼 큰 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는 각 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며 끝내 부인했던 한 강도의 십자가는 '완패'(完敗)의 십자가였습니다. 반역의 십자가였습니다. 또 한 사람의 강도가 진 십자가는 '역전승'(逆轉勝)의 십자가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면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무기력했던 예수님 을 믿음으로 화려한 재기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부끄러운 전과로 가득했지만, 내세에서는 주님과 함께 최초로 낙 원에 들어가는 역전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 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시간까지 "인 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는 말 씀을 이루셨음을 보여줍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한치의 후회 없이 "다 이루었다"(요 19:30) 외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 님의 십자가는 '완승'(完勝)의 십자가입니다.

Three crosses stood on the hill of Golgotha, called the "place of the skull" where Jesus died. There was a cross with Jesus hanging in the center, and two criminals were nailed together to the left and right of Jesus. It is not clear what specific wrong they committed, but they must have committed a crime serious enough to be punished with crucifixion. Each of the three crosses has a meaning. The cross of the criminal who mocked Jesus and eventually denied him was a cross of "the ultimate loser." It was the cross of defiance. The cross of the other criminal was the cross of "A come from behind victory."

He was a person who succeeded in a splendid comeback by believing in Jesus, realizing his own sin, and repenting while helpless on the cross. Although his life on this earth was full of shameful crimes, in the hereafter he was honored to enter Paradise for the first time with the Lord. Also, the story of the criminal who was saved shows that by the time Jesus died on the cross, the words,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were fulfilled (Luke 19:10). Jesus finally died without any regrets, exclaiming "It is finished" (John 19:30). The cross of Jesus is the cross of complete victory.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2
-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December 금 Fri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혀혀

The Resurrection and Appearance of Jesus Christ

통독본문 Reading Plan

누가복음 Luke 24장



(복음성가) 엠마오의 두 제자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갖고 무덤에 갔을 때. 두 천 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 렸고 베드로가 직접 무덤이 비었음을 확인했다(1-12절). 부활하 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에 관 한 가르침을 주셨고(13-35절), 제자들이 모인 곳에도 나타나서 구운 생선을 잡수셨다(36-43절). 그 후, 성경을 풀어 가르치시고 (44-49절)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 승천하셨다(50-53절).

누가복음 24:22-35

- 22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 23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 24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 느니라 하거늘
- 25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 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 27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 28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 29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 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 30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 31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 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 32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 33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 34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 35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 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Reading insight

When the women went to the tomb with spices at dawn on the first day after the Sabbath, two angels announced the resurrection of Jesus. The women informed the apostles, and Peter himself confirmed that the tomb was empty (24:1–12). The resurrected Jesus appeared to the two disciples on their way to Emmaus and taught them about Christ (24:13–35), and also appeared to the gatherings of his disciples and ate grilled fish together (24:24:36–43). After that, he taught them to understand the Scripture (24:44–49) and after blessing his disciples he ascended into heaven (24:50–53).

Luke 24:22-35

- ²² Moreover, some women of our company amazed us. They were at the tomb early in the morning,
- 23 and when they did not find his body, they came back saying that they had even seen a vision of angels, who said that he was alive.
- 24 Some of those who were with us went to the tomb and found it just as the women had said, but him they did not see."
- 25 And he said to them, "O foolish ones, and slow of heart to believe all that the prophets have spoken!
- **26** Was it not necessary that the Christ should suffer these things and enter into his glory?"
- 27 And beginning with Moses and all the Prophets, he interpreted to them in all the Scriptures the things concerning himself.
- 28 So they drew near to the village to which they were going. He acted as if he were going farther,
- ²⁹ but they urged him strongly, saying, "Stay with us, for it is toward evening and the day is now far spent." So he went in to stay with them.
- 30 When he was at table with them, he took the bread and blessed and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 31 And their eyes were opened, and they recognized him. And he vanished from their sight.
- 32 They said to each other, "Did not our hearts burn within us while he talked to us on the road, while he opened to us the Scriptures?"
- 33 And they rose that same hour and returned to Jerusalem. And they found the eleven and those who were with them gathered together,
- 34 saying, "The Lord has risen indeed, and has appeared to Simon!"
- 35 Then they told what had happened on the road, and how he was known to them in the breaking of the brea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 그들의 대화를 듣고 책망하신 말씀은 무 엇입니까? (25-26절)

How did the resurrected Jesus rebuke the two men on their way to Emmaus after hearing their conversation? (24:25–26)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사람과 함께 식사자리에서 떡을 가지사축 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1절) What happened when the resurrected Jesus took bread, gave thanks, broke it, and gave it to the two men at the meal? (24:31)

God Momen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mbes & Pastors

모리스타운한인교회, 지동규(NJ)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 이기성(NJ)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최후의 승자

The ultimate winner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변덕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웃음을 보이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최후의 승자이십니다. 당시 예수님을 재판한 유대교 최고의 의결기구인 산헤드린에 속한 공회원들은 자기들이 최후로 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 처형 판결을 내린 비겁한 빌라 도는 자신이 최후로 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며, 주 먹으로 치고, 침 뱉고, 온갖 조롱과 욕설을 퍼부으며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도 자기들이 최후로 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후로 웃은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이 최후로 웃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 모두 최후로 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The hearts of those who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re always filled with joy. No matter what, in the midst of difficulties in life, they never lose joy. They do not despair or give up easily. They are not capricious according to their moods or emotions.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ells us that God has given us the last laugh. There is a saying, "The person who laughs last is the ultimate winner." In that sense, God is the ultimate victor. At that time, the council members belonging to the Sanhedrin, the highest body of Judaism, who judged Jesus, thought they were the last to laugh.

Cowardly Pilate who sentenced Jesus to be crucified even though he knew Jesus was innocent, thought he was the last to laugh. Even the Roman soldiers who whipped Jesus, punched Him, spit on Him, ridiculed Him, and finally crucified Him, thought they were the last to laugh. But it is God who laughs last. God, who raised Jesus from the tomb, laughed for the last time. All Christians who participated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will have the last laugh: we all will be the ultimate winner.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척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레미야 \$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한달 \$ 10, \$ 20, \$ 30, \$ 50 per month □하루 \$ 1 per day □한달 \$ 30 per month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합니다.

Your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척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kumcdevotion@gmail.com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십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l 누가복음 5:1-11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잃어버린 아버지 | 누가복음 15:25-32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공평함의 복음 I 누가복음 1:46-56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닭 울음 소리 l 누가복음 22:31-34, 54-62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새497장(통274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새500장(통258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복음성가) 내가 주인삼은 모든 것 내려 놓고

1 여는 질문

있는 힘을 다해 애쓰고도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2 본문 이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게네사렛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마침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배 두 척 가운데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 말씀을 가르치신 후, 다짜고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4절)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진맥진하여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형편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5절)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수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는 혼자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다른 배에 있는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잡은 물고기들을 배 두척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바닷물속에 잠기게 되었습니다(7절).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나는 죄인이로소이다"(8절)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10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들 모두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10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마태복음서 기자와 마가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마 4:19; 막 1:17). 따라서 누가복음서 기자는 '사람 낚는 어부'(fishers of men)라는 표현을 '사람을 [산 채로] 취하는 일'(catching men)로 바꾼 것입니다(아쉽게도 개

역 성경에는 '산 채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 희랍어 단어('조그론')의 뜻을 그대로 살려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생포하다'(딤후 2:26)로써 칠십인역(LXX)에서는 흔히 '위험에서 생명을 건져낸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민 31:15, 18; 신 20:16). 그러므로 누가복음서기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름 아닌 사람을 생포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전도자입니다. 즉, 전도란 사람을 생포하여 죄와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3 말씀 속으로

- 1.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4절)
- 2.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크게 놀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10절)

4 삼속으로

- 1.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히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당시 갈릴리 어부들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허탈한 삶이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의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 2. 본문 11절을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소유의 전적인 포기가 제자직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5 암송 구절 - 누가복음 5:10 ·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6 자녀와 나눔

예수님을 믿으면서 조금이라도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잃어버린 아버지



새299장(통418장) 하나님 사랑은 새276장(통334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새527장(통317장) 어서 돌아오오

1 여는 질문

아버지가 나로 인해 기뻐하셨던 일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2 본문 이해

동생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준 아버지에 대해 분노하면서 투덜거리는 맏아들에게 아버지는 잃어버린 존재와 다름없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맏아들은 당시 자칭 의인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변합니다. 맏아들이 한 말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29~30절). 이 말속에서 맏아들은 아버지 품을 한 번도 떠난 적은 없었지만 실상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즉, 맏아들의 생각에 아버지는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었습니다. 엄하게 명령을 내리는 주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실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맏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맏아들)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28절). 맏아들은 집 나간 동생이 들어와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는 말에 발끈하여 아예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 그를 권했습니다. 여기에서 '권했다'는 말의 희랍어 동사는 '파라칼레오'인데, 이 단어는 호소하다, 간청하다는 뜻과 더불어 달래다, 위로하다, 초청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바로 여기에서 '보혜사'를 가리키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참고. 요한복음 16:7). 맏아들의 반항에 대해 아버지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호소했고 사랑으로 달랬습니다.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서 맏아들을 달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31-32절). 아버지는 다정다감한 음성으로 "얘(my son)"라고 부르

셨는데, 아버지가 한 이 말은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네 아버지다. 그래서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또 너도 늘 나와 함께 있다"라는 말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라는 말속 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마음에 품고 살던 두 아들에게 남겨줄 유산에 대한 암시가 있음을 보게 됩니 다. 종에게는 품삯이 주어지나 아들에게는 유산이 주어집니다.

3 말씀 속으로

- 1. 맏아들이 분노하여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9-30절)
- 2.그렇게 분노하여 투덜거리는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31-32절)

4 삼속으로

- 1.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면, 평소에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인처럼 의무감에 붙들려 섬김과 복종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들처럼 기쁨으로 사랑과 존경을 드리고 있습니까?
- 2.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5 암송 구절 - 누가복음 15:31-32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6 자녀와 나눔

아빠를 즐겁게 해드린 일이 있었나요? 최근에 아빠가 나로 인해 가장 기뻐한 일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공평함의 복음



새117장(통117장) 만백성 기뻐하여라 새120장(통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새126장(통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1 여는 질문

이민생활 중에 억울하게 차별을 당한 일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2 본문 이해

본문은 '마그니피카트'(Magnificat)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마리아 찬가'입니다. 이 명칭은 라틴 어로 된 '벌게이트'(Vulgate) 성경의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마리아가 "주를 찬양했다"라는 문구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찬가의 내용은 본문 51-53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은 바로 '평등화'(equalizing), 혹은 '동등화'(leveling) 사역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높은 사람을 낮추고 낮은 사람을 높이며, 주린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부한 사람을 빈손으로 보내는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동등하게 될것임을 언급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특별히 누가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 메시야에 대해 예언한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세상에는 처음부터 그것이 무엇이든 '힘 있는 자들'로부터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인종차별, 성차별, 빈부차별, 계급차별, 지식차별, 외모차별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 중에 차별과 싸우시고 친히 차별을 없애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등함의 복음은 모든 차별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비전이 곧 예수님이 품으셨던 비전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가 장차 이 일을 행할 것을

미리 알고 찬송으로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 말로 온 세상에 평등과 동등의 가치를 구현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등함의 복음을 전하는 전령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3 말씀 속으로

- 1. 마리아는 47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8절)
- 2.다음()안에 들어갈 말을 적어 넣으십시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 자들을 흩으셨고 ()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 자를 높이셨고 ()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51-53절)

4 삼속으로

- 1.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2. 예수 그리스도의 평등화의 복음 앞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니다.

(5) 암송 구절 - 누가복음 1:51-53[°]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 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 도다."

6 자녀와 나눔

누군가 나를 차별한 적이 있었나요? 그 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한 적이 있었나요? 무슨 이유로 차별했나요?

4

닭 울음 소리



새325장(통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새450장(통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새465장(통523장) 주 믿는 나 남 위해

1 여는 질문

누군가에 의해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 때 심정이 어떠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2 본문 이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31-32절). 이 말씀은 시몬 베드로의 앞날을 내다보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종종 사탄에 의해서 놀림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위해 기도하심으로써 지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만심이 생겼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다"라고 큰소리쳤습니다. 일종의 허황된 약속을 한 셈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34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주변사람들 눈치를 보며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불을 피우고 앉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앉았는데마침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너도 그와 함께 있었던 자라"라고 다그치자 그 자리에서 정확히 세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심히 통곡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를 통곡의 회개로 이끈 것은 예수님을 세 번씩 연거푸 부인했던 그를 쳐다보는 주님의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닭이 울지 않았다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닭 울음소리는 자만심에 빠져 있던 베드로를 일깨운 소리였습니다. 닭 울음소리는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베드로를 일깨운 소리였습니다. 결국,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함으로써 훗날 그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 위에서 복음 전파의 선봉 장이 되게 했던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3 말씀속으로

- 1. 베드로는 닭 울기 전, 몇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34절)
- 2.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자 베드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62절)

4 삼속으로

- 1. 금년을 시작하면서 주님과 한 약속이 있었습니까? 혹시 한 해 동안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 2.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정신을 차려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한 해를 살면서 어떤 매개체를 통해 한 순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마음을 돌이켰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 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5 암송 구절 - 누가복음 22:61-62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6 자녀와 나눔

올 한 해동안 누군가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You will fish for people"

1 Opening Question

Share an experience when you tried your best and didn't get the results you desired.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One day Jesus saw two boats on the Sea of Galilee (Lake Gennesaret). While the fishermen were washing their nets when they got off the boat, Jesus got into Simon Peter's boat and taught them the Word. Without any explanation, Jesus told Peter, "Go out into the deep and let down your nets for a catch" (5:4). In fact, they had fished all night, but did not catch a single fish. Thus, in the morning, exhausted, they were washing their nets. Jesus knew the situation and said to Peter, "Go out into the deep and let down your nets for a catch." Then Peter answered, "Teacher, we have toiled all night and caught nothing; but at your word I will let down the nets" (5:5).

In obedience to Jesus' command, Peter got into the boat and lowered his nets into the depths of the water. As a result, he caught so many fish that the nets were torn. Unable to do anything on his own, he turned to James and John, his partners in another boat, for help. He filled two boats with the fish he had caught, and the boats were submerged in the sea (5:7). Then Peter fell down at Jesus' knees and confessed, "Depart from me, Lord, I am a sinner" (5:8). After that, all of them brought their boats onshore, left everything behind, and became disciples of Jesus.

Here we need to pay attention to what Jesus said to Simon Peter, "Do not be afraid, for from now on you will fish for people" (5:10). Regarding the same incident, the writers of Matthew and Mark recorded Jesus saying,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C.f. Matt 4:19; Mark 1:17). Therefore, the writer of Luke changed the expression "fishers of men" to "catching men [alive]." (Unfortunately, in the ESV, the Greek word "zogron" which means "alive" was not translated literally.) The original meaning of this word is "to

be taken alive" (2 Tim 2:26), and is often used in the Septuagint (LXX) to mean "to deliver life from danger." (C.f. Num 31:15; Deut 20:16) Therefore, according to the writer of the Gospel of Luke, a disciple of Jesus Christ is an evangelist who brings people alive and leads them to salvation. In other words, evangelism is about taking people alive and delivering them from the dangers of sin and death.

3 Into the Word

- 1. What did Jesus say to Peter who labored all night and did not catch any fish? (5:4)
- 2. What did Jesus say to Peter, who was shocked to see so many fish caught that the nets were torn? (5:10)

4 Into our Life

- 1. The fact they caught so many fish that their nets were torn is a symbol of how empty the previous lives of the Galilean fishermen at that time was. This amazing miraculous event made a huge difference in their lives. If you have experienced a significant change in your life since meeting Jesus, please share.
- 2. Luke 5:11 says, "They pulled their boats up on shore, and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Jesus." This emphasizes the fact that the total renunciation of possessions is a prerequisite for discipleship. Please share what you will give up to follow Jesus.

(5) Memory Verse - Luke 5:10

"And so also were James and John, sons of Zebedee, who were partners with Simon. And Jesus said to Simon, "Do no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be catching men."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Share how you have changed since you believed in Jesus?

Prodigal Father

1 Opening Question

Please share something you did that made your father happy.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o the older son, who grumbled in anger over his father who had prepared a big feast for his younger brother, his father was nothing but lost. The older son in this parable represents the Pharisees and scribes, the self-proclaimed righteous people of that time. The older son said. "I have served my father for many years, and I have never disobeyed his orders, but he never gave me a young goat so that me and my friends could enjoy it. When this son who squandered his father's livelihood with prostitutes came back, he killed a fattened calf for him!" (15: 29–30). In these words, we see that the older son never left his father's arms, but in reality, he lost his father. In other words, in the opinion of the older son, the father was not an object of love and respect, but of service. He was like a master who gave strict order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way a father treats his older son who has lost his real father. "[The eldest son] was angry and would not go in, but his father came out and persuaded him" (15:28). The eldest son was furious at the news that his father had held a feast when his younger brother returned and had no intention of entering the house at all. Then his father came out of the house and encouraged him. Here, the Greek verb for "recommendation" is "parakaleo", which means to appeal, to plead with, as well as to appease, comfort, invite. (The word "Comforter" came from the word "parakletos" [C.f. John 16:7]). The father did not command the rebellious older son. On the contrary, he appealed and comforted him with love.

The father came out of the house and comforted the eldest son, saying: "Son, you are

always with me, and everything I have is yours; but we had to celebrate and be glad, because this brother of yours was dead and is alive again, and he was lost and is found" (15:31–32). His father called him "my son" in a sweet voice, and he said, "You are my son and I am your father," meaning "you are always with me, and I am always with you." In particular, we see that in the words "all that is mine is yours," there is an allusion to his desire for the inheritance that the father will leave to his two sons. A slave is given a wage, but a son is given an inheritance

3 Into the Word

- 1. Why was the firstborn son angry and did not go into the house? (15:29–30)
- 2. What did the father say to the eldest son who complained in anger? (15:31-32)

4 Into our Life

- 1. If God is my father, how do I usually deal with God the Father? Are you just serving and obeying Him like a servant, caught up in a sense of duty? Or are you giving Him love and respect with joy like a son?
- 2. Please share the problems the inertia-soaked religious life has.

(5) Memory Verse - Luke 15:31-32

"And he said to him, 'Son, you are always with me, and all that is mine is yours. It was fitting to celebrate and be glad, for this your brother was dead, and is alive; he was lost, and is found."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Was there something that pleased your father? What is the most recent thing you have done that pleased him?



Gospel of Equality

1 Opening Question

If you have been unfairly discriminated against during your immigration life, please share.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 text is the Hymn of Mary, known by the name of the Magnificat. This name is derived from the phrase Mary "praised the Lord" in Luke 1:46 of the Latin Vulgate Bible. The content of the hymn that we should pay special attention to are verses 51–53. "He has performed mighty deeds with his arm; he has scattered those who are proud in their inmost thoughts. He has brought down rulers from their thrones but has lifted up the humble. He has filled the hungry with good things but has sent the rich away empty."

This song reveals that when Jesus comes into the world he will do the work of "equalizing" or "leveling". In other words, the song refers to the work of lowering the high and exalting the low, making the hungry full, and sending the rich away empty—handed, so that all people will be equal before God. In fact, this is the core of the gospel that the writer of the Gospel of Luke is trying to convey through Jesus. But these words are similar to Isaiah 40:3–5, which the prophet Isaiah had long ago prophesied about the Messiah: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make straight in the desert a highway for our God. Every valley shall be raised up, every mountain and hill made low; the rough ground shall become level, the rugged places a plain. And the glory of the Lord will be revealed, and all people will see it together. For the mouth of the Lord has spoken.'"

From the beginning of history, discrimination from "the powerful" has existed in this world. Even now,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are suffering from racism, sexism, economic disparity, class discrimination, knowledge discrimination, and appearance discrimination. During the ministry of his public life, Jesus fought against discrimination and eliminated discrimination

himself. Therefore, Jesus Christ's gospel of equality directly rejects all discrimination. A world without discrimination is the vision Jesus had. Mary had testified with her hymns, knowing in advance that baby Jesus in her own womb would do this in the future. Jesus Christ is the one who embodies the value of equality in the world. Therefore, all Christians must be messengers of this gospel of equality.

3 Into the Word

- 1. Mary sings in Luke 1:47, "My heart rejoiced in God my Savior." Why? (1:48)
- 2. Please fill in the blanks:

He has performed mighty deeds with his arm; he has scattered those who are () in their inmost thoughts. He has brought down () from their thrones but has lifted up the (). He has filled the () with good things but has sent the () away empty. (1:51–53)

4 Into our Life

- 1. What are the fundamental reasons why people discriminate against others?
- 2. Let's share what the church should do when faced with the gospel of equalization of Jesus Christ.

5 Memory Verse - Luke 1:51-53

"He has shown strength with his arm; he has scattered the proud in the thoughts of their hearts; he has brought down the mighty from their thrones and exalted those of humble estate; he has filled the hungry with good things, and the rich he has sent away empty."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Has anyone ever discriminated against me? What did you think at the time? Or, have I ever discriminated against others? Why did you discriminate?



The crowing of the rooster

1 Opening Question

Have you ever been betrayed by someone? Please share how you felt at that time.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Jesus gave Peter this warning: "Simon, Simon, behold, Satan has demanded to sift you like wheat, but I have prayed for you that your faith may not fail. When you have turned back, strengthen your brothers" (22:31–32). Jesus spoke these words looking into the future of Simon Peter. It is a promise that Jesus will keep praying for him even though Peter will be often tempted by Satan.

Peter must have been conceited after he heard the words of this promise. So he cried out, "Lord, I am ready to go with you to prison and to death." It's kind of like a false promise. Hearing his words, Jesus said, "Before the rooster crows today, you will deny that you know me three times" (22:34). Not surprisingly, when Jesus was arrested and entered the high priest's house, Peter followed him from a distance. Then he sat among the people who were sitting around the fire. When people recognized him and insisted, "You were with him, too," he denied Jesus exactly three times on the spot. At that very moment, the rooster crowed. Then, when Jesus turned and looked at Peter, he remembered what the Lord had said, went outside, and wept bitterly.

In fact, what led Peter to weeping repentance must have been the Lord's gaze on the one who had denied Jesus three times in a row. However, if the rooster hadn't crowed at that moment, he might not have remembered the words of the Lord. The crowing of a rooster awakened Peter from his pride. The crowing of a rooster was a sound that awakened Peter, who had not prayed but depended on his own strength. In the end, the crowing of a

rooster was like the merciful voice of the Lord who made Peter realize his own weakness, develop his strong faith, and become the vanguard of evangelism.

3 Into the Word

- 1. How many times did Peter deny that he knew Jesus before the rooster crowed? (22:34)
- 2. What did Peter do when he heard the crowing of a rooster and remembered what Jesus had said? (22:62)

4 Into our Life

- 1. Have you made any promises to the Lord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If there are any promises you haven't kept in the past year, please share them.
- 2. Hearing the rooster crow, Peter came to his senses, thoroughly turned away from his sins and repented. Please share what you experienced during the year when you were reminded of the Word of the Lord and changed your heart through some intermediary.

(5) Memory Verse - Luke 22:61-62

"And the Lord turned and looked at Peter. And Peter remembered the saying of the Lord, how he had said to him, "Before the rooster crows today, you will deny me three times." And he went out and wept bitterly."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If you have not been able to keep a promise you made with someone over the past year, what is the reason for not keeping your promise?

MISSIONARY OF THE MONTH



Advance: # 3022587 Country: Honduras

Serving At: United Methodist Mission in Honduras

Home Country: Costa Rica - San Josè

Jimenez Rojas, Yorleni R.

Yorleni R. Jiménez Rojas is a United Methodist missionary with the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serving as the mission program director for the United Methodist Mission in Honduras. She is based in Tegucigalpa, Honduras.

Ms. Rojas' program focuses on congregational development. Her primary responsibilities are developing, promoting, implementing and reviewing strategic directions for programming; working with Honduran entities in advancing general programming; and identifying and administering mission funds congruent with programming.

Although Methodism came to the northern coast of Honduras 100 years ago through British Methodism, and later with the Methodist Church of the Caribbean and the Americas, it is fairly new for the Honduran Spanish-speaking community. The mission in Honduras began in 1998. In 2002, the Honduras Initiative officially became a United Methodist mission. It currently includes 19 congregations and 53 faith communities. As an emerging new church, the mission is showing urgent need for pastors and the development of clergy and lay leadership.

The Honduran Mission constituency is largely composed of economically marginalized people with limited formal education. One area getting Ms. Rojas' attention is in-country networking and alliances with other secular, nongovernmental and Honduran religious organizations. Fostering those relationships not only strengthens the Honduran Mission with national

resources, but also continues to forge its Honduran identity and empowers the cultural aspect of the mission. Ms. Rojas' position is crucial in guiding the Honduran Mission to maturity.

Born in Costa Rica, Ms. Rojas was 8 years old when her family converted to Christianity. Passionate about studying the Scriptures, she said, "I had a burning desire to serve God." As a youth, she taught Sunday school and encouraged others to follow Jesus. Entering the university, she began studies in psychology and journalism. "I had a strong desire to help others," she recalled, "and psychology was a good medium for it. The journalism career I left aside because of economic limitations." She earned a psychology degree from the University of Costa Rica and started pursuing a master's degree with an emphasis on the Old Testament.

Prior to her current assignment, Ms. Rojas was a psychotherapist at Casa Main Project, working with girls ages 2 to 12 who had suffered abuse. She helped to plant and served as a pastor of Jesucrista Pan de Vida (Jesus Christ Bread of Life), an independent church. In charge of Christian education, she also preached. She experienced what she called "a second stage of questioning in my Christian pilgrimage, which had been characterized by much service. I began a search to find a genuine Christian spirituality, centered on being and not so much on doing (activism)," she said. "This helped me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our human nature, in contrast to the divine nature, and to be able to resize issues such as faith, grace, salvation and mission."

Confronted by multiple losses, Ms. Rojas entered what she termed "a time of dispossession, where only the grace and love of God sustained me. God comforted me and guided me through a process of healing and freedom, and made me resize my ministerial call," she said. "My fervent desire is to arrange my life so that God's purpose is fulfilled in me, and that everything he has given me is at his service."

Ms. Rojas has a daughter, Rebeca, who is a member of Comunidad Cristina Perdonados para Servir (Community Cristina Forgiven to Serve) in San José, Costa Rica. The church is part of an independent denomination.

Contact Info: yjimenezrojas@umcmission.org

우리는 세상을 위해 부름받은 제사장이다 -중보기도

김영봉목사(와싱톤사귐의교회, VA)



중보기도란 넓은 의미에서 다른 사람 혹은 사물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의미한다.

올바로 드려지는 기도는 모두 중보기도인 셈이다. 특별히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성경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많이 나온다. 그중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백성들을 위해 중보한 이야기는 특히 유명하다(출32장).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고 노여워하시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 중재한다. 결국 그의 중재로 인해 하나님은 화를 거두셨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께 간청한 것역시 중보기도에 속한다(창 18:16-33). 예수님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고(눅 22:32),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요17장)'를 드리셨다.

하지만 중보기도의 원리를 납득하기란 쉽지 않다.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많다. 예컨대 '하나 님이 나보다 더 그 사람의 행복을 원하고 계실 텐데 내가 굳이 그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가?', 혹은 '그 사람의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 는데 어떻게 그를 위해 청원기도를 올릴 수 있는 가?' 등등. 이런 질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지속하는 일은 쉽지 않다. 내 경우에도 중보기도가 가장 어려웠다. 나중에야 깨달은 사실은 중보기도의 근거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에 있고(고전 8:1) '이해'가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점이다. 누구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논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뜻이다. 사랑이 있는 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아도 중보기도가 터져 나온다.

또한 중보기도는 믿음의 문제이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다. 첫째, 중보기도가 실제로 그 대상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성경이 증언하는 바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다. 따라서 원리를 이해할 수 없어도 믿고 실행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 그러므로 우직하게 믿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세상을 위한 중보자로 임명받았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고(벧전 2:9, 계 1:6), 제사장 직무의 중심은 중보에 있으므로 우리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는 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중보기도에 대해 고민하던 중 깨달은 게 있다. 중보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한다는 점이다. 위대한 신앙인들은 영성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 우주를 새롭게 인식하는데, 그들에 의하면 모든 생명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삶에 내가 깊이 참여한다는 뜻이다. 의식 불명의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나는 그의 영혼이 벌이고 있는 사투에 참여하여 돕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싸움에 참여하여 힘을 북돋아 준다면 그 사람이 이길 확률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중보기도의 진수를 맛보기 위해 몇 가지 안내를 따라 훈련해보기를 권한다.

첫째, 중보기도는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한 깊은 공감과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도록 기도 전에 잠시 그 사람을 생각하라. 그러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다. 그때 입을 열어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가 진실해지고 그 사 랑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둘째, 나의 바람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사람을 맡기라. 중보기도 에서도 기본 원리는 지켜져야 한다. 그 사람에게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그의 영성과 삶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일에 초점을 두라. 그에게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게 되기를 빌고, 그 영적 능력으로 그가 봉착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기도 중에 찾으라. 중보기도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효력을 가지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것은 중보기도가 주는 '부수적인 은혜'이다.

넷째, 기도의 관심을 넓혀 가라.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중보기도를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중보했던 모세,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 애썼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 예수님도 감람산에 올라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며 통곡하셨었다(눅 20:41-44). 우리도 중보기도에 '거대 관심'을 담아야 한다. 주님처럼 민족과 인류 전체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한순간에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하더라도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숨겨진 중보기도야말로 이 세상을 유지하는 진정한 힘임을 믿어야 한다.

다섯째, 중보기도 목록을 작성하고 시간을 별도로 할애라. 관심을 넓혀 가다 보면 중보기도의 대상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진다. 이 많은 대상을 위해 충분히 기도 하려면 목록을 만들고 시간을 따로 정하는 게 좋다. 이때 한 사람을 위한 기도를 날마다 반복해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라고 권하고 싶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에 중보해야 할 사람이 많다면 어쩔 수 없이 마음에 없는 말로 명단을 훑어 내리고 만다. 이 경우, 중보의 책임을 다했다는 자기만족감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 기도가 얼마나 열매를 맺을지는 의문이다. 중보기도의 대상을 몇 그룹으로 나누고 하루에 한 그룹을 위해 중보함으로써 각 사람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섯째, 중보기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 기도 대상뿐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강한 연대감이 형성된다. 기도사역으로 형성된 연대 감은 강력할 뿐 아니라 오래도록 지속된다.

일곱째, 중보기도의 순간을 포착하라. 중보기도 방식 중에 소위 '총알 기도(canon prayer)' 혹은 '화살 기도(arrow prayer)'라는 것이 있는데, 즉석에서 짧게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기도가 필요한 현장을 목격하는 즉시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 순간이지나고 나면 기도할 기회를 잃는다. 그 기도는 비록 짧지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

바르게 드리는 기도는 결과적으로 모두 중보기도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이웃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그리고 모든 생명을 위해 중보하도록 부름받았다. 그러므로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단계를 넘어 기도로써 다른 사람의 삶에 참여하라는 고귀한 부름에 기꺼이 응해야 한다. 중보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동시에 권세인 것이다.

편집자주

2021년 김영봉 목사의 '사귐의 기도(IVP)'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성도들에게 '바른 기도'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이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리즈를 연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영봉 목사님과 IVP-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광야를 읽다11

피할수 없는광야, 피할수 있는광야

이진희목사 (Waco 한인 연합감리교회) 저서로는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 외 다수가 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두 번의 큰 광야를 경험했다. 첫 번째 광야는 출애굽 광야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시나이 광야를 통과했다. 두 번째 광야는 가나안에서 쫓겨나 바벨론에 끌려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포로기 광야다. 첫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지났던 광야다. 그러나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했던 광야다. 첫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 있던 광야였다. 그러나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없었던 광야다. 이스라엘이 자초한 광야였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면 겪지 않았을 광야였다.

첫 번째 광야를 지난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불신 불망 불명 불 순종을 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광야에서 40년이 나 머물러야 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고 가나안 거민들의 가증스러운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쫓겨나 광 야로 들어가 70년동이나 포로 생활을 해야 했다.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축복을 누리는 이야기들이다.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흉년을 만난 이야기다. 가나안에서 쫓겨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곳에서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갔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가나안에 돌아가도록 하셨다.

모세는 한순간의 실수로 광야로 도망쳐 들어가야 했다. 그곳에서 모든 꿈과 희망을 광야에 모래 구덩이 속에 파묻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야 했다. 가나안(이집트, 왕궁)에 되돌아간다는 것은 꿈도 꿀수 없었다. 그러나 두 번째 광야는 첫 번째 광야와는 전혀 다른 광야였다. 첫 번째 광야는 쫓겨서 들어간 광야였지만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들어간 광야였다. 하나님은 그를 첫 번째 광야에서 불러내셔서 두 번째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고 40년 광야를 지나게 하셨던 것이다. 첫 번째 광야는하나님 없이 지난 광야였지만 두 번째 광야는하나님과 함께 한 광야였다. 첫 번째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한 광야였다. 첫 번째 광야를 지날 때는 한 일이하나도 없지만 두 번째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에 들어갈 수있게 했다.

모세의 두 번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광야와 같은 광야이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통과한 광야다. 모세의 첫 번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광야를 연상시킨다. 모세는 사람을쳐 죽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들어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나 모세가 그 광야에서 나와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 광야에서 빠져나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첫 번째 광야를 통과하면서 쓰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첫 번째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셨다. 모세는 그 광야에서 나와 출애 굽을 이루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광야는 우리 모두가 다 통과해야 하는 광야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지났던 첫 번째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수시로 나타나셨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시로 말씀하셨다. 언약을 맺으셨다. 율법을 주셨다. 약속을 주셨다. 기적이 다반사였다. 매일 기적을 보며 살았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일체를 다책임져 주셨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살 아남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누가 그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냈는 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는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쫓겨나 들어간 두 번째 광야는 첫 번째 광

야와는 완전히 달랐다. 하나님이 첫 번째 광야 에서처럼 나타나시지 않았다. 기적도 일어나지도 않았다. 빨리 광야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다. 모세의 첫 번째 광야 때도 그랬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 두 번째 광야는 심판을 받고 있는 광야였기 때문이다. 정신 차리라고 들여보낸 광야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들여보내신 광야였기 때문이다.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지났던 첫 번째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셨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경험한 두 번째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이 멀리멀리 계셨다. 안 보였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었다.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셨던 것이다. 첫 번째 광야에서는 넘어지기만 해도 하나님이 달려오셨는데, 두 번째 광야에서는 넘어져서 죽어도 하나님은 모르는 체하셨다. 징벌의 광야, 심판의 광야였기 때문이다.

광야를 지난다고 해서 다 첫 번째 광야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 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부 재, 하나님의 외면을 경험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광야 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정신을 차렸다. 회개했다.

그러면하나님이 마음을 푸시고 "복역의 기간"을 5년이나 10년 또는 20년으로 단축시켜 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 처음에 선고한 대로 70년을 다 채운 다음에야 가나안에 돌아갈 수 있게 하셨다. 첫 번째 광야를 지날 때는 2년에서 40년으로 형이 늘었지만, 두 번째 광야에서는 모범수였는데도 70년 형을 다 채운 다음에야 풀려나게 하셨다.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나안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구원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은 더욱더 힘들다. 처음 구원받을 때보다 더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한다.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가나안에 머물러야 한다. 가나안을 지켜야 한다. 그곳에서 kick out 되면 안된다.

첫 번째 광야를 지났던 사람들은 계속 불신 불평 불만 원망 불순종만 했다. 그 결과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야 했다. 그러나 두 번째 광야를 바벨론에서 지낸 사람들은 달랐다.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와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했다. 나라를 잃었다. 나라가 망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다.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그런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신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 아오실 것이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더 이상 성전에 갈 수가 없게 되자 회당을 세웠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광야를 지나면서 회당을 세우고 유대인들은 매주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가나안에서는 제사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다. 그러나 두 번째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제사장이 없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구전으로 내려오던 성경을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탈무드도 이 시기에 기록되었다. 바벨론 포로기에 진정한 영적회복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유대교가 시작되었다. 가나안에서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이방 땅에서 유대교가 시작된 것이다.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

첫 번째 광야(출애굽 광야)를 지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몰랐다.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율법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원망 불평 불만을 토로했던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광야(바벨론 포로)를 지났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 여호와 신앙이 700년 이상 그들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잘 알면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신앙을 회복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진짜 밀월 기간은 출애굽 광야도 아니었고 가나안 정착 시대도 아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벨론 광야 시기에 영적 르네상스가 일어났다.

첫 번째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다. 거듭거듭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실망시켰다. 그러나 두 번째 광야(바벨론 포로)를 지나면서는 신앙이 회복되고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하나님 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첫 번째 광야를 지날 때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광야는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두 번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광야였다. 우리가 어떤 광야를 지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축복의 광야가 되게 해야 한다.



소그룹(속회)을 운영할 때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교인들을 소그룹(속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문제, 소그룹(속회)원들을 격려하는 효과 적인 방법, 소그룹(속회)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 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문제 1 어떻게 권면해야 소그룹(속회)에 참여할까요?

소그룹 리더(속장)로서 처음 또는 지속적으로 교인들이 소그룹(속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교회의 소그룹(속회)이 우선 순위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소그룹(속회)에 참여할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속회)을 통해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배우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권면해야 할까요? 효과적인 권면을 위해선 소그룹(속회)에 대한 리더 (속장)의 강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부분들에 대한 확신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간증을 준비하여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그룹(속회)은 위로와 힘을 얻는 곳임을 강조하십시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곳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회는 위로와 힘을 얻는 곳'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문제를 이기며 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소그룹(속회)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위로와 힘을 얻는 곳입니다. 리더(속장)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온 소그룹(속회)원들이 함께 위로하고. 붙잡아 주고,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는 가운데 문제를 이기게 되었던 구체적인 간증들을 확신을 가지고 소개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도서 4:9~10

소그룹(속회)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임을 강조하십시오.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을 참고합니다. 이 러한 지혜를 모으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소그룹(속회)입니다. 소그룹(속회)을 통하여 다른 이들의 신앙적인 분별과 실제적인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으게 될 때 삶 속에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논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잠언15:22(새번역)

소그룹(속회)은 거룩함(성화)을 이루어 가는 상호 돌봄이 일어나는 곳임을 강조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육강식, 생존경쟁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곁에 있는 이들을 동료이기보다 경쟁자로서 인식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은 더욱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을 내어 놓고 서로를 위로하고 지탱하며 세워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속회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아픔과 상처는 치유받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 소그룹(속회)입니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잠언27:17(새번역)

문제 2 소그룹(속회)원들을 어떻게 격려해야 할까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인정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격려해야 할지 방법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겨워하고 있는 소그룹(속회)원들을 어떻게 격려해야 할까요?

소그룹(속회)원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고 허물은 덮어주어야 합니다.

격려를 위해선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작은 장점이라

도 찾아서 칭찬하면 소그룹(속회)원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더욱 노력하게 됩니다. 반면에 허물이 있다면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고, 결점이 있음을 인정하며 덮어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격려를 위해선 상대방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하는 격려는 도리어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리더(속장)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격려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쁨과 평안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닌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13:13~15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대부분 격려 받고 싶어 하는 이들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해 주고,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경청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경청이 란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그 느낌과 감정, 상황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더(속장) 는 소그룹(속회)원이 자기가 충분히 받아들여졌다고 느낄 때까지 그냥 들어 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십시오.

격려는 이해를 넘어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행동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작은 카드에 손글씨로 메시지를 적어 보낼 수도 있고, 카카오 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 마음을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내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도 중요한 격려의 방법 입니다.

문제 3 소그룹(속회) 안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소그룹(속회)은 여러 다양한 신앙의 수준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갈등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기 위해선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할까요?

소그룹(속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는 반드시 그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소그룹(속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그 갈등은 철저하게 소그룹(속회) 안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각자의 삶을 나누다 보면 말씀 앞에서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적인 성향들로 인해 관계적인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앙적인 원칙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있어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목회자와 상의하며 반드시 소그룹(속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노력해야 합니다.

리더(속장)는 갈등의 본질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리더(속장)는 소그룹(속회)원들간의 표면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내면의 갈등, 그 원인과 실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면한 갈등이 비판과 정죄로 끝맺어지는 것이 아 니라 각자 마음의 '쓴 뿌리'들을 해결하는 기회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리더(속장)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속회원들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갈등의 문제 이면에 있는 각자의 깊은 감정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서로의 깊은 감정들이 솔직하게 나눌 수 있을 때, 표출된 갈등의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리더(속장)는 갈등해결의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리더(속장)는 결과에 초점을 두기보다 소그룹(속회)원들 사이에 상호 책임성을 분명하게 강조하여 해결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해결의 과정 가운데 소그룹(속회)원들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마음을 열어 서로의 말을 진심으로 듣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이때 리더(속장)는 평신도 사역자로 서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후속 조치와 상호 책임의 과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갈등해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을 기억하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갈등의 해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갈등으로 인해 틀어진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리더(속장)는 소그룹(속회) 내의 갈등과 긴장을 인정하고 용인하면서, 갈등의 당사자들이 갈등의 문제와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일대일 상담과 대화를 통하여 지혜롭게 권면해야 합니다.

박동찬 목사는 감신대학원과 웨슬리신대원(신학석사, 목회학박사)을 마치고, 감리교 속회연구원 원장, 일산광림교회 담임목사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다.

{믿음상(간증) - 전체 1등}

네마음대로 마침표를 찍지마라.(Part 2)

박현숙사모(가나연합감리교회, VA)

나는 위태로운 사역지에서 미끄러지고 있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내 앞에 COVID-19이라는 괴물이 찾아왔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였다. 죽기 전에 마지막 봉사를 결심했다. 뱀이 나올 정도로 자라버린 1.5에이커의 교회 잔디밭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털썩주저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남편은 팔을 끌어 말렸지만 내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홈리스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봄바람을 타고 흩날렸다. 나는 자고 나면 한 뼘씩 자라있는 잔디 때문에 아픈 줄도 몰랐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었다. 바람이 뒤에서 밀어주고 구름이 무등을 태워 대신 일해 주었다. 나는 구름 위를 걷고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무엇이라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보았다. 교회문은 닫았으나 하늘문은 열려 있었다.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충성스러운 권사님 한 분이 병원으로 실려갔다. 직장암이라고 했다. 뇌출혈로 쓰러졌던 데다가 다른 지병을 가지고 있어서 수술이 불가능했다. 남편은 곧장 기도원으로 향했고 금식을 시작했다. 나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금식을 했다. 누군가를 살리고 대신 죽을 수 있는 마지막 사역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성공적으로 수술하고 퇴원할 수 있었다. 밥해줄

사람이 없는 그녀를 위해 나는 한 달 동안 밥을 지어 날랐다. 식은땀이 겹줄로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알 턱이 없었다.

이웃교회에서 생활비를 보내 주었다. 특별히 ㅅ교회 K목사님은 내 상황이 긴박할 때마다 그랬다. 다 알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처음이 아니었다.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되었다. 내 앞에 지나가는 배고픈 이들에게 무수히 밥을 먹였더니, 내가 배고플 때, 하나님은 신속하게 일하셨다. 나는 그사랑 때문에 걱정 없이 아플 수 있었다. 이슬도 말라버린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날라주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지나가던 조경회사 차가 8톤의 멀치를 공짜로 교회에 부려놓았다. 교회 보다 큰 산이 넷이 생겼다. 우리는 새벽부터 땅거미 질 때까지 삽질을 했 다. 높고 단단한 산은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허물어지고 마침내 산은 옮겨 져 있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역사였다. 그것은 내가 드릴 수 있는 가 장 작고 연약한 믿음을 드렸을 때 가능한 일이었다. 동산은 풍성해지고 열 매들은 코로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자라났다. 삽질은 살이 빠져 헐렁해진 근육을 단단하게 키우는 운동이 되었다.

여러 해 동안 교류가 없던 어느 분이 편지를 보내왔다. "기도 중, 가나교 회가 계속 떠올랐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헌금을 보내드려요." 비가 새던 교회 지붕을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 딱 그만큼이 필요했었다. 여름장 마에도 걱정 없게 되었다. 세상은 코로나가 밀물처럼 덮어 버렸으나, 교회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하고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지천에 과일이 익어가고 채소들이 자라났다. 교회 동산에 물을 주는 일이 낙이었던 불쌍한 교우 한 분이 돌아가셨다. 또 장례가 났다. 그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다. 고급진 도시락을 만들어 할아버지 배낭에 넣어드리고 영원한 나라로 소풍을 보내드렸다. 나는 바빠서 죽을 시간이 없었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바쁘셨다.

교회 공터에 놀이터를 짓기 시작했다. "아이들도 없고, 코로나 시기에

누가온다고놀이터를 짓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 여름 맹볕에 땅을 파고 돌을 걸러내고 모래와 멀치를 덮었다. 빨간 지붕이 올라가던 날, 남편은 '드림랜드'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아이들이라야 고작 셋이었다. 한 가정이 한국에서 이민을 왔다. 입국도 어렵던 시기였는데 일사천리로 이민 수속을 밟았다고 했다. 아이들 둘이 늘어 다섯이 되었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마음껏 놀 수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고 아이들이 조잘거리는 놀이터에서는 해 넘어갈 때까지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즈음 남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교회 아름드리나무들이 옆 건물로 넘어져 진정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일곱 그루를 베어내는 큰 공사를 하게 되었다. 남편은 일군들을 돕다가 가장 큰 나무 밑동에 팔이 깔리는 대형사고를 당했다. 지게차가 와서 그의 팔을 꺼냈다. 팔은 멀쩡했다. 옆 건물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 옆 건물은 '베트남 불교 미주본부'이다. 그날, 나는 잔디를 밀다가 언덕배기에서 몇 바퀴 굴렀다. 위험천만했다. 기계는 굉음을 내며 불꽃이 튀었다. '쾅쾅!!' 나는 풀떼기들을 떼어내며 사뿐히 일어났다. 옆 건물 스님들이 보고 있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이름을 조용히 드러내셨다.

남편은 '전교인 50일 작정기도'를 선포했다. 하나님은 지상의 모든 교회와 미국과 세상을 향한 애통의 마음을 주셨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우시는 주님의 마음이 전해져왔다. 마침, 버지니아 주지사는 앞으로 3주 뒤부터 50명까지의 집합을 허용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날은 우리교회 '오십일 작정기도' 가끝나는 5월 31일 성령강림주일이었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은 갈 곳 없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셨다.

나는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 8월이 되어서야 병원에 가 볼 수 있었다. 식은땀을 줄줄 흘리는 원인을 알게 되었다. 약물 치료에 들어갔다. 시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실명할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이미 받은 상태였다. 호르몬 문제, 갑상선 등 온전한 데가 없었다. 몸에 부착하고 다니는 센서기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빨간불이 켜지고 뚝뚝 떨어

지던 저혈당도 제 자리를 찾아갔다. 치료는 속했다. 회색으로 보이던 사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이미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땅위에서 물 위를 걷고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남편과 나란히 걷는 날이 많아졌다. 각자 살아내느라 서로 늙어 버린 것도 몰랐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어려서부터 폐 기능이 좋지 않았다. 앉아서 하는 일이 적성에 맞았다.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이유이기도했다. 어렵고 힘든 가파른 사역의 길을 지친 몸으로 달렸으니 쓰러질만했다. 서너 걸음도 뗼 수 없었던 내가 언덕을 오르고 두 시간을 쉬지 않고 걷는다. 기적이다. 나는 이제 걷고 폴짝거리며 뛴다. 내리 달릴 수 있다. 폐기능은 몰라볼 정도로 좋아졌다. "주여!"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다.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었다.

일 년을 돌아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최악의 상황은 최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주님은 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 르는지 지켜보고 계셨다. 긴박하게 써 내려갔던 유언장을 펴 보았다. 고통 과 고난은 내 인생의 마침표를 의미하는 '정지'가 아니라, '시작을 위한 또 다른 출발'이었다. 나는 나를 위로하기 시작했다. "애 많이 썼다, 누가 알아 주지도 않는 일을 하느라 고생 많았어, 잘 견뎌 내었다, 수고했어." 감사와 은혜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살아 있는 풀 한 포기도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하물며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나를 묶어 놓았던 현실과 코로나도 나를 어찌할 수는 없었다. 내가서 있던 벼랑 끝은 하나님이 만지시는 치유의 자리,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는 자리였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목도했다. 예레미야 29:11 말씀을 받들어 읽는다. 코로나는 나에게 재앙이아니라, 소망이었다. 잔디가 고개를 내밀고 있다. 다시 시작이다. 4월이다.

[수필분야 - 소망상(1등)]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 욥기의새로운이해

정창호 장로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 CA)

지난 12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는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기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집 안에 갇혀 지내야 했던 지난 6월,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 본문은 욥기 말씀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 세상이 전례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는 절박감에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마음가짐으로 욥기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통해, 나의고난에 대한 성숙한 이해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나에게 허락하실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기대하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욥기에 대한 나의 이해는 고난과 인내, 그리고 회복 및 축복에 대한 교훈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의로운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지만 그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였다는 것과 그의 세 친구의 조롱과 비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의롭게 살려 했던 욥의 신앙을 저의 본으로 여기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쳐오는가라는 생각이 들때마다, 욥과 같이 이러한 고난을 인내하므로 잘 이겨내면 더 나은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겠지라는 기대 가운데 묵묵히 견뎌보려 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내

용으로 소그룹 모임에서 권면하기도 하고 또 인내하며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적어도 지난 6월의 욥기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욥기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두 가지를 전제하였습니다. 첫째, 성경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 이며

(누가복음 24:44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둘째는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

(로마서 3:10~12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였습니다.

그런데 욥기 1:1에서는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라는 말씀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기 1:8, 2:3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There is none like him on earth)."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 욥을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욥의 의로움을 '세상에'라고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욥만큼 의로운 자가 이 땅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결코 의인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보게 되면, 욥기 42:5,6 "지금까지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라는 말씀과 같이 욥은 그의 잘못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귀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 왔지만 열심으로 자신의 의를 세우며 바벨탑처럼 쌓여가는 자신의 의를 지키려는 삶에 바쁜 나머지, 하나님의 크심과 그 은혜를 보지 못하는 이것을 죄로 단정하고 있으며, 욥은 이를 회개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 행하는 종교적인 열심들 - 자녀들을 위해서까지 대신해서 빠짐없이 번제를 드림(1:5),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김 (23:12), 이웃에게 베푸는 일(24장), 지나친 금욕(31:1,2)과 구제,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 하는 일(27:4,5,6). 그리고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통해 자신의 의가 정금같이 빛나지기를 바라는(23:10) 기대(소망, 믿음). 이처럼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한 욥의 열심과 기대를 마땅히 회개해야 할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지나온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 오랫동안 욥기 31장까지의 말씀을 좋아 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지키며 살아가려는 욥의 모습이 나의 신앙의 멘토처럼 되었으며 그러한 욥을 본 받겠다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32장 이후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이 욥기 31장까지에 머무르게 한 것 같습니다.

세 친구와의 변론이 끝난 후, 엘리후(32:2, 34:5,6,7)는 "나는 충분히 의로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러한 고통 가운데 두시는가"라고 항변하는 욥의 모습을 책망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흙에서부터 왔으므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없음인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려 하는 모든 행실과 그로 인해 갖게 되는 사람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려 하셨습니다(33:17). 모든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보내신 대속물과 중보자의 기도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하나님의은혜(33:24,26)가 있어야 하며,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열심이나 행위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대속물에 의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엘리후의 변론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자신 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욥'을 거듭 책망(40:8)하셨습니다.

결국 욥기 42:6에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 개하나이다"라고 욥은 말하였습니다. 한동안 욥은 무엇을 회개했을까 하 고생각해 보았습니다.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욥은 회개해야 할 것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여정을 통해, 자신의 의에 집착하고 자신의 의를 바라보며 스스로가 의를 세우려 했던 지난날의 삶이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며,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하고, 자신의 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들이고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즉 스스로를 흙과 같이, 티끌과 재와같이 여기면서 회개하나이다(곧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구나 하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주체는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욥기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이해한 후 다시 읽고 묵상하였을 때, 욥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를 시험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욥을 사랑하셔서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기는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말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 없이는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약성경 가운데 빛나는 신약이었으며,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욥기를 복음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생각에서 지난 6월, 욥 기를 보다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지만, 욥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참고 견디면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으며, 고난을 잘 통과하면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심도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 자신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에 지불한 대가를 나의 의로 여기려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나를 율법 아래 매이게 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은 고난을 통해 성취될 그 무엇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은혜가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나의 신앙의 자세도 어쩌다가 생겨난 바이러스에 대해 내가 잘 대처하고 이겨나가야겠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기보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길어 갈수록 '나의 의를 세우려는 인본주의 신앙'으로 변질되려는 모습이 자주나타나는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곧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아가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함을 욥기의 묵상을 통해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며,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나의 나됨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시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한 권에 \$3.5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권 을 후원하면 매월 \$35 per month

20권 매월 \$70 per month

30권 매월 \$105 per month

50권 매월 \$ 175 per month 100권 매월 \$350 per month

기쁨의 언덕으로 / 느레미야 운동 Email: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books

말씀묵상 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 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원하길 원합니다

매월 □\$ 10 □\$ 20 □\$ 30 □\$ 50 □\$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ministry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66 만나실수 있습니다. 9.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Alabama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주님의교회(유혁재, 334-279-1935) 버밍햄한인연합감리교회(지홍일, 205-957-0595) 프렛빌한인교회(홍성국, 334-221-9392) 한스빌감리교회(256-489-1158)

· Alaska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금원재, 907-346-2886)

• Arizona (애리조나 주)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이기용, 480-423-7777)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조형, 520-760-9749)

• Arkansas (아칸소 주)

소망연합감리교회(조선욱, 501-308-4127)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정형권, 479-263-5434)

•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현, 831-333-6857)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박용삼, 714-534-6378)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이석부, 310-973-5106)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김호용, 323-641-0691)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조승홍, 213-747-4209) 남가주주님의교회(김낙인, 626-965-9191)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최요셉, 818-886-1555) 드림교회(정영희, 626-793-0880)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림학춘, 949-380-7777)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김도민, 714-226-0300)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창민, 310-645-3699) 로스휄리즈연합감리교회(신병옥, 323-382-0691) 밴나이연합감리교회(안정섭, 818-785-3256) 백리한인연한감리교회(류재덕 818-366-0089) 버클리새교회(김종식, 510-526-7346) 베델연합감리교회(한인희, 408-244-8710)

사랑나무교회(이상호, 818-346-1617)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남기성, 805-922-1004)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권혁인, 408-295-4161)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송계영, 415-759-1005)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858-279-9191) 시온연합감리교회(오경환, 310-834-5504) 어바인드림교회(원홍연, 949-786-8354) 어약교회(이상호, 909-622-8815) 영화연합감리교회(강현철, 213-413-4154) 열린교회(김규현, 510-652-4155) 예수사랑교회(이강원, 408-746-9553)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정현섭, 510-451-9076)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남재헌, 805-485-0100) 유바사랑의교회(이진식, 925 279-1214) 월셔연합감리교회(구진모, 323-931-9133) 은강연합감리교회(홍종걸, 714-870-9991) 은혜연합감리교회(한진호, 818-241-9352)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신상만, 805-302-1706) 좋은연합감리교회(김두식, 916-987-9191) 주사랑연합감리교회(이정환, 626-575-9191)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김범수, 310-473-1285)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805-389-3161)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김용근, 818-541-0306) 태평양연합감리교회(이도원, 323-255-3734)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강현중, 310-378-9213)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김영래, 925-935-0191)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김규현, 559-299-0240) 희망교회(김정민, 858-354-0009)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병렬)

• Colorado (콜로라도 주)

고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주활, 303-369-0600) 덴버연합감리교회(이선영, 720-529-5757) 임마누엘연한감리교회(전병욱. 303-753-8823) 푸에블로한인교회(최윤선, 719-544-5739) 한미연합감리교회(이지성, 719-570-0300)

• Connecticut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영, 203-387-1579) 스탬포드한인연합감리교회(신승호, 203-353-0488)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이재삼, 860-953-0141)

• Delaware (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종남, 302-235-5735)

• Florida (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구, 954-739-8581)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권,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백승린, 813-907-5815)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섭, 352-726-7245)

Georgia (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남정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진원, 912-355-8225)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송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남궁전, 678-546-5700)
아틀란타한인교회(김세환, 678-381-1004)
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이준협, 770-321-0020)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김경곤, 678-431-7924)
해밀턴밀한인교회(정찬응, 770-271-4255)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검종길, 912-368-4875)

• Hawaii (하와이 주)

알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람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고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의준, 808-536-7244) 베다니연합감리교회(최현규, 808-626-7434)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정상용, 808-488-3018) 울리브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 Illinois (일리노이 주)

알릴리연합감리교회(엄모성, 847-998-4610)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기, 708-799-0001) 네이퍼빌하인연합감리교회(박관우, 630-904-9191)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젼교회(우민혁, 847-949-9705) 올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감태준, 847-534-2826) 생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에수사랑감리교회(조선형,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중앙연합감리교회(홍진호, 847-797-1144) 하이드팍한인교회(이우민, 773-643-2144)

• Indiana (인디애나 주)

블루밍톤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아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이기채,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종민, 217-417-2288)

• lowa (아이오와 주)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군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의교회(이병훈, 515-233-1063) 콰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 Kansas (캔자스 주)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정션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김다위, 913-648-4277)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록재. 620-231-2540)

• Kentucky (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Louisiana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석, 337-537-5977)

• Maine (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조태섭, 207-774-1617)

• Maryland (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유,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덴연합감리교회(신요섭, 667-206-4162) 워싱톤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하늘비전교회(장재웅, 410-200-3859)

•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주)

보스톤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최진용, 978-470-0621) 비전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 Michigan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김대기,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Hope(Anna Moon, 248-879-2240) 앤이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734-662-0660)

• Minnesota (미네소타 주)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백형두, 612-859-5882)

• Missouri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균, 314-426-5683)

• Nevada (네바다 주)

겨자씨한알교회(최영완, 702-595-3678)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은진, 702-434-9915)

New Hampshire (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신, 603-430-2929)

• New Jersey (뉴저지 주)

가득한교회(이강, 908-464-1807) <u>갈보리연합감리교회(왕태건, 732-613-4930)</u> 그레이스벧엘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져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뉴져지영광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애, 973-994-0450) 리지우드연합감리교회-한어회중(안성훈 914-548-1685)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정호석, 732-542-4321) 모리스타운한인교회(최상훈,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이기성, 973-694-3880) 아콜라연합감리교회(안명훈.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민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님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정희섭, 201-767-1172) 티넥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 New Mexico (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 New York (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림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강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잇넥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남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동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진세관)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나목교회(문정웅, 718-229-4024) 뉴욕한인교회(이용보,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김재현)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유명철)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태)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클리하인연합감리교회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화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김철식,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 North Carolina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엄성일, 919-469-1514)

• Ohio (오하이오 주)

맨스휠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데이튼한인연합교회(유준식, 937-294-2018) 베웰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란,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기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검현석, 330-743-7020) 캔톤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8)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장이준, 614-882-5819) 한마당연합감리교회(440-845-1728) 한민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우용철, 513-271-1434)

• Oklahoma (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엄준노, 405-672-5062) 털사한인연합감리교회(손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김관영, 580-237-6611)

• Oregon (오리건 주)

오레곤우리연합감리교회(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광석, 503-684-7070)

• Pennsylvania (펜실베이니아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신, 215 -280-5768)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김중혁, 610-867-4437) 벤살램한인연합감리교회(차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717-731-9190) 인디아나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박성순, 215-542-5686) 필라등대교회(조병우, 215-884-5251)

• Rhode Island (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선우혁, 401-739-8439)

• South Carolina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런빌연합감리교회(신규석, 864-567-3633) 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배연택, 843-797-8199) 콜럼비아한이연합감리교회(나욹철, 803-447-6186)

• Tennessee (테네시 주)

내쉬빌한인교회(강희준, 615-373-0880)

Texas (텍사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건, 214-901-1116)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조낙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이성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유화청,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박경원) 러백연합감리교회(김다니엘, 316-218-8498)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박청수, 409-554-0550) 성누가연합감리교회(소정일, 254-526-3993) 쌘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배혁, 210-341-8706) 우리만나연합감리교회(오요한, 817-657-4559) 월리암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이병설, 903-794-2882) 웨슬리연합감리교회(주요한, 972-276-2098)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이진희, 254-757-2621)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권성철, 214-238-2003) 킬린우리연합감리교회(전대우, 254-245-8029)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정용석, 713-462-0708) St. Petes' UMC-Katy 한어회중(김데이빗 281-541-6286)

• Vermont (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배상철, 802-876-7622)

• Virginia (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박주섭,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권홍, 757~484~5988) 새빛교회(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幕명성,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류명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강현식, 703~336~3679) 엠마오연합감리교회(김철기, 804~272~5831) 와싱톤사검의교회(김영봉, 703~939~0559) 와싱톤제일교회(정성호, 571~643~0800/0900) 와싱톤하인교회(김영휴, 703~448~1131)

• Washington (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박세용, 206-406-6499) 좋은씨앗교회(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박용규, 253-589-0882)

• Washington D.C (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202-680-2394)

• West Virginia (웨스트버지니아 주)

헌팅톤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최연, 304-522-0357)

• Wisconsin (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973-525-9584)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김찬국,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김성근, 414-425-2530) 케노사한인연합감리교회(곽한두, 262-658-1131)

• GAUM (괌)

광한인선교교회(김택수)

• Russia (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조수진, 011-8-963-617-8439)

성경진도표

Day Bible Chapter Day
01 참인 1-2 01 0)A(9) 1 01 0)A(9) 40 02 3-4 02 2 02 41 03 주말 03 3-4 03 42 04 5-6 04 5 6 6 05 44 06 9-10 06 7-8 06 45 07 11-12 07 주말 07 주말 07 08 13-14 08 9 08 46 09 15-16 09 10 09 47 10 주말 10 11-12 10 48 11 1 17-18 11 13-14 11 49 11 17-18 11 13-14 11 49 11 12 19-20 12 15-16 12 50 13 21-22 13 17-18 13 51 14 23-24 14 주말 14 주말 14 주말 14 주말 14 주말 15 52 16 27-28 16 21 16 53 17 주말 17 22 17 54 18 29-30 18 23 18 55 19 31 19 24-25 19 56 20 전도서 1-2 20 26-27 20 57 21 3-4 21 5-6 22 28-29 22 58 23 7-8 23 30-31 23 59 24 주말 24 32-33 24 60 25 9-10 25 34-35 25 61 26 11-12 27 38-39 27 63 28 3-4 28 주말 27 66 30 7-8 30 65 31 7-8 30 65 31 7-8 30 65 31 7-8 30 65 31 7-8 30 65 31 7-8 30 65 31 7-8 30 65 31 7-8 30 65 31 7-8 30 65 31 7-8 30 65 31 7-8 30 65 31 7-8 30 65 31 7-8 30 7-8 30 65 31 7-8 30
02 3-4 02 2 02 41 03 주일 03 3-4 03 42 04 5-6 04 5 04 43 05 7-8 05 6 05 44 06 9-10 06 7-8 06 45 07 11-12 07 주일 07 주일 08 13-14 08 9 08 46 09 15-16 09 10 09 47 10 주일 10 11-12 10 48 11 17-18 11 13-14 11 49 12 19-20 12 15-16 12 50 13 21-22 13 17-18 13 51 14 23-24 14 72 14 72 14 72 16 27-28 16 21 16 53 55
03
04 5-6 04 5 04 43 05 7-8 05 6 05 44 06 9-10 06 7-8 06 45 07 11-12 07 주일 07 주일 08 13-14 08 9 08 46 09 15-16 09 10 09 47 10 주일 10 11-12 10 48 11 17-18 11 13-14 11 49 12 19-20 12 15-16 12 50 13 21-22 13 17-18 13 51 14 23-24 14 79 14 72 15 25-26 15 19-20 15 52 16 27-28 16 21 16 53 17 주일 17 22 17 54 18 29-30
04 5-6 04 5 04 43 05 7-8 05 6 05 44 06 9-10 06 7-8 06 45 07 11-12 07 주일 07 주일 08 13-14 08 9 08 46 09 15-16 09 10 09 47 10 주일 10 11-12 10 48 11 17-18 11 13-14 11 49 12 19-20 12 15-16 12 50 13 21-22 13 17-18 13 51 14 23-24 14 79 14 72 15 25-26 15 19-20 15 52 16 27-28 16 21 16 53 17 주일 17 22 17 54 18 29-30
05
06
11-12
08
10
10
11
11
12 19-20 12 15-16 12 50 13 21-22 13 17-18 13 51 14 23-24 14 주일 15 25-26 15 19-20 15 52 16 27-28 16 21 16 53 17 주일 17 22 17 54 18 29-30 18 23 18 55 19 20 전도서 1-2 20 26-27 20 57 21 3-4 21 주일 21 주일 21 주일 21 주일 22 58 23 7-8 23 30-31 23 59 24 주일 24 32-33 24 60 25 9-10 26 34-35 25 61 26 11-12 26 36-27 26 62 27 07 1-2 27 38-39 27 63 28 3-4 28 주일 28 주일 28 주일 29 56-6 29 5-6 32 38-39 27 63 28 3-4 28 주일 28 주일 28 주일 29 56-6 29 5-6 30 30-31 33 66 27 07 1-2 27 38-39 27 63 31 66 20 11-12 26 36-27 26 62 72 73 73 74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13
14 23-24 14 주일 14 주일 14 주일 15 25-26 15 15 19-20 15 52 15 62 16 27-28 16 27-28 16 21 16 53 17 54 18 29-30 18 23 18 55 18 19 31 19 24-25 19 56 20 전도서 1-2 20 26-27 20 57 21 3-4 21 주일 22 5-6 22 28-29 22 58 23 7-8 23 30-31 23 59 24 60 25 9-10 25 34-35 25 61 11-12 26 36-27 26 62 27 00? 11-12 27 38-39 27 63 32 28 3-4 28 729 5-6 8 20 5-6 8 20 5-6 8 20 5-6 8 20 5-6 8 20 5-6 8 20 5-6 8 2
15
16 27-28 16 21 16 53 17 주일 17 22 17 54 18 29-30 18 23 18 55 19 31 19 24-25 19 56 20 전도서 1-2 20 26-27 20 57 21 3-4 21 주일 21 주일 21 주일 21 주일 21 주일 22 58 23 7-8 23 30-31 23 59 24 주일 24 32-33 24 60 25 9-10 25 34-35 25 61 26 11-12 26 36-27 26 62 27 아가 1-2 27 38-39 27 63 28 3-4 28 주일 28 72 28 72 28 72 29 64 29 5-6 8 29 5-6 8 29 29 64 30 7-8 30 65 31 주일 11-12 10 1 1 10 1 10 1 10 1 10 1 10 1 1
17 주일 17 22 17 54 18 29-30 18 23 18 55 19 31 19 24-25 19 56 20 전도서 1-2 20 26-27 20 57 21 3-4 21 주일 21 주일 22 5-6 22 28-29 22 58 23 7-8 23 30-31 23 59 24 주일 24 32-33 24 60 25 9-10 25 34-35 25 61 26 11-12 26 36-27 26 62 27 아가 1-2 27 38-39 27 63 30 7-8 34 28 주일 28 주일 28 주일 29 5-6 4 28 주일 28 주일 28 주일 28 주일 28 72 29 5-6 5 20 78 78 78 78 78 78 78 78 78 78 78 78 78
17 주일 17 22 17 54 18 29-30 18 23 18 55 19 31 19 24-25 19 56 20 전도서 1-2 20 26-27 20 57 21 3-4 21 주일 21 주일 22 5-6 22 28-29 22 58 23 7-8 23 30-31 23 59 24 주일 24 32-33 24 60 25 9-10 25 34-35 25 61 26 11-12 26 36-27 26 62 27 아가 1-2 27 38-39 27 63 30 7-8 34 28 주일 28 주일 28 주일 29 5-6 4 28 주일 28 주일 28 주일 28 주일 28 72 29 5-6 5 20 78 78 78 78 78 78 78 78 78 78 78 78 78
18
19 31 19 24-25 19 56 20 전도서 1-2 20 26-27 20 57 21 3-4 21 주일 22 5-6 22 28-29 22 58 23 7-8 23 30-31 23 59 24 주일 24 32-33 24 60 25 9-10 25 34-35 25 61 26 11-12 26 36-27 26 62 27 이가 1-2 27 38-39 27 63 30 7-8 3 30 30 65 31 주일 31 66 2021/04 2021/05 2021/06 2021/04 2021/05 2021/06 2021/04 2021/05 2021/06 2021/04 2021/05 2021/06 2021/04 2021/05 2021/06 2021/04 2021/05 2021/06 2021/04 2021/05 2021/06 2021/04 2021/05 2021/06 2021/04 2021/05 2021/06 2021/04 2021/05 2021/06 2021/04 2021/05 2021/06 2021/04 2021/05 2021/06 2021/04 2021/05 2021/06 2021/04 2021/05 2021/06 2021/06 2021/06 2021/06 2021/06 2021/06 2021/06 2021/06 31 66 2021/06 31 66 2021/07 50 66 20 66 주일 0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0 전도서 1-2 20 26-27 20 57 21 3-4 21 주일 21 주일 21 주일 22 5-6 22 28-29 22 58 23 7-8 23 30-31 23 59 24 주일 24 32-33 24 60 25 9-10 25 34-35 25 61 26 11-1-12 26 36-27 26 62 27 이가 1-2 27 38-39 27 63 28 3-4 28 주일 28 주일 28 주일 28 주일 29 5-6 8 29 64 30 7-8 30 30 65 31 주일 31 66 2021/04 2021/04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O1 H-1 01 베드로전서 1 01 열왕가상 1 10 02 H-2 02 주일 02 2 2 03 3 3 3 3 3 4 4 6 6 6 0
21 3-4 21 주일 21 주일 21 주일 22 58 28 29 22 58 37 -8 23 30 -31 23 59 24 60 25 34 -35 25 61 61 26 26 36 -27 26 62 27 0)가 1-2 27 38 -39 27 63 31 66 31 31 7-8 30 3 65 31 66 31 31 31 66 31 31 31 31 66 31 31 31 31 66 31 31 31 31 66 31 31 31 31 66 31 31 31 66 31 31 31 31 66 31 31 31 31 31 31 31 31 31 31 31 31 31
22 5-6 22 28-29 22 58 23 7-8 23 30-31 23 59 24 주일 24 32-33 24 60 25 9-10 25 34-35 25 61 26 11-12 26 36-27 26 62 27 0가 1-2 27 38-39 27 63 28 3-4 28 주일 28 주일 29 5-6 29 64 30 7-8 30 65 31 주일 31 66 2021/04 2021/05 2021/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H-1 01 ШटरФИ 1 01 9871½ 1 02 H-2 02 주일 02 2 2 0 0 0 2 0 0 0
22 5-6 22 28-29 22 58 23 7-8 23 30-31 23 59 24 주일 24 32-33 24 60 25 9-10 25 34-35 25 61 26 11-12 26 36-27 26 62 27 0가 1-2 27 38-39 27 63 28 3-4 28 주일 28 주일 29 5-6 29 64 30 7-8 30 65 31 주일 31 66 2021/04 2021/05 2021/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H-1 01 ШटरФИ 1 01 9871½ 1 02 H-2 02 주일 02 2 2 0 0 0 2 0 0 0
23 7-8 23 30-31 23 59 24 주일 24 32-33 24 60 25 9-10 25 34-35 25 61 26 11-12 26 36-27 26 62 27 0ł7ł 1-2 27 38-39 27 63 28 3-4 28 주일 28 주일 29 5-6 29 64 30 7-8 30 65 31 주일 31 66 2021/04 2021/05 29 64 30 7-8 30 65 31 7-8 30 65 31 10 1 1 01 1 2021/06 2021/04 2021/05 2021/06 2021/06 20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4 주일 24 32-33 24 60 25 9-10 25 34-35 25 61 26 11-12 26 36-27 26 62 27 아가 1-2 27 38-39 27 63 28 3-4 28 주일 28 주일 28 주일 29 5-6 29 64 30 7-8 30 31 주일 31 66 2021/04 2021/05 2021/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O1 H-1 O1 베드로전서 1 O1 열왕기상 1 002 H-2 02 주일 02 2 2 03 3 3 3 04 4 4 4 4 4 4 4 6 5 11 05 5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25 9-10 25 34-35 25 61 26 11-12 26 36-27 26 62 27 아카 1-2 27 38-39 27 63 28 3-4 28 주일 28 주일 29 5-6 29 30 30 65 31 주일 31 66 2021/04 2021/05 2021/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O1 H-1 01 베드로전서 1 01 열왕기상 1 1002 H-2 02 주일 02 2 2 03 H-3 03 2-3 03 3 3 3 04 4 4 4 5 04 4 4 06 3-4 06 3-4 06 3-4 06 3-4 06 3-4 06 3-4 06 3-4 06 3-4 06 3-4 06 3-4 06 3-4 06 3-4 06 3-6 09 9 9 09 9 9 09 8 10 0 10 10 10 10 2-3 10 9 9 11 1 5 13 2 13 요한3서 1 13 주일 14 11 10 11 10 11 11 11 11 11 11 11 11 11
26
27 이가 1-2 27 38-39 27 63 28 3-4 28 주일 28 주일 29 5-6 30 30 65 31 주일 31 66 2021/04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H-1 01 베드로전서 1 01 열왕기상 1 02 H-2 02 주일 02 2 03 H-3 03 22-3 03 3 04 부활주일 04 4-5 04 4 05 에스라 1-2 05 베드로후서 1 05 5 06 3-4 06 2 06 주일 07 5-6 07 3 07 6 08 7-8 08 요한1서 1 08 7 09 9 9 09 주일 09 8 10 10 10 10 10 22-3 10 9 11 느테미야 주일 11 4 4-5 11 13 2 13 요한3서 1 13 주일 14 3-4 14 유다서 1 14 12 15 5 15 요한3시록 1 15 13 16 6 6 6 16 주일 18 6-7 19 17
28 3-4 28 주일 28 주일 29 5-6 30 7-8 30 65 31 주일 30 65 31 주일 30 66 2021/04 2021/05 2021/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H-1 01 베드로전서 1 01 열왕기상 1 02 H-2 02 주일 02 2 2 03 H-3 03 2-3 03 3 3 04 부활주일 04 4-5 04 4 4 05 예스라 1-2 05 베드로후서 1 05 5 5 06 3-4 06 2 06 주일 0 6 7 9 9 9 9 9 9 9 9 9 9 9 9 9 9
29 5-6 30 7-8 30 30 65 31 66 31 주일 2021/05 2021/06 31 66 31 주일 31 66 65 31 66 65 31 66 65 31 66 65 31 66 65 31 66 65 31 66 65 31 66 66 66 66 66 66 66 66 66 66 66 66 66
30 7-8 31 30 65 65 31 66 31 60 60 31 60 60 31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30 7-8 31 30 65 65 31 66 31 60 60 31 60 60 31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31 주일 31 66 2021/04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1 H-1 01 베드로전서 1 01 열왕기상 1 02 2 02 2 2 03 H-2 05 베드로후서 1 05 04 4-5 04 4 4 05 에스라 1-2 05 베드로후서 1 05 5 5 06 3-4 06 2 06 주일 07 5-6 07 3 07 6 08 7-8 08 요한1서 1 08 7 7 09 9 9 09 조일 09 8 10 11 느레미야 주일 11 1 10 10 2-3 10 10 9 11 1 12 11 13 2 11 13 2 11 13 2 11 13 14 3-4 14 유다서 1 14 12 15 5 15 15 요한계시록 1 15 13 16 6 6 16 79 18
2021/04 2021/05 2021/06 Day Bible Chapter Day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H-1 01 베드로전서 1 01 열왕기상 1 02 H-2 02 주일 02 2 2 03 H-3 03 2-3 03 3 3 04 부활주일 04 4-5 04 4 4 05 에스라 1-2 05 베드로후서 1 05 5 5 06 3-4 06 2 06 주일 0 6 7 3 07 6 6 7 3 07 6 6 7 09 9 9 09 8 9 09 8 7 09 9 9 09 8 10 9 8 10 11 10 10 2-3 10 9 11 10 10 2-3 10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H-1 01 베드로전서 1 01 열왕기상 1 02 H-2 02 주일 02 2 2 03 H-3 03 2-3 03 3 3 04 부활주일 04 4-5 04 4 4 05 에스라 1-2 05 베드로후서 1 05 5 5 06 3-4 06 2 06 주일 06 주일 07 6 6 7 3 07 6 6 7 08 7 9 9 9 9 9 9 9 9 9 8 10 9 8 10 9 11 10 10 2-3 10 9 9 9 9 9 9 9 10 9 11<
1
02 H-2 02 주일 02 2 03 H-3 03 2-3 03 3 04 부활주일 04 4-5 04 4 05 에스라 1-2 05 베드로후서 1 05 5 06 3-4 06 2 06 주일 06 주일 07 5-6 07 3 07 6 6 08 7-8 08 요한1서 1 08 7 09 9 09 주일 09 8 10 10 10 2-3 10 9 11 느레미야 주일 11 4-5 11 10 12 1 12 요한2서 1 12 11 13 2 13 요한3서 1 13 주일 14 3-4 14 유다서 1 14 12 15
03 H-3 03 2-3 03 3 04 부활주일 04 4-5 04 4 05 에스라 1-2 05 베드로후서 1 05 5 06 3-4 06 2 06 주일 06 주일 07 5-6 07 3 07 6 6 08 7-8 08 요한1서 1 08 7 09 9 09 주일 09 8 10 10 10 2-3 10 9 11 느레미야 주일 11 4-5 11 10 12 1 12 요한2서 1 12 11 13 2 13 요한3서 1 13 주일 14 3-4 14 유다서 1 14 12 15 5 15 요한계시록 1 15 13 <tr< td=""></tr<>
04 부활주일 04 4-5 04 4 05 에스라 1-2 05 베드로후서 1 05 5 06 3-4 06 2 06 주일 07 5-6 07 3 07 6 08 7-8 08 요한1서 1 08 7 09 9 09 주일 09 8 10 10 10 2-3 10 9 11 느레미야 주일 11 4-5 11 10 12 1 12 요한2서 1 12 11 13 2 13 요한3서 1 13 주일 14 3-4 14 유다서 1 14 12 15 5 15 요한계시록 1 15 13 16 6 16 주일 16 14 17 7 7
05 에스라 1-2 05 베드로후서 1 05 5 06 3-4 06 2 06 주일 07 5-6 07 3 07 6 08 7-8 08 요한1서 1 08 7 09 9 09 주일 09 8 10 10 10 2-3 10 9 11 上혜미야 주일 11 4-5 11 10 12 1 12 요한2서 1 12 11 13 2 13 요한3서 1 13 주일 14 3-4 14 유다서 1 14 12 15 5 15 요한3서 1 15 13 16 6 16 주일 16 14 17 7 7 7 7 17 15 18 주일
06 3-4 06 2 06 주일 07 5-6 07 3 07 6 08 7-8 08 요한1서 1 08 7 09 9 09 주일 09 8 10 10 10 2-3 10 9 11 느헤미야 주일 11 10 10 12 1 12 요한2서 1 12 11 13 2 13 요한3서 1 13 주일 14 3-4 14 유다서 1 14 12 15 5 15 요한게시록 1 15 13 16 6 16 주일 16 14 17 7 7 17 2-3 17 15 18 주일 18 4-5 18 16 19 8 19 6-7 19 17
07 5-6 07 3 07 6 08 7-8 08 요한1서 1 08 7 09 9 09 주일 09 8 10 10 10 2-3 10 9 11 느레미야 주일 11 4-5 11 10 12 1 12 요한2서 1 12 11 13 2 13 요한3서 1 13 주일 14 3-4 14 유다서 1 14 12 15 5 15 요한3시록 1 15 13 16 6 16 주일 16 14 17 7 7 7 17 2-3 17 15 18 주일 18 4-5 18 16 19 8 19 6-7 19 17
07 5-6 07 3 07 6 08 7-8 08 요한1서 1 08 7 09 9 09 주일 09 8 10 10 10 2-3 10 9 11 느레미야 주일 11 4-5 11 10 12 1 12 요한2서 1 12 11 13 2 13 요한3서 1 13 주일 14 3-4 14 유다서 1 14 12 15 5 15 요한3시록 1 15 13 16 6 16 주일 16 14 17 7 7 7 17 2-3 17 15 18 주일 18 4-5 18 16 19 8 19 6-7 19 17
08 7-8 08 요한1서 1 08 7 09 9 09 주일 09 8 10 10 10 2-3 10 9 11 느레미야 주일 11 4-5 11 10 12 1 12 요한2서 1 12 11 13 2 13 요한3서 1 13 주일 14 3-4 14 유다서 1 14 12 15 5 15 요한계시록 1 15 13 16 6 16 주일 16 14 17 7 17 2-3 17 15 18 주일 18 4-5 18 16 19 8 19 6-7 19 17
09 9 09 주일 09 8 10 10 10 2-3 10 9 11 느헤미야 주일 11 4-5 11 10 12 1 12 요한2서 1 12 11 13 2 13 요한3서 1 13 주일 14 3-4 14 유다서 1 14 12 15 5 15 요한계시록 1 15 13 16 6 16 주일 16 14 17 7 17 2-3 17 15 18 주일 18 4-5 18 16 19 8 19 6-7 19 17
10 10 10 10 2-3 10 9 11 10 10 10 10 11 10 10 11 10 10 11 11
11 느헤미야 주일 11 4-5 11 10 12 1 12 요한2서 1 12 11 13 2 13 요한3서 1 13 주일 14 3-4 14 유다서 1 14 12 15 5 15 요한계시록 1 15 13 16 6 16 주일 16 14 17 7 17 2-3 17 15 18 주일 18 4-5 18 16 19 8 19 6-7 19 17
12 1 12 요한2서 1 12 11 13 주일 14 15 13 주일 14 3-4 14 유다서 1 14 12 15 15 15 15 요한계시록 1 15 13 16 6 16 주일 18 주일 18 4-5 18 16 19 8 19 6-7 19 17
12 1 12 요한2서 1 12 11 13 주일 14 15 13 주일 14 3-4 14 유다서 1 14 12 15 15 15 15 요한계시록 1 15 13 16 6 16 주일 18 주일 18 4-5 18 16 19 8 19 6-7 19 17
13 2 13 요한3서 1 13 주일 14 3-4 14 유다서 1 14 12 15 5 15 요한계시록 1 15 13 16 6 16 주일 16 14 17 7 17 2-3 17 15 18 주일 18 4-5 18 16 19 8 19 6-7 19 17
14 3-4 14 유다서 1 14 12 15 5 15 요한계시록 1 15 13 16 6 16 주일 16 14 17 7 17 2-3 17 15 18 주일 18 4-5 18 16 19 8 19 6-7 19 17
15 5 15 요한계시록 1 15 13 16 6 16 주일 16 14 17 7 17 2-3 17 15 18 주일 18 4-5 18 16 19 8 19 6-7 19 17
16 6 16 주일 16 14 17 7 17 2-3 17 15 18 주일 18 4-5 18 16 19 8 19 6-7 19 17
17 7 17 2-3 17 15 18 주일 18 4-5 18 16 19 8 19 6-7 19 17
18 주일 18 4-5 18 16 19 8 19 6-7 19 17
19 8 19 6-7 19 17
21 11 21 10-11 21 18
22 12 22 12-13 22 19
23 에스터 1 23 주일 23 20
24 2 24 14-15 24 21
25 주일 25 16-17 25 22
26 3 26 18 26 열왕기하 1
26 3 26 18 26 열왕기하 1 27 4 27 19 27 주일
26 3 26 18 26 열왕기하 1 27 4 27 19 27 주일 28 5-6 28 20 28 2
26 3 26 18 26 열왕기하 1 27 4 27 19 27 주일 28 5-6 28 20 28 2 29 7-8 29 21 29 3
26 3 26 18 26 열왕기하 1 27 4 27 19 27 주일 28 5-6 28 20 28 2

2021/07			2021/08			2021/09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열왕기하	5	01	미가	주일	01	디모데전서	1-2
02		6	02		1	02		3-4
03		7	03		2-3	03		5
04		주일	04		4	04		6
05		8	05		5	05		주일
06		9	06		6	06	디모데후서	1
07		10	07		7	07		2
08		11	08		주일	08		3
09		12	09	나훔	1	09		4
10		13	10		2	10	디도서	1-2
11		주일	11		3	11		3
12		14	12	학개	1	12		주일
13		15	13		2	13	빌레몬서	1
14		16	14	스가랴	1-2	14	히브리서	1-2
15		17	15		주일	15		3
16		18	16		3-4	16		4
17		19	17		5-6	17		5
18		주일	18		7	18		6
19		20	19		8	19		주일
20		21	20		9	20		7-8
21		22	21		10	21		9
22		23	22		11	22		10
23		24	23		주일	23		11
24		25	24		12	24		12
25		주일	25		13	25		13
26	하박국	1	26		14	26		주일
27		2	27	말라기	1	27	야고보서	1
28		3	28		2	28		2
29	스바냐	1	29		3	29		3-4
30		2	30		주일	30		5
31		3	31		4			

2021/10			2021/11			2021/12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에스겔	1	01	에스겔	33	01	누가복음	3
02		2-3	02		34	02		4:1-13
03		주일	03		35	03		4:14-44
04		4-5	04		36	04		5
05		6-7	05		37	05		주일
06		8	06		38	06		6
07		9-10	07		주일	07		7
08		11	08		39	08		8
09		12	09		40	09		9
10		주일	10		41	10		10
11		13	11		42	11		11
12		14	12		43	12		주일
13		15-16	13		44	13		12
14		17	14		주일	14		13
15		18	15		45	15		14
16		19	16		46	16		15
17		주일	17		47	17		16
18		20	18	아모스	1-2	18		17
19		21	19		3-4	19		주일
20		22	20		5	20		18
21		23	21		주일	21		19
22		24	22		6	22		1:1-38
23		25	23		7	23		1:39-80
24		주일	24		8	24		2:1-21
25		26	25	오바댜	1	25		2:22-52
26		27	26	요나	1	26		주일
27		28	27		2	27		20
28		29	28		주일	28		21
29		30-31	29		3	29		22
30		32	30		4	30		23
31		주일				31		24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이메일
 kumcdevotion@gmail.com

 ❖ 발행인
 류재덕(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 운영위원장
 이성현(한인총회 느레미야 운동)

 ❖ 편집기획
 김종완(느레미야 운동)

❖ 영어번역 양훈, 박길재, 김종완, Ester Kim

❖목회자기획위원 강현식, 권혁인, 김기천, 김다위, 도은배, 배혁,

서준석, 오치용, 이광훈, 조선형, 한명훈, 류재덕

❖ 평신도 편집위원 유경진, 정창호, 조숙희, 히금숙, 조윤희
 ❖ 편집문의 kumcdevotion@gmail.com

❖ 배송/결제문의 salesusa@hosanna.net / 562-944-5344(호산나미디어)

함께 하신 분들

❖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이광훈 목사 (콜로니얼 비치 연합감리교회, VA)

❖ 주일 칼럼

송종남 목사(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 DE) 김정호 목사(후러싱제일교회, NY) 이승우 목사(워싱톤연합감리교회, MD) 김기석 목사(청파감리교회, Korea)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1976,1992 American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